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오해섭 · 최홍일 · 송원일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 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 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저 자 오해섭, 최홍일, 송원일

연구진 연구책임자_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_송원일(평택대학교 초빙교수)
연구보조원_문세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대안교육 학습경험 참여 실태 및 변화 정도를 포함하여, 대안교육 참여 동기, 학습 및 활동경험 만족도,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 대안교육의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여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대안교육 전체와 영역별 현안 및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과 함께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분야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내용

- 국내외 대안교육 제도적 기반 및 관련 정책, 대안교육 영역별 운영 현황 탐색
-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파악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 문항 개발
-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경험, 변화 정도, 만족도, 개선방안 등 영역별 비교분석
- 현안 진단 결과를 토대로 대안교육 분야의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 연구방법

- 문헌 고찰, 양적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콜로키움, 대안교육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활동 경험, 변화정도, 만족도, 개선사항 분석결과

- 대안교육 영역별 평균은 특성화 중고등학교(4.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4.04), 대안학교의 평균(3.95), 대안교육기관(3.88) 순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특성화 중고등학교(스포츠 활동),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교사·학생 간 소통 프로그램),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여행, 캠프)
-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는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4.07), 대안학교 평균(4.00), 대안교육기관(3.82) 등으로 비교적 높았음.
- 대안교육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만족도 평균(4.26)이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4.16), 대안학교(4.09), 대안교육기관(3.93) 순으로 나타났음.
- 대안학교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학교 및 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의 요구가 가장 높았음.

● 대안교육 참여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결과

- 대안교육은 힘을 길러주고 진로 탐색과 마음의 안정,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높았음.
- 대안교육이 학생이 직접 개설하고 설계하는 자연친화적인 교육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대안교과에 너무 치우치고 부족한 예산 등 부정적인 인식

●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대안교육 포럼)

-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을 토대로 향후 역할과 나아갈 방향 모색

●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협력 방안 도출(콜로키움)

- 두 영역 간 교육 및 활동 연계 시스템 구축,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성 검토
- 대안교육에서 청소년 활동 시설 및 공간 활용 방안 모색, 지역자원 연계 방안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대안교육 분야 공통과제

-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 주도 학습활동 기획단’ 구성운영
- 대안교육 교사 연수 및 행정적 체계 구축을 담당할 ‘대안교육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안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민·관·학 대안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 대안교육 참여 사유 및 다양성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지정 운영’

● 대안교육 영역별 과제

-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 확충(**대안학교**)
- 전체 교육과정 총 시수 내에서 과목 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목 편성권 부여(**대안교육 특성화학교**)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원적교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소통채널 운영(**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대안교육기관**)

● 향후 연구 방향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대상 이행경로 분석 연구
- 대안교육 현장의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돌봄과 치유를 통한 성장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 ‘청소년 한부모’ 혹은 ‘학생미혼모’ 대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시·도별 연계 방안 연구
- 대안교육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일반학교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23-기본06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 3. 연구 방법 9

II. 대안교육 정책 및 학습경험에 관한 국내외 문헌 고찰

- 1. 대안교육의 사회적 맥락과 연구 동향 탐색 15
- 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고찰 19
- 3. 국외 대안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분석 38

III.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조사

- 1. 조사개요 69
- 2. 조사 도구 개발 70
- 3. 표본설계 및 분석 방법 76
- 4.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조사 결과 77
- 5. 대안교육 영역별 청소년 참여 실태 비교 122
- 6. 소결 198

IV.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와 정책적 지원 방안

1.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경험 질적 조사 및 분석 205
2.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29
3. 대안교육현장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234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41
2. 정책 제언 246
3. 향후 연구 방향 254

참고문헌 257

부 록 265

1. 조사표 267
2. 면담 질문지 271
3. 법정대리인 연구 참여 동의서 272
4. 학생 및 교사용 연구 참여 동의서 274

국문초록 277

Abstract 279

표 목차

표 I-1.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특성 비교	7
표 I-2. 설문조사 개요	10
표 II-1.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현황(18교: 공립 5교, 사립 13교) ..	20
표 II-2.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 현황(24교: 공립 5교, 사립 19교) ..	21
표 II-3. 대안학교(각종학교) 현황(50교: 공립 22교, 사립 28교)	25
표 II-4. 시도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30
표 II-5. 시도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34
표 II-6. 독일의 대안학교	54
표 III-1. 설문지 영역 및 문항 구성	72
표 III-2. 설문조사 개요	76
표 III-3. 응답자 특성	77
표 III-4.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중복응답)	79
표 III-5. 학습 및 활동경험_전체	80
표 III-6. 학습 및 활동경험_개인생활상담	81
표 III-7. 학습 및 활동경험_심리검사	82
표 III-8. 학습 및 활동경험_진로상담	83
표 III-9. 학습 및 활동경험_진학 및 직업 탐색	84
표 III-10. 학습 및 활동경험_자격증 탐색 및 체험	85
표 III-11. 학습 및 활동경험_학습지도, 학습코칭	86
표 III-12. 학습 및 활동경험_공동체 활동	87
표 III-13. 학습 및 활동경험_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88
표 III-14. 학습 및 활동경험_생태·환경 관련 활동	89
표 III-15. 학습 및 활동경험_또래관계 증진(멘토링 등)	90
표 III-16. 학습 및 활동경험_교사-학생 간 소통(사제동행 등)	91
표 III-17. 학습 및 활동경험_부모-자녀 관계 증진(가족상담 등)	92
표 III-18. 학습 및 활동경험_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93
표 III-19. 학습 및 활동경험_스포츠 활동	94
표 III-20. 학습 및 활동경험_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95
표 III-21. 학습 및 활동경험_여행, 캠프	96

표 III-22. 전반적인 변화_전체	97
표 III-23. 전반적인 변화_친구 및 선생님들의 관계가 좋아졌다.	98
표 III-24. 전반적인 변화_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	99
표 III-25. 전반적인 변화_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	100
표 III-26. 전반적인 변화_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	101
표 III-27.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102
표 III-28. 전반적인 변화_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	103
표 III-29. 전반적인 변화_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104
표 III-30. 전반적인 변화_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105
표 III-31. 전반적인 변화_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106
표 III-32. 전반적인 변화_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107
표 III-33. 전반적인 변화_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108
표 III-34. 전반적인 변화_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109
표 III-35. 대안교육 만족도_전체	110
표 III-36.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111
표 III-37.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112
표 III-38.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3
표 III-39. 개선방안의 필요성_전체	114
표 III-40. 개선방안_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115
표 III-41. 개선방안_대안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16
표 III-42. 개선방안_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	117
표 III-43. 개선방안_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118
표 III-44. 개선방안_체험활동 비중 확대	119
표 III-45. 개선방안_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120
표 III-46. 개선방안_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자원 ..	121
표 III-47. 영역별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	122
표 III-48. 기관별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	123
표 III-49.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전체기관	124
표 III-50.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대안학교	125
표 III-51.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특성화중고등학교	126

표 III-52.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대안교육기관	127
표 III-53.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128
표 III-54.	학습 및 활동경험_개인생활상담	129
표 III-55.	학습 및 활동경험_심리검사	130
표 III-56.	학습 및 활동경험_진로상담	131
표 III-57.	학습 및 활동경험_진학 및 직업 탐색	133
표 III-58.	학습 및 활동경험_자격증 탐색 및 체험	134
표 III-59.	학습 및 활동경험_학습지도, 학습코칭	136
표 III-60.	학습 및 활동경험_공동체 활동	137
표 III-61.	학습 및 활동경험_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138
표 III-62.	학습 및 활동경험_생태·환경 관련 활동	139
표 III-63.	학습 및 활동경험_또래관계 증진(멘토링 등)	140
표 III-64.	학습 및 활동경험_교사·학생 간 소통(사제동행 등)	141
표 III-65.	학습 및 활동경험_부모·자녀 관계 증진(가족상담 등)	143
표 III-66.	학습 및 활동경험_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144
표 III-67.	학습 및 활동경험_스포츠 활동	145
표 III-68.	학습 및 활동경험_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146
표 III-69.	학습 및 활동경험_여행, 캠프	148
표 III-70.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149
표 III-71.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일반교과 수업을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149
표 III-72.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150
표 III-73.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발표회, 전시회 등 학습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51
표 III-74.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151
표 III-75.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나 취업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152
표 III-76.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153
표 III-77.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학습활동 진행 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154
표 III-78.	기관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	155
표 III-79.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전체 기관	156
표 III-80.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대안학교	157

표 III -81.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특성화 중고등학교	158
표 III -82.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대안교육기관	159
표 III -83.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160
표 III -84. 전반적인 변화_친구 및 선생님들의 관계가 좋아졌다.	161
표 III -85. 전반적인 변화_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163
표 III -86. 전반적인 변화_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164
표 III -87. 전반적인 변화_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166
표 III -88.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167
표 III -89. 전반적인 변화_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168
표 III -90. 전반적인 변화_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170
표 III -91. 전반적인 변화_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171
표 III -92. 전반적인 변화_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172
표 III -93. 전반적인 변화_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173
표 III -94. 전반적인 변화_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174
표 III -95. 전반적인 변화_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75
표 III -96. 기관별 대안교육 만족도	177
표 III -97. 대안교육 만족도_전체 기관	177
표 III -98.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학교	178
표 III -99. 대안교육 만족도_특성화중고등학교	178
표 III -100.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기관	179
표 III -101.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179
표 III -102.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180
표 III -103.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181
표 III -104.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3
표 III -105. 기관별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	184
표 III -106.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전체 기관	185
표 III -107.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대안학교	185
표 III -108.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특성화중고등학교	186
표 III -109.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대안교육기관	187

표 III-110.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187
표 III-111. 개선방안_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188
표 III-112. 개선방안_대안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90
표 III-113. 개선방안_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	191
표 III-114. 개선방안_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192
표 III-115. 개선방안_체험활동 비중 확대	193
표 III-116. 개선방안_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194
표 III-117. 개선방안_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196
표 IV-1. 조사 방법 및 기간	206
표 IV-2. 반구조화된 FGI 질문 내용	207
표 IV-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208
표 IV-4. FGI 주요 응답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28
표 IV-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	231
표 V-1.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활동 경험, 변화정도, 만족도, 개선사항 등	242
표 V-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 주요 내용	243
표 V-3.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 영역별 개선 및 요구 사항’	245
표 V-4.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 과제	247
표 V-5.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253

그림 목차

그림 I-1. FGI 질문지 개발절차	11
그림 I-2. 연구추진 단계	12
그림 II-1. 대안교육 현장의 시기별 중요 사건	16
그림 II-2. 대안교육의 현장 변화 체계	18
그림 III-1. 설문지 개발절차	71
그림 III-2. 기관별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	123
그림 III-3. 학습 및 활동경험_심리검사	131
그림 III-4. 학습 및 활동경험_진로상담	132
그림 III-5. 학습 및 활동경험_진학 및 직업 탐색	133
그림 III-6. 학습 및 활동경험_자격증 탐색 및 체험	135
그림 III-7. 학습 및 활동경험_학습지도, 학습코칭	136
그림 III-8. 학습 및 활동경험_생태·환경 관련 활동	140
그림 III-9. 학습 및 활동경험_교사-학생 간 소통(사제동행 등)	142
그림 III-10. 학습 및 활동경험_부모-자녀 관계 증진(가족상담 등) ..	143
그림 III-11. 학습 및 활동경험_스포츠 활동	146
그림 III-12. 기관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	155
그림 III-13. 전반적인 변화_친구 및 선생님들의 관계가 좋아졌다. ..	162
그림 III-14. 전반적인 변화_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	163
그림 III-15. 전반적인 변화_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	165
그림 III-16. 전반적인 변화_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166
그림 III-17.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168
그림 III-18. 전반적인 변화_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169
그림 III-19. 전반적인 변화_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173
그림 III-20. 전반적인 변화_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175
그림 III-21.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181

그림 Ⅲ-22.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182
그림 Ⅲ-23. 개선방안_체험활동 비중 확대	193
그림 Ⅲ-24. 개선방안_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195
그림 Ⅲ-25. 개선방안_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196
그림 Ⅳ-1. 질문지 개발단계	206
그림 Ⅳ-2.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연계방안 개발절차	235
그림 Ⅳ-3.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영역 및 추진 방안	236
그림 Ⅳ-4. 청소년 대안교육지원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237
그림 Ⅴ-1. 정책과제 발굴 절차	246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3.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생적으로 명료하게 정해진 목표는 없지만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의 지향점을 향하여 생애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하면서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매 순간마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거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의 전 과정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 확립과 역할혼미라는 중요한 발달 과업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한 개인의 올바른 자아정체성은 주위의 중요한 타인들, 즉 부모를 포함한 가족, 학교의 또래집단 및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관, 문화 및 규범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생태 환경은 청소년 개인과 상호 관련성을 맺으면서 자아정체성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창호, 김세광, 한숙희, 2023).

한편, 청소년기는 각자의 성장에 필요한 잠재력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기초 및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미래사회는 직업 및 정보 선택의 다양화, 인공지능기술의 확대, 인간관계의 다변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이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환경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교육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은 청소년들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이들의 개별적 특성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8년 특성화중고등학교(이하 특성화학교)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가 마련되었다. 이어 2005년 각종학교(이하 ‘대안학교’)의 제도적 근거 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표되었다. 또한 대안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동 시행령 제54조가 제정되었다(이종태, 박상진, 하태욱, 2018).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습과 활동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갈수록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이 체계화되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의 법령 정비 및 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반면,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활동 분석과 대안교육의 실질적인 교육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였다(하태욱, 김태호, 이경석, 이동배, 이민경, 2020).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금년도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을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언급한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의 의미는 현재 우리나라 대안교육 분야의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단순한 실태조사 차원이 아닌 학생들의 대안교육 학습경험과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은 현재 대안학교(각종학교, 특성화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적·질적 조사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경험에 대한 참여만족도와 이를 통한 행동변화요인 등을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대안교육 참여 동기, 학습 및 활동경험 만족도, 대안교육과정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대안교육 분야의 개선방안 및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및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따른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안교육 전체 혹은 세부 영역별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대안교육에 대한 개념정의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목적에 따라 사소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관련 문헌 고찰 결과를 토대로 대안교육 현장에 대한 몇 가지 전형적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작은 규모를 지향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잘 알면서 개별지도 중심의 학습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혼합연령과 초·중·고 통합학급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습과정은 프로젝트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아가 학교와 교과과정 운영 등에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실현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을 꼽을 수 있다.

1) 연구 대상 및 범위

금년도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대안교육관련 법과 시행령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시도 교육청 조례 및 규칙, 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대안교육기관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1)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의 분류

각 기관에 대한 개념은 대안교육관련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정의 된다. ‘대안학교’와 ‘대안교육분야 특성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획득한 학교이다. 반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도 교육감의 지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약칭 대안교육기관법」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 교육청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교육

가.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¹⁾ 제60조의3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한다.

나.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²⁾ 제76조(특성화중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지자체위탁교육지원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정규학교(원적교) 재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³⁾에 따른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정의)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나.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연구 대상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특성 비교

금년도 연구는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4개 영역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앞의 법적 근거와 더불어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근거법령, 운영목적, 인가 기준, 학력인정 여부 등에 관한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월 9일 인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월 9일 인출.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월 9일 인출.

특성을 비교하여 [표 I -1]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I -1.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특성 비교

구분	대안학교 (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고) 및 제91조(중)	「초·중등교육법」제28 조,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54조, 각 시·도 교육청 조례/규칙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 인성위주 교육, 개인의 소질, 적성 개 발위주 교육 등	교육과정의 운영 등 특성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학교 부적응 문제해소, 다양한 교육 구현 등 시설마다 다양한 교육목적 추구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록 및 인가 기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 규정 [교육감 인가]	고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감 지정] *특성화중은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	교육감 지정	시·도 교육청 등록
현황 (’23.12)	50교 (공22, 사28)	18교 (공5, 사13)	24교 (공5, 사19)	-
학력인정 여부	인정		원적교 학력 인정	미인정

* 출처: 정설미, 이호준, 송원일 (2022). 인가형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변화 추이에 관한 탐색적 분석. pp. 380-381을 재구성함.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철학에 따라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교육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출발하고자 한다. 또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경험과 접근방식에도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아래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활동 경험의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습활동 과정을 통해 느끼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 등에서

도출된 핵심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안교육 현장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국내의 대안교육 관련 제도 및 대안교육 운영 현황 고찰

첫째, 국내 대안교육 관련 학교 및 기관 유형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외국의 대안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대안교육의 철학이 태동되고 역사와 토대가 구축된 북유럽 2개 국가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하여 영미권 미국과 영국 등 4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해외사례 국가 선정 배경은 연구책임자가 본 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연수 및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 정보와 관련 자료 등에 기반하였다.

(2) 대안교육 참여 실태 조사 문항 개발 및 조사 결과 분석

첫째, 대안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회의를 거쳐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조사 문항을 개발한다. 기존의 대안교육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1차 조사 영역과 변인을 선정한다. 이후 학계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안면타당도와 본원의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심의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둘째, 각종학교(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3)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경험 질적 조사 및 분석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중 주로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조사지를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금년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각종학교(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중 학교 및 기관별 3명씩 총 12명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집단 면접을 통해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4)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의 연계성 모색 및 정책과제 도출

양적 설문조사 및 질적 조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포럼 등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안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대안교육에 관한 인식 및 교육경험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의 협조와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교육 현안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대안교육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우리나라 대안교육관련 법과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시·도교육청에 등록하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자료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안교육의 흐름과 사회적 맥락을 탐색하고 연구 대상 4개 영역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운영 현황과 함께 운영 철학과 주요 학습활동 사례를 고찰하였다. 또한 국외 대안교육의 운영 현황과 특징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4개국을 선정하여, 대안교육관련 법과 제도를 비롯하여 한국 대안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양적 조사 문항 개발 및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양적조사에 사용될 조사표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참여 실태와 지원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조사표 개발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진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행계획서 심의 과정을 통해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구성 수정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정된 조사표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조사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대상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단어 사용, 조사하고자 하는 영역과 문항 간의 일치 등 조사협력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된 조사표는 다시 한 번 조사협력위원회에서 서면을 통해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위원회

검토가 완료되면서 조사표 최종본이 마련되었고 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대안교육기관 각각 500명을 임의 표집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개요는 [표 I -2]와 같다.

표 I -2.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 대안교육 관련 기관 참여 학생 •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미인가 등록 대안교육기관	
표집틀	• 2022년 대안학교 목록(2022.04.01. 기준)	
표본수	• 대안교육 관련 기관 참여 학생 약 2,000명 • 4개 기관 각 500명씩 표집 - 대안학교 : 1학급(25명)×10개교×2(특광역시/그외지역) - 특성화학교 : 1학급(25명)×10개교×2(중학교/고등학교) - 위탁교육기관 : 1기관(50명)×5기관×2(특광역시/그외지역) - 대안교육기관 : 1기관(25명)×10기관×2(특광역시/그외지역)	
표집방법	• 표집방법 : 임의표집 • 조사방법 : 학교단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조사시기	2023년 5월~7월	

3) 현장방문 및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면접조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안교육에서 학습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대안교육 참여의 동기 및 요구 분석을 통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 각 영역별로 성별(남, 여)과 교급(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청소년 8명 교사 3명 총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질문지는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대안교육 참여 경험,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묻고자 하였다. 질문 문항은 선행연구 고찰, 1차 문항 개발, 청소년 및 전문가 자문, 전체 연구진 회의단계를 거쳐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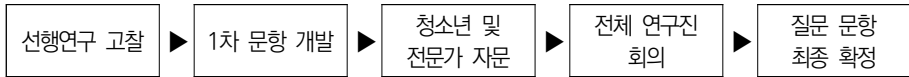


그림 1-1. FGI 질문지 개발절차

4) 기타 연구방법

(1) 전문가 자문회의

금년도 연구 설계 및 연구 내용 검토, 설문지 문항 구성, 설문조사 협조 및 분석 방향 협의, 정책과제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담당자와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 전문가 콜로키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자,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청소년활동 현장 전문가, 대안교육행정담당자, 연구진 등으로 정책업무협의의 모임을 구성하였다.

정책업무협의회는 제1차 부산광역시,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두 곳에서 모임을 갖고 현장 전문가 면담과 참가자들 간의 토론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요 결과를 토대로 9월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문가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3) 대안교육 포럼

금년도 연구와 관련하여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대안교육 포럼을 개최하였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안교육 담당자, 대안교육 분야 교수 및 현장전문가, 학부모,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및 교사와 학생 등이 다수가 참여하였다.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금년도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담당 부서 중심으로 대안교육 분야 교수 및 현장 전문가와 연구진이 함께 9월 20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5) 연구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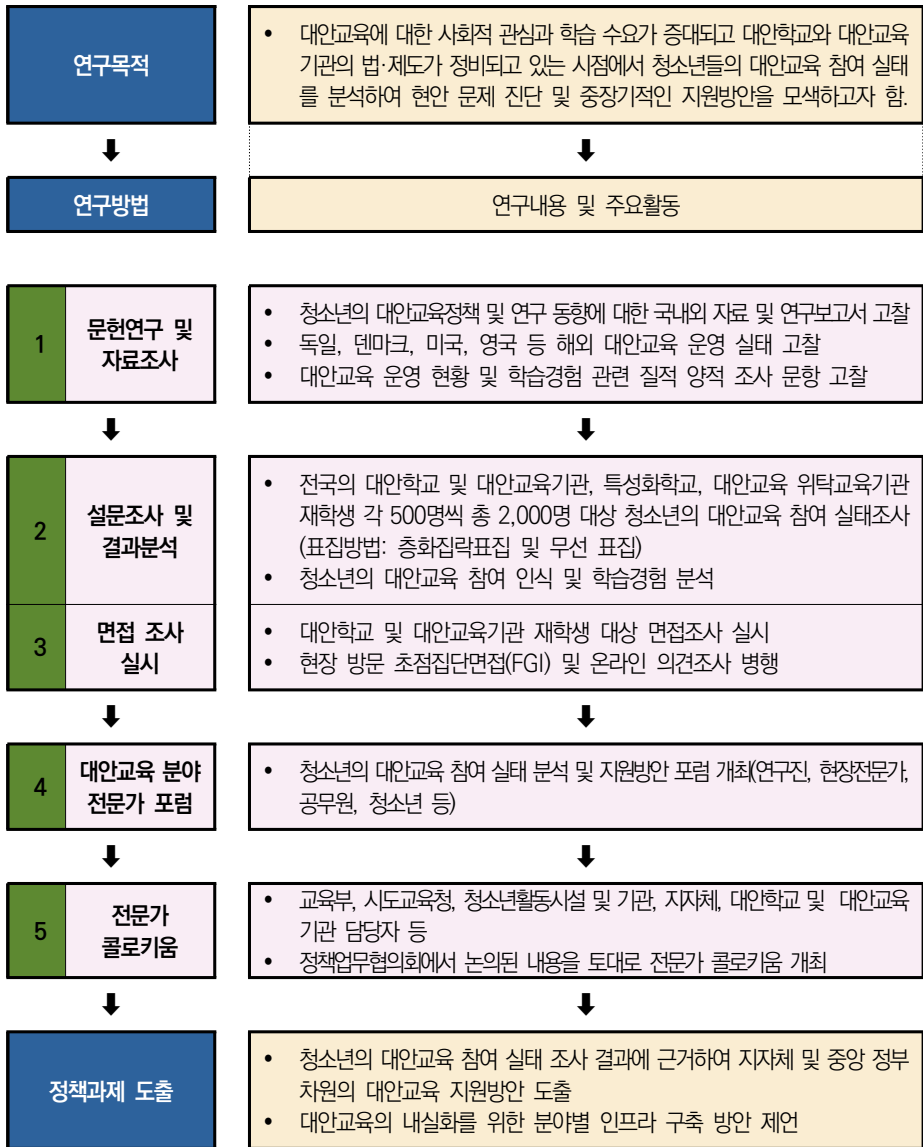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추진 단계

○ — 제2장 대안교육 정책 및 학습경험에 관한 국내외 문헌 고찰

- 1. 대안교육의 사회적 맥락과
연구 동향 탐색
- 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고찰
- 3. 국외 대안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분석

1. 대안교육의 사회적 맥락과 연구 동향 탐색

한국의 대안교육은 1980년대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일부 사회운동가나 교사들이 방과 후나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설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시도들이 상호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1995년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대안교육과 ‘열린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대안교육운동의 출발로 볼 수 있다(최인재, 송원일, 배수인, 2020b).

한편, 교육부는 1997년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에서 1980년대 이후 매년 7~8만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중고생의 2%에 달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는 점을 발표하였다(김민정, 김혜영, 2001). 교육부를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는 교육 개혁이나 학교에 대한 혁신보다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 탈락 방지 및 중퇴생 복교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1998년 대안학교 지원과 관련된 법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나, 교육부의 반대에 의해 ‘대안학교’라는 명칭 대신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배성근, 2003; 최인재 외, 2020b에서 재인용).

인가 대안학교는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은 초·중·고교 교육단계의 학교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2005년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에 따른 각종학교(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며,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대안학교 유형은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라는 점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차이가 있다. 또한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학교에 비해서는 설립기준과 교원자격 등이 완화되고, 교육과정도 더 자율화되었다는 점 등에서 비교될 수 있다(이덕난, 최재은, 2021).

이러한 흐름속에서 2012년부터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 정책으로

‘학업중단숙려제’,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산하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여 직접적인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 방식의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2021년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980년대	• 민중교육 운동 • 야학,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의식화교육의 일환인 시민교육 등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부방 운동 • 방과후학교, 주말학교, 계절학교
1990년대	•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공동육아 운동(초등 대안학교의 뿌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신설(1998)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설립운영 근거
2000년대	• 도시형 대안학교의 탄생 • 위탁형 대안학교 제도 마련(2001)→대안교육특성화중학교(2002) → 각종학교 대안학교(2003) 법률제정 •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 발표 및 대안학교법 제정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각종학교) 설립운영(2005)
2010년대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
2020년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발의 • 국회 교육위 상정, 제정·공포 및 시행 •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마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2021)

* 출처: 최인재 외(2020b)의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연구(pp. 16-18)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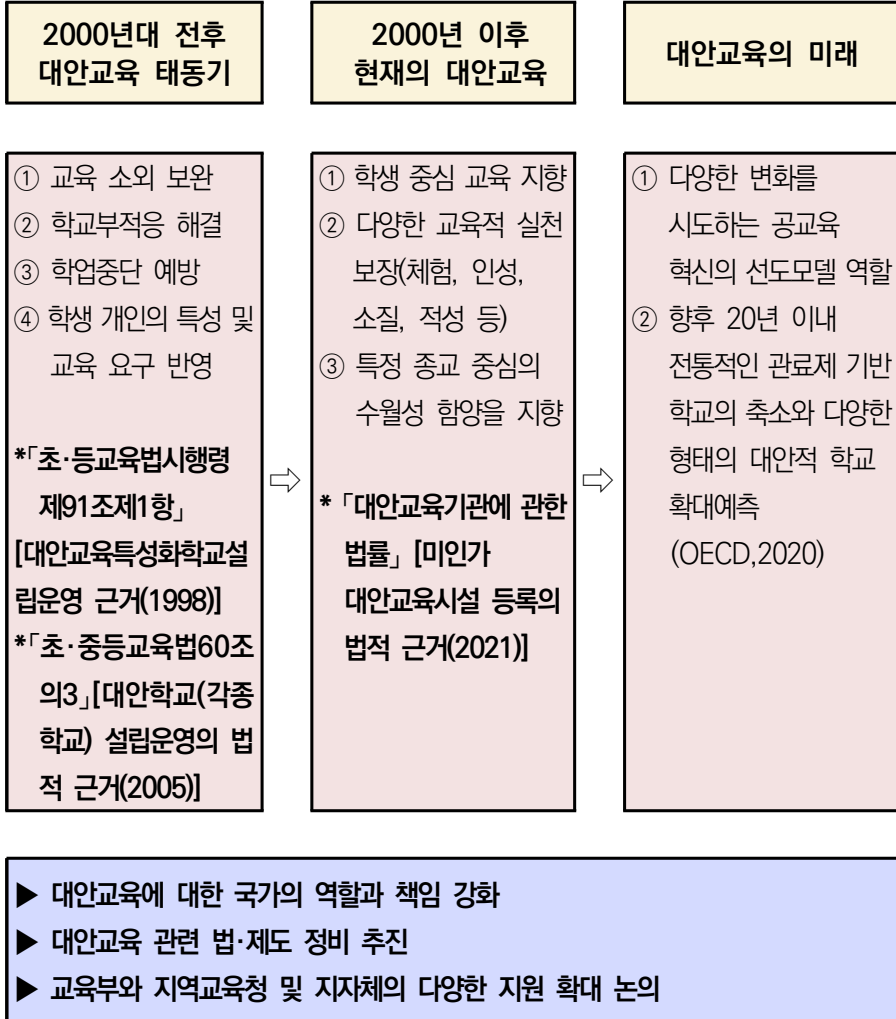
그림 II-1. 대안교육 현장의 시기별 중요 사건

한국에서 대안교육은 1980년대 민중교육과 시민교육 운동으로 출발하여, 1990년대부터 대안교육운동이 교육정책과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그 의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비슷한 시기 영국의 대안교육을 정리한 Gordon(1986)은 대안의 개념이 ‘무엇으로부터의 개선이며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무엇으로부터의 진보이며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다른 운동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가치적 판단(Value Judgement)’을 함께 언급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대안’과 ‘교육’이라는 용어를 대하는 관점에 차이와 쓰이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최인재 외, 2020b에서 재인용).

새로운 흐름으로서 대안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송순재(1997)는 “첫째, 대량생산과 소비주의에 대한 문화비판 의식에 기반해야 한다. 둘째, 국가주의 통제체제를 벗어나 교육적 자치의 구현이다. 셋째, 학생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와 자치, 협력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넷째, 학생들의 경험 중심의 통합적 발달을 추구한다” 등으로 정리하였다(최인재 외, 2020b). 대안교육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석만(2004)은 ‘기존의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공교육체제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교육철학의 토대에 선택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실천’으로 재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종태(2007)는 한국사회의 대안교육은 ‘1990년대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교육현상’이라는 시각에서 ‘현존하는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새롭게 시도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산업사회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이 시대적인 유효성을 다했고, 물질주의에 대한 지나친 추구에 대한 회의감에서 생태적 관점의 반성이 등장하였으며, 개인주의에 대한 인간의 소외감으로부터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다(이종태, 2007; 최인재 외, 2020b에서 재인용).

청소년들의 학습과 활동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갈수록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이 체계화되고 있다. 현재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 및 체험활동과 특기적성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적 실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관료제 기반 학교의 축소와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반영하여 대안교육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대안교육의 변화 과정과 미래 방향



* 출처: 정설미 외(2022)의 인가형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변화 추이에 관한 탐색적 분석 내용을 재구성.

그림 II-2. 대안교육의 현장 변화 체계

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고찰

금년도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앞 장의 ‘연구의 대상 및 범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대안교육 영역 중에서 ‘미인가 혹은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과 같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제도적으로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영역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영역을 현재 우리나라 대안교육관련 법과 시행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시도교육청 조례 및 규칙, 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 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분야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와 학습과정 운영 현황 위주로 비교 분석하였다.

1)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

(1)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 법적 근거 및 현황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의 추진의 법적 근거는 1997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계획’에 따라 마련되었다.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는 대안교육 분야로 지정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의미한다. 특성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와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이덕난, 최재은, 20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2.24. 제정, 1998.3.1. 시행) 제91조는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된다(이덕난, 최재은, 20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는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고시하

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가 대안교육분야 특성화중학교에 해당 된다(이덕난, 최재은, 2021).

표 II-1.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현황(18교: 공립 5교, 사립 13교)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연도
대구	한울안중학교	사립	'18
	가창중학교	사립	'18
광주	평등중학교	공립	'14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이우중학교	사립	'03
	한산중학교	사립	'03
	중앙기독교중학교	사립	'06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강원	가정중학교	공립	'17
	팔렬중학교	사립	'11
전북	전북동아중학교	공립	'09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03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청람중학교	공립	'13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공립	'18
경남	남해상주중학교	사립	'15
	대병중학교	사립	'21

* 출처: 교육부, 2022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1336>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표 II-2.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 현황(24교: 공립 5교, 사립 19교)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연도
대구	달구벌고등학교	사립	'04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사립	'00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99
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99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립	'02
	이우고등학교	사립	'03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06
강원	전인고등학교	사립	'05
	팔렬고등학교	사립	'06
	현천고등학교	공립	'14
충북	양업고등학교	사립	'98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03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	'03
전북	세인고등학교	사립	'99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99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09
	고산고등학교	공립	'18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	사립	'98
	한빛고등학교	사립	'98
	한울고등학교	공립	'12
경북	경주화랑고등학교	사립	'98
경남	간디고등학교	사립	'98
	합천평화고등학교	사립	'98
	태봉고등학교	공립	'10

* 출처 : 교육부. 2022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1336>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2) 대안교육분야 특성화 중·고등학교 운영 철학 및 학습활동 사례

대안교육분야 특성화 중학교인 00중학교의 학교 운영 철학과 주요 학습활동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인 00중학교는 생태를 기반으로 돌봄과 치유로 인한 정서적 안정과 배움을 통한 자생력 증진으로 전인격체 성장이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 나아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스스로 삶, 더불어 삶, 배우는 삶의 가치를 지향하여 내면이 튼튼하고 자기관리를 잘하며,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학교설립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하태욱 외, 2020).

학교상은 ‘존엄의 동등함’이 보장되는 학교, 서로 이웃되는 삶의 학교, 도전과 실패가 지지되는 학교,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철학은 ‘존엄의 동등함’으로 단 한명도 놓치지 않고 돌봄과 치유, 개별화 교육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①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한다, ② 학생과 교사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③ 배움의 지평을 학교 밖 지역사회로 넓혀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④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4개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학교 운영 방향과 학교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적인 특성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하태욱 외, 2020).

첫째, ‘스스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마음공부’, ‘자기성장프로젝트(내면의 힘을 기르는 품격있는 도전)’, ‘생태농업’ 등이다.

둘째, ‘더불어 삶’에 대응하는 교과목은 ‘노작과 자연’, ‘공동체회의’, ‘자기성장프로젝트(기억프로젝트)’ 등이다.

셋째, ‘배우는 삶’을 구현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예술감성’, ‘삶과 철학’, ‘자기성장프로젝트(배움의 자기이유 프로젝트)’ 등이다.

한편, 일반교과의 기준시수를 줄이고 특성화교과의 시수를 늘려 운영하는 형태로, 보건, 진로와 직업, 친환경농업, 마음공부, 삶과 철학, 공동체회의 자기성장프로젝트, 노작과 자연, 예술감성 등의 선택교과로 학교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다음은 특성화분야 대안고등학교 중 하나인 ‘00고등학교’의 학교 운영 철학과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운영방식을 고찰해 보았다⁴⁾. 먼저 학교의 비전으로 “앓과 삶이 하나 되는 행복공동체”로 고전의 지행합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목표는 “앓으로

성장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행복한 사람 되기”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인 교육철학으로 ‘존중, 자람, 나눔’ 세 가치를 선정하였다.

00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구성과 교육과정 편성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의 구성

-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 다양한 체험학습 전개 : 자연거, 도보, 캠핑 통합기행/역사, 문화, 봉사 체험학습/ 겨울 산행/주 매듭, 달 매듭
 - 학생 중심의 축제(나들제: ‘나들’은 나의 복수형으로 우리들의 의미)
 -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
 - 공동체 회의(나들회의)를 통한 학교생활 토론 및 소통능력 함양
- 학교 철학에 근거한 학교교육과정(특성화교과) 편성
 - 존중 교과 : 행복 찾기, 삶과 철학, 노작과 자연, 의사소통,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 자람 교과 : 스포츠 경기 실습, 디자인 공예, 교양 실기, 진로탐색, 인턴십, 표현하는 삶, 생각하는 삶
 - 나눔 교육활동 : 협동조합(자율동아리)
-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
 -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평생교육 문화 형성
 - 예술드림학교 운영 : 오케스트라, 공공미술
 - 지역학교 체험학습장 활용 : 학교시설 공유 체험학습 - 바리스타, 쿠키, 제과제빵 등

■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 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과 융합/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
-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 재구성
-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십(꿈너머 꿈) 프로그램 운영

00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에서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십(꿈너머 꿈) 프로그램은 인턴십을 통하여 현재의 ‘꿈’을 이루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수업이다. 운영 방식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전일제도 인턴십 활동을 전개하며,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추진과정은 ① 도입 단계: 마중물 교사와 함께 자신의 진로 탐색 및 학습계획 수립 → ② 실행 단계: 학습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인턴십 업체와 멘토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수행 → ③ 평가 단계: 매 학기말에 학부모 참여하에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 수용(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발표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발표가 통과되면 뱃지를 수여하며, 3년간

4) 이종태, 이인규, 허은주, 배정태 (2021). 미래·치유형 대전 공립 대안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pp. 71-73에서 00고등학교의 「2021 교육계획서」와 학교장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을 재인용함.

6개를 모아야 수료를 인정받는다.⁵⁾

이러한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마중물 교사들은 프로젝트 시작과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들을 지원하고, 멘토 선정과 학생의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인턴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대략 절반정도이며, 다수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교과로 꼽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2)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

(1) 대안학교(각종학교)의 법적 근거 및 운영 현황

인가 대안학교는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은 초·중·고교 교육단계의 학교이다. 이 대안학교 유형은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라는 점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차이가 있다. 또한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학교에 비해서는 설립기준과 교원자격 등이 완화되고, 교육과정이 더 자율화되었다는 점 등에서 비교될 수 있다(이덕난, 최재은, 2021).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은 2005년 3월에 제정하여 2005년 9월에 시행되었으며, 이 법률에서 말하는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4호까지(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1~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 따른 각종학교(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며,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교장과 교감의 자격), 제23조제2항·제3항(국가수준이 교육과정과 교과 운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3월 신학년제 및 학기제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29조(교과용 도서 사용의무)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교육정보시스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이종태 외(2021). 미래·차유형 대전 공립 대안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pp. 71-73에서 OO고등학교의 「2021 교육계획서」와 학교장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을 재인용함.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법령개정, 일부개정2022.12.27.][시행예정 2023.06.2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7년 6월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설립인가, 학력인정,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교직원 배치,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덕난, 최재은, 2021). 이 규정 중에서 2009년 제9조(교육과정)를 개정하여 이전의 “모든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1/2이상 운영”에서 “국어 및 사회(중·고등학교 국사 또는 역사 포함) 교과의 수업시간 수의 1/2이상 운영”으로 변경하여 대안학교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이덕난, 최재은, 2021).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대안학교(각종학교)는 14개 시도에서 5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7월 현재 총 5,329명이 학업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 II-3]과 같다.

표 II-3. 대안학교(각종학교) 현황(50교: 공립 22교, 사립 28교)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연도
서울(4)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고)	사립	'09
	여명학교(중·고)	사립	'10
	지구촌학교(초)	사립	'11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고)	공립	'12
부산(2)	송정중학교(중)	공립	'19
	장대현중고등학교	사립	'23
대구(1)	대구해울중고등학교(중·고 통합)	공립	'18
인천(3)	인천청담고등학교(고)	사립	'11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공립	'12
	인천한누리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12
광주(1)	월광기독교학교(초)	사립	'14
대전(1)	새소리음악고등학교(고)	사립	'11
	새소리음악중학교(중)	사립	'16
울산(1)	울산고운중학교	공립	'21
경기(11)	티엘비유글로벌학교(초·중 통합)	사립	'08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연도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쉼마기독교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광성드림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4
	하늘꿈중고등학교(중·고 통합)	사립	'15
	중앙예뵤학교(중·고 통합)	사립	'18
	노비파스음악중고등학교(중·고 통합)	사립	'19
	군서미래국제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21
	신나는 학교(중·고 통합)	공립	'22
강원(2)	해밀학교(중)	사립	'18
	노천초등학교(초)	공립	'19
충북(5)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사립	'10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고)	사립	'12
	다다예술학교(초·중 통합)	사립	'17
	은여울중학교	공립	'17
	은여울고등학교	공립	'21
충남(3)	여해학교(중)	공립	'13
	드림학교(고)	사립	'18
	충남다사랑학교(고)	공립	'19
전남(4)	월광기독교학교(중·고)	사립	'18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고)	사립	'18
	이음학교(중)	공립	'20
	송강고등학교	공립	'21
경북(6)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글로벌선진학교문경(중·고 통합)	사립	'12
	산자연중학교(중)	사립	'13
	나무와중학교(중)	사립	'13
	링컨중고등학교(중·고 통합)	사립	'17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고)	사립	'17
경남(6)	경남꿈키움중학교(중)	공립	'14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고)	공립	'17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연도
	밀양영화고등학교(고)	공립	'17
	김해금곡고등학교(고)	공립	'20
	거창연극고등학교(고)	공립	'20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공립	'21

* 출처 : 교육부. 2022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1336>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2)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 철학 및 학습활동 사례

대안학교(각종학교) 중에서 2022년 개교한 000학교의 운영 철학과 주요 학습활동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학교는 기숙형 중고통합 6년제 미래학교를 표방하면서 지도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에 기반한 각종학교 대안학교로서 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가슴-손-머리를 함께 성장시켜나가기 위한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통해 삶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소통과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배움의 중심에 서서 교사들과 함께 개발 교육과정과 공동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진학보다는 진로의 참길 탐색과 자신만의 학습이력(포트폴리오)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종태 외, 2021).

000학교의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와 학습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이종태 외, 2021).

■ 교육과정의 구성

- 교육목표 : 삶과 삶이 만나 꿈을 꾸는 길
- 3가지 핵심 역량과 교육과정 주요 내용
 - ① 관계 맺는 힘 : 7~8학년 대상, 타인과 관계 맺기, 자립1(의식주), 삶의 표현1(말), 자연과 관계 맺기1, 스스로 꾸는 꿈(진로, 적성), 마을 여행하기
 - ② 상상하는 힘 : 9~10학년 대상, 공동체와 관계 맺기, 자립 2(의식주), 삶의 표현 2(예술), 자연과 관계 맺기2, 함께 꾸는 꿈(진로, 적성), 우리나라 여행하기
 - ③ 실천하는 힘 : 11~12학년 대상, 세상과 관계 맺기, 자연과 관계 맺기3, 세상과 만나는 꿈(진로, 적성), 세계 여행하기

·교육 내용의 4가지 층위별 교육과정 요소들

- ① 앎 : 타인과 관계 맺기, 공동체와 관계 맺기, 세상과 관계 맺기, 자연과 관계 맺기
- ② 삶 : 자립 0(지역에 동지 틀기), 자립 1(몸돌봄), 자립 2(마음 돌봄), 자립 3(의), 자립 4(식), 자립 5(주), 표현하기 1(언어), 표현하기 2(예술), 표현하기(다른 언어)
- ③ 꿈 : 스스로 꾸는 꿈, 함께 꾸는 꿈, 세상과 만나는 꿈
- ④ 길 : 여행하기(마을 여행, 국내 여행, 세계 여행)

전술한 바와 같이 000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학습활동 운영의 특징은 대안교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하는 과목이나 내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학교 설립 근거(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어 및 사회(중·고등학교 국사 또는 역사 포함) 교과외의 수업시간 수의 1/2이상 운영” 이외의 교과 운영에 관한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요소들은 교육목표(‘앎과 삶이 만나 꿈을 꾸는 길’)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편성하였으며, 모든 학년의 교육과정에 앎, 삶, 꿈의 요소를 배치하여 이들 간에도 상호 연계성과 내용의 심화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활동은 학교의 안과 밖의 현장을 넘나들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평가는 등급이나 서열화보다는 학습과정에서 성취한 역량을 서술형으로 기술하도록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종태 외, 2021).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근거 및 현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학생들을 위탁교육 시키는 제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

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술한 관련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당 시·도교육감이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면 학교장이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이 이루어진다. 전학과는 달리 원래 다니던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 때는 원 소속 학교에서 학력을 인정받아 졸업을 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은 주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이며, 시·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 등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장학활동 및 운영비 보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부적응 및 학습무기력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사립 위탁교육기관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정재균, 조무현, 201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절차는 ①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및 접수 → ② 공문 신청 기관 심사 → ③ 지정 및 예산 지원 → ④ 위탁교육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순으로 추진된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절차를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중단숙려제’와 연계하여 일정 기간 자신을 돌아보고 전문가 상담과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수는 2022년 현재 371개, 총 학습자 수는 대략 17,0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⁶⁾

6) 교육부. 2022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1336>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표 II-4. 시도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수	371	44	15	4	9	22	4	18	5	22	56	66	25	21	31	17	12	1

* 출처 : 교육부, 2022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1336>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운영현황 분석(전남)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중 3학년 기준: 국어(442), 사회(510)의 1/20이상
- 고 3학년 기준: 국어(10), 사회(10)의 1/20이상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운영 지침」

6.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 학기·학년단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외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교육교과를 운영한다.

* 출처: 전라남도교육청(2022).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운영 지침.

② 위탁교육기관별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분석

기관명	보통교과		대안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목표
	필수	공통, 선택		
사랑어린 마을인생 학교			외국어, 인문학, 글쓰기, 예술개인프로젝트(명상, 사진, 영상, 글, 그림 등)	길 위의 배움, 예술, 인문학, 프로젝트 등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영적 성숙으로 학생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움
GEO(지오) 문화·예술 교육센터	국어(2) 사회(2)	생활과 과학(5)	공예미술(10), 공연예술(10), 실용음악(2), 생활체육(2), 진로탐색(2)	규칙적인 생활습관, 예술활동, 공연봉사활동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 지원
재)아시아문 화재단	국어(1) 역사(1)	체육(3) 음악(3) 미술(3)	명상(3), 심리·상담치료(2) 동아리활동(2), 특화프로그램(3), 영화·음악감상(4)	상담·심리치유, 체육·음악·미술 등 체험활동을 통한 부적응 해소와 문제해결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 지원
사)슬로스쿨		미술(2)	디자인(1), 공예(1), 승마(1), 요리 (2), 가드닝(1), 독서(1), 글쓰기(1), 영화토론(2), 진로탐색(1), 스포츠(1), 개인상담(1)	목공, 팸아트미술, 드럼, 생태환경교육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회복으로 학교적응력 향상
두리셋 청소년학교	국어(2) 사회(2)		제과제빵(3), 바리스타(2), 인문학(4), 공예(2), 영화치료(2), 예체능(2), 특화프로그램(4)	마음 치유와 관계 형성법, 문학, 예술, 길 위의 학교(외부활동)을 통한 부적응해소 및 학교적응력 지원
사)청소년 미래자립 지원센터	국어(2) 역사(2)	수학(1) 음악(1) 한문(1)	진로교육 (커피, 목공예, 생활수공예 등), 창의적체험활동 (숲체험, 다도, 문화활동), 개인 및 집단상담	상담, 교육, 문화와 체험활동, 자립생 활훈련을 통하여 학교부적응 해소
해피뷰병원 팜푸리 성장학교	국어(2) 한국사 (3)		운동치료(1), 미술치료(1), 과학(1), 음악치료(1), 놀이치료(1), 전통교육(1), 종이공예(1), 생활속예절(1), 만남의터전(1), 창의적체험활동(2)	심리적불안과 충동적 위험상황 자각, 대인관계 어려움 극복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회복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 복귀

* 출처: 최인재, 오해섭, 박은주(2022). 2022년 시·도교육청 평가 -주제별 심층 분석- 진단 최종보고서-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활동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결과(전남, 2022)

- 연구진 : 최인재, 오해섭, 박은주(2022). 2022년 시·도교육청 평가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 보고서(전남교육청)
- 면담일시 : 2022. 4. 21.(목) 10:30
- 참여기관 : 심청골짜나라학교, 두리셋청소년학교, 순천사랑어린이마을인생학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스스로의 생각과 질문을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의 규칙위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 함양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을 더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교과목 중심보다는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들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위탁 사유 및 학생의 특성에 따라 개인 상담을 토대로 놀이와 미술치료 등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책임감 향상, 일상회복과 원학교 복귀 지원 등이다.

②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중 효과가 좋았던 프로그램은?

- 체험프로그램(공예, 영상, 놀이, 미술 등),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수요 높음
- 스포츠 프로그램과 야외 체험활동, 지혜로운 어른(선배)과의 만남에 만족도가 높음
-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진행했을 때 수업의 만족도 및 효과가 좋으며, 체험을 통한 결과물이 있는 수업에서 성취도나 만족도가 높음
- 학생에 따라 효과가 다름. 예컨대 은둔형 학생,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학생 등 에너지가 낮은 경우 흥미 유발을 위해 스포츠, 야외 체험활동(레프팅, 썰라인, 낚시 등) 위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수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높음
- 교과목이 아닌 정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긴장감이 낮은 상태로 참여할 수 있어서 만족감이 높음
- 학생이 원하거나 체험을 통해 결과물이 도출되는 수업에서 성취도나 만족도

가 높음

- 자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질문하고 선택하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쉽과 치유, 전환 등을 이루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혜로운 어른(선배)과의
만남이란 교과를 통해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4) 대안교육기관 운영 현황

(1)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 및 운영 현황

대안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되었다. 이후 2022년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이번 시행령의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해당 교육기관은 과정별 학생수에 따른 학교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교육부, 2022).

대안교육기관은 등록을 위해서 등록신청서에 목적, 명칭, 학칙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게 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은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학부도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수련 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그동안 미인가 혹은 비인가 교육시설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숫자는 몇몇 연구에서 전국적으로 300~600개 정도로 추산되어 왔다.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실태조사 연구(오해섭, 박지영, 이지혜, 임하린, 2019)’에서 273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부터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하여 지역 교육청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80개 수준에서 2023년 12월 현재 236개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7개 시·도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은 [표 II-5]와 같이 서울(77개)이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도(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10개 내외로 두 지역과 비교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I-5. 시도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180	39	8	6	6	10	7	2	1	56	7	3	5	3	7	10	6	4
2023	236	77	9	6	7	10	9	2	1	58	8	4	7	6	9	10	7	6

* 출처 : 교육부, 2022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1336>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현황(’23.12.18.기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9756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3년 12월 28일 인출.

(2) 대안교육기관 운영 철학 및 학습활동 사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의 차이는 학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검정고시나 꿈이음 프로그램’ 등 기타의 방식으로 각자가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정의) 제1호에는 대안교육에 대해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고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또 다른 차이점은

「대안교육기관법」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앞서 제시한 3개 영역의 대안학교 및 위탁교육기관과는 달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과 근거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도별 대안교육기관 등록일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여개의 대안교육기관이 각각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역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면서 등록대안 교육기관 중 하나인 ‘00학교’의 교육과정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이종태 외, 2021).

이 학교의 교육목표는 “스스로 서는 사람,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며, 교육철학은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공동체 교육”이다. 교육과정의 특징은 “중·고 통합교육으로 학년 구분 없이(1~4학년) 학급 편성 및 개인별 교육 선택, 동아리 및 자치활동”과 “학년별 고유 교육과정으로 논문쓰기(3학년), 작업장 교육(3~4학년), 넘나들며 배우기(5~6학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교육과정의 운영의 핵심 요소

- 더불어 사는 과정: 1~4학년 통합 학급 구성
 - 1~2학년 기초과정 : 더불어 살며 자립을 위한 기초 닦기 - 생활속 역할 수행, 자립기초, 관계 맺기
 - 3~4학년 심화과정 : 주변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세계관 세우기-작업장, 논문, 학생회 활동
- 스스로 서는 과정 : 5~6학년 독립 학교
 - 5학년 기초과정 : 세상에 첫발 단계(모색) - 주제 여행, 진로 탐색
 - 6학년 심화과정 : 세상과 점점 찾기(적용) - 인턴십, 인문학 캠프

■ 교육과정의 구성(2021년 1학기)

- 생활의 자립 : 작업장 경제교육, 들살이, 농사 기초, 도예 기초, 제빵 기초, 생활기술 기초
- 생각의 자립 : 논문, 노동인권, 젠더와 사회, 독서 클럽, 한국사 특강, 영어단어의 세계, 성소수자 인권과 사회, 과학놀이, 사색, 마음 산책, 동물윤리
- 교양 : 감상 : 퍼스널 필름 메이킹, 원예
- 몸 : 몸살림, 필라테스, 농구 등

5) 대안학교(각종학교, 특성화학교) 및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의 특징 비교

이 절에서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근거와 현황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각 영역별로 하나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운영 철학과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및 주요 학습활동의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인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의 참여 실태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활동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의 설립 목적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00중학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스스로 삶, 더불어 삶, 배우는 삶’의 가치를 지향하여 내면이 튼튼하고 자기관리를 잘하며,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행복한 학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활동으로, 특성화교과의 시수에 보건, 진로와 직업, 친환경농업, 마음공부, 삶과 철학, 공동체회의 자기성장프로젝트, 노작과 자연, 예술감성 등의 선택교과를 확대하여 학교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00고등학교는 학교의 비전으로 ‘앓과 삶이 하나 되는 행복공동체’로 지행일치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은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과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 학생중심 수업 재구성,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십(꿈너머 꿈)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 중에서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십(꿈너머 꿈) 프로그램은 앞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에 따른 각종학교(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며,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각종학교는 2009년 제9조(교육과정)를 개정하여 이전의 “모든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1/2이상 운영”에서 “국어 및 사회(중·고등학교 국사 또는 역사 포함) 교과의 수업시간 수의 1/2이상 운영”으로 변경하여 대안학교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이덕난, 최재은, 2021).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000학교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가슴-손-머리를 함께 성장시켜나가기 위한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학습활동은 ‘학교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모든 학년의 교육과정에 앓, 삶, 꿈의 요소를 배치하여 이들 간에도 상호 연계성과 내용의 심화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의 평가는 등급이나 서열화보다는 학습과정에서 성취한 역량을 서술형으로 기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이종태 외, 2021).

전술한 바와 같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4조에 근거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학생들을 위탁교육 시키는 제도이다. 00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의하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의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외 위탁학생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대안교육교과를 운영한다”로 명기되어 있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은 ‘상담과 심리치유 및 관계 형성기법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함양하는 한편 자신을 더 이해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하여 학교와 사회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와 미술치료 등으로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 정서안정을 회복하여 원적교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수업료, 회계운용,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명기하고 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감이 인허가 혹은 지정 대상이 아닌 교육청 등록 사안에 해당되고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학교 및 기관들과 일반 학교 간의 학사 운영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교육 학교들이 처음부터 학년과 교과목별로 정해진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학사일정에 따라 학습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기관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보다는 개별 학교와 기관의 운영 철학과 이념에 따라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을 찾아가는 운영방식이라고 판단된다.

3. 국외 대안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분석

1) 미국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1) 미국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발달 배경과 특성

미국의 대안교육 배경은 1920년대 존 듀이(John Dewey)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주의적 교육운동에서 찾고 있다. 이후 1960년대 시민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흑인운동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가 고조되며, 공교육이 인종차별적이고 소수의 성과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학교교육이 모두를 위한 형평성(equity)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좁은 의미의 수월성(excellence)만을 추구했다고 비판하며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Young, 1990). 이를 반영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교육 빈곤층과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이 제정되었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평등하고 의미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Lange & Sletten, 2002).

미국의 대안교육 정착단계는 1960년대 인종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프리덤 학교(Freedom School)와 학생들에게 학습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자유학교(Free School)와 같은 대안적 학교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학교들은 대안교육을 통해 특정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융통성 없는 교육 시스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공교육 밖에서 뿐만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도 교육개혁 운동이 시작되어 대안교육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선택권 보장, 학습과 진도의 자율성, 비경쟁적인 평가, 아동 중심의 접근법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모든 교육수준에서 벽 없는 열린학교(Open School), 다문화학교(Multicultural School), 계속학교(Continuation School) 등의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공립형 대안학교가 등장한 초기 10년간은 100개에서 10,000개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대안학교가 많아졌지만, 1980년대를 거치며 교육이 보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대안학교도 줄어들고, 홈 스쿨(Home School)에 실패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발전하며 그 성격과 특성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즉, 학업부진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 임신이나 가출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위한 대안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지

며 학업부진과 위험군의 학생 등을 위한 학교 밖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으로 자리잡게 되었다(Martin, 2014; 유은지, 2021에서 재인용).

(2)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과 제도

미국의 대안학교 관련법은 공교육 중심의 교육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학교에 관련하여서는 하위법령으로 대안학교 기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닌 기관으로 명시되지만 대안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다는 것이다. 실정법상 대안학교는 사립이나 종교학교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유은지, 2021). 하지만, 공립형 대안학교인 차터스쿨 법은 차터스쿨이 설치된 45개주와 콜럼비아 특별지구에서 존재한다.⁷⁾

미국의 대안교육에 관한 근거법령은 기존 교육체제를 두고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퇴출위기에 있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을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개별 학교와 주 교육부에 있다. 교육법령에는 해당학교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을 위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유지, 운영할 역할을 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입학, 취학의무, 의무교육, 교육과정, 감독,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안은 학교 관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심대현, 2018).

미국의 대안교육은 각 주(State) 정부가 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 크게, ①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② 어디서 하는지(공교육 내/외부), ③ 교육내용은 무엇을 제공하는지, ④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Aron & Zweig, 2003). 대안교육의 대상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학생이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므로 교육 내용은 정규학교처럼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가르치지만,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문제행동 조절 교육, 사회성과 생활 능력발달 등도 포함된다. 일반학생들이 대안학교로 이적되는 경우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며, 학생이 폭력이나 형사적인 행위에 연루된 경우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소는 주별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거나 학교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정규학교 내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안교육은 의무교육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주말이나 저녁

7) Education commission. 50-State Comparison: Charter School Policies. <https://www.ecs.org/charter-school-policies/>에서 2023년 5월 20일 인출.

또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 운영되기도 한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지역의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해당학교와 주 교육부가 운영책임을 지며 대안교육을 위해 복수의 학교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대표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 차터스쿨 또는 비공립학교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 등은 등록증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양식은 교육부의 의무교육 이행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다. 비공립학교 등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비공립학교 이름과 주소, 부모와 교장 등의 권한 있는 학교 관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명한 등록증서는 교육부의 취학교육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1918년부터 아동 학대 및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자 만든 의무교육 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의무교육법은 부모의 교육선택 자율권과 교육권을 인정하여 공립학교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하는 다른 교육기관(사립 또는 종교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을 선택하여 자녀를 보내더라도 의무교육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부모와 자녀의 교육 선택권과 자율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교육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법과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유은지, 2021: 87).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다양하다. 대안학교가 등록금, 기부금, 투자금 형태로 학교 운영자금이 조달되는 경우는 선출된 이사회가 학교 운영을 담당하며 교사와 학생 선발, 교육과정, 수업방식 등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종교기관이 설립한 학교나 홈스쿨링이 있다. 공립형 대안학교로 차터스쿨은 공교육의 일부이며 사립학교가 차터스쿨로 전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터스쿨은 영리와 비영리 유형의 학교가 있고, 비영리 차터스쿨만이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주에서 인가하는 차터스쿨은 종종 비영리 단체, 대학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 설립되기도 한다(심대현, 2018).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공공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형 대안학교는 주(State) 정부의 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구가 대안교육 제공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안교육 제공자가 차터스쿨(Charter School)을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차터스쿨은 운영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일반 공립학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이나 규제가 적지만 공립형 대안학교로서 학생 등록자 수나 학생 성취도 등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Martin & Brand, 2006).

미국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력인정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하지 않으며, 국가에서 정한 단일한 학력인정 제도인 GED(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여부를 판단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면, 홈스쿨링, 고등학교 조기 중단이나 퇴학 등을 이유로 선택한다. 미국의 GED 시험은 미국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와 평가 기업인 피어슨(Pearson)의 합작회사인 GED Testing Service(GETS)가 주관하며, 5개 과목(독해:Reading, 작문:Writing,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사회:Social Studies)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유은지, 2021: 89).

(3) 공립형 대안학교 차터스쿨의 설립배경과 현황

공립학교 개선 방안으로 등장한 차터스쿨은 전통적인 학교교육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적 이상에서 발달한 것으로 평가된다(Grady, 2012). 차터스쿨은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이지만 사립형도 가능하고 개인의 다양한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며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학교와 다르다(Mehta, 2011). 하지만, 차터스쿨은 자율성은 보장하되 성과 중심의 평가 제도를 갖고 있어 등록 학생 수, 학생의 학업성취도, 중도탈락율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⁸⁾ 이로 인해 차터스쿨은 공립학교보다 교수-학습의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공립학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Bernstein, 2004).

차터스쿨은 1974년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의 레이 버드(Ray Budde) 교수가 주창하였으며, 1988년 미국 교사 연합회 회장인 알버트 생커(Albert Shanker)가 그 주장을 옹호하고 공립학교 개혁을 요구하며 시작되었다. 특히, 1992년 미네소타 주(State of Minnesota)의 세인트 폴(Saint Paul)에서 처음 설립되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키며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기존 학교, 지역 교육구, 주 교육부, 교사 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존 공립학교와는 달리 지역단체, 학부모, 교사 등이 공동위

8)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harter School Policies: Does the state have a charter school law?. <https://reports.ecs.org/comparisons/charter-school-policies-01>에서 2023년 2월 5일 인출.

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즉 공립학교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사립학교처럼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치적인 공립학교인 것이다.

차터스쿨(Charter School)의 설립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법인 단체 설립 허가서(Charter)⁹⁾를 제출하고 운영계약을 맺어 인가를 받는다. 이후, 최초 3년간 계약을 기본으로 평가받고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차터스쿨의 종류는 자퇴생이나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교육, 영재교육, 예술을 위한 교육까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차터스쿨은 정규학교와 같은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운영체제 덕분에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고 학력인정도 되며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ehta, 2011).

공립형 차터스쿨은 2016-17년 42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에서 약 6,900개가 운영되며 약 315만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학생들의 입학정원은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5년 한해만도 400여개의 차터스쿨이 개설되었다. 하지만, 2015년 등록 학생부족, 재정부족, 실적 부진 등으로 270개가 폐교하였다. 차터스쿨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며 공립학교보다 학생당 평균 36%의 세입을 덜 받고 설비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차터스쿨은 학생들에게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지만, 일반 공립학교처럼 시험성적, 주의 명령과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도 한다(심대현, 2018). 2022년도 미국 전역에 차터스쿨은 45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에서 7,821개의 학교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7.5%인 3천7백만 명(3.7million)이 등록하고 있다.

차터스쿨은 전통적으로 일반학교보다 더 많은 비율의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학생들을 지도한다. 2020-21년의 결과도 유색인종 학생들 비율이 일반 공립학교는 53.4%인 반면 차터스쿨은 69.3%로 10% 이상이 높다. 또한, 무료급식이나 식비보조를 받는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53%이지만 차터스쿨에는 59.6%를 차지한다. 차터스쿨 학생 구성은 지난 2009년에 비해 2019년도에 백인과 흑인 학생은 줄어들고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아시안 학생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차터스쿨 학생의 34%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차터스쿨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공립학교의 학생들 중

9) 주 정부의 교육부에 설립하고자 하는 차터스쿨의 교육목표,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생 관리, 평가 방법 등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헌장(charter)을 제출한다.

10) Public charter schools. WHO ATTENDS CHARTER SCHOOLS?. <https://data.publiccharters.org/digest/charter-school-data-digest/who-attends-charter-schools/>에서 2023년 2월 5일 인출.

24%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학교에 다닌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¹¹⁾.

(4) 차터스쿨의 목적, 운영방침, 교육과정

차터스쿨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단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가능하다. 차터스쿨의 운영 목적은 교육과정의 다양화이다. 즉,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획일적인 교육과정(one-size-fits-all)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제외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도탈락 학생, 미혼부/모 청소년, 영아가 미숙한 학습자/이민자 그리고 영재 학생들까지 학생 분포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학부모들에게는 양질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터스쿨도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표준화된 시험에 응해야 하며 이들 통해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주와 연방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중도탈락 학생이나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차터스쿨은 의무적으로 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대부분의 차터스쿨은 기존 교육과정 외에 학교마다 수학, 예술, 기술, 언어 등과 같이 특화된 분야를 교육하므로 개별학교들이 자체 개발한 학업형성평가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차터스쿨은 교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한다. 교사들이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법을 시행하므로 교장과 행정가의 자율적인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임금은 교사의 실제적인 수행이나 능력 그리고 책무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예산측면에서 차터스쿨은 공립학교로서 같은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주(State)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재정지원을 받는다. 차터스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주 정부(State)나 지역의 교육구(School District)를 통해 받지만, 기존 공립학교의 6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교시설을 위한 지원도 부족하여 학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차터스쿨의 62%는 학교시설을 임대하거나 교회나 창고 등을 개조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영상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교나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여 낮은 학교는 폐교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11) Education Commision of the State. Public Charter School Enrollment. <https://reports.ecs.org/comparisons/charter-school-policies-01>에서 2023년 2월 5일 인출.

(5) 한국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대안교육은 1960년대 인종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며 발전하였다. 대안교육을 통해 특정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차터스쿨은 학교의 획일적인 학생 교육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1974년 시작되어 80년대를 거쳐 90년대 급격히 성장하였다. 소수자나 위기 학생들에게도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차터스쿨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지역과 학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공교육 체계라 할 수 있다. 학교운영은 관료주의에서 탈피하고 전문가와 교사들이 학교운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성과를 높이므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다. 일반 공립학교보다 적은 재정지원으로 운영하는 차터스쿨은 초창기부터 미국 전역에서 참여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점차 많은 차터스쿨들이 문을 열며 50년 넘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낮은 평가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학업을 중도 탈락하는 경향이 높고, 위기가정의 학생이나 위기에 처한 학생들도 학교를 떠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유일한 공교육 제도로서 학교는 일부학교를 제외하고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선택적이며 유연한 교육과정의 제공은 불가능해 왔다.

한국사회도 점차 사회문화적 그리고 가정적 배경의 다양한 학생들이 증가하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교육의 소비자이며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열린교육을 실천할 시점이다. 미국의 차터스쿨처럼 공립학교의 일부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지적인 성장과 잠재력 증진을 위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한국의 공교육도 혁신적인 대안교육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획일화된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

는 자율적이며 혁신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2) 영국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운영 실태

(1) 영국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발달 배경과 특성

영국 교육부의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은 대안적 제공(alternative provision)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교육부의 ‘대안적 제공이란?’ 지침서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을 대안교육이라 부른다. 이에,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습자들을 배치하는 학습자 위탁기관(Pupil Referral Unit: PRU), 평생교육기관, 자원봉사분야, 또는 사립분야의 프로젝트 등도 포함한다. 영국 교육부의 2013년 ‘대안교육 제공 지역 교육청을 위한 법적 지침’에 따르면, 대안적 제공은 퇴학, 질병, 여타의 이유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습자를 위해 지역 교육청이 추천하는 교육, 학교가 유기정학 처분 등을 받은 학습자를 위해 추천하는 교육, 그리고 학교가 학습자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습자는 주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로 대부분 문제행동, 약물, 학업 중도탈락, 임신이나 출산, 질병 등의 이유로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자들이다. 이로 인해, 이들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는 대안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을 포함하지만, 학교 운영과 인력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유학교(Free School)나 아카데미(Academy)로 불리며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학교는 정부의 교육재정을 활용하지만, 지역사회 내 기관이나 단체, 종교기관, 또는 대학 등이 운영한다(강호원 2018).

영국은 1988년부터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기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며 지역 교육청의 일선학교에 대한 권한을 약화시키며 일선학교에는 점차 더 큰 권한을 부여해 왔다.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 독립학교(Independent State Schools)인 아카데미(Academy)와 학부모와 교사들이 새롭게 설립한 자유학교(Free School)를 발전시켜왔다. 영국 정부는 점차 학교의 개혁을 위해 중간층에 위치한 지역 교육청이 학교가 주도하는 일을 지원하며 학교의 자치적 역할을 강조하며 학교와 지역 교육청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중시하였다(심대현, 2018: 72). 이와 함께, 영국정부는 학교 밖에 위치한 교육기관들을 통해 일선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인력관리, 교육과정,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기 시작하였

다. 교육부(2015)의 ‘2010-15년 정부정책: 주류 교육 밖의 아동들’에 제시된 대안교육 개선 안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제시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정규적인 교육을 제공할 지역 교육청의 의무 확대
- 대안교육 기관에 자체적인 예산과 인력관리에 대한 강화된 권한 부여
- 대안교육 기관들이 아카데미로 전환하도록 장려
- 학습자 위탁기관의 대안교육기관 신설은 자유학교와 아카데미로 대체
-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당한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선택과 재정 지원
- 대안교육 교사들의 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 선택이 가능
- 대안교육 기관에 예비교사의 교생실습 허용
- 질병으로 인해 학교등교가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교육 가능 등

지역 교육청은 법적으로 대안교육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전달하는지 엄격히 감독할 의무가 있다. 대안교육은 아동의 나이,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한 특수한 교육적 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을 뜻하며 학부모와의 논의를 통해 지역 교육청이 적절한 교육을 결정해야 하며 교육부의 지침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강호원, 2018).

(2)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법·제도

영국의 교육법은 1944년 발표된 일명 버틀러 법에 근거하고 있다.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필요시 기타 교육과 훈련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02년에 제정된 교육법(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대안교육 시설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의무교육령(1996년 교육법 제 7조)은 부모가 학령기에 있는 보호 학생이 학교나 대안교육 시설에 출석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카데미를 정하고 아카데미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2002년 교육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2010년에는 아카데미 학교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아카데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2011년 교육법 제52조~ 62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다(심대현, 2018: 61-67).

아카데미 학교 개설은 교육부 장관이 아카데미를 설립하려는 자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

지만, 지역사회 내 교사 노조나 지방정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설립해야 한다. 아카데미 학교 설립은 설립 당사자와 교육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2010년 아카데미 법 제1조). 재정적 지원은 2002년 교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행한다.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는 아카데미법 제3조에 의거하며 아카데미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직권으로 아카데미 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즉, 관할 구역에 아카데미 학교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아카데미 학교 설립을 신청하도록 하여 신청접수가 되면 교육부 장관에게 통지(2011년 교육법 제11조)하여 개설할 수도 있다(심대현, 2018: 61-67).

(3) 대안학교의 유형 및 교육과정

영국의 대안학교 유형을 구분하면 외부의 지원을 받아 신설되는 경우와 공립학교에서 전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설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소유자가 1993년 자선단체법에서 인정하는 자선단체 또는 2006년 회사법에서 인정하는 회사라야 한다. 학교 등록은 해당학교 소유자가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신청서에는 예비학생의 연령, 예상 가능한 학생 수, 남녀 공학 여부, 기숙사 제공 여부 등을 기술하여 제출하고 조사가관이 심사를 거쳐 등록기관에 등록한다. 아카데미 학교가 개설되면 지역 교육청은 재정지원을 중단하지만, 국가에서의 재정지원은 지속된다. 둘째, 전환형 아카데미는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다(심대현, 2018: 61-67).

영국 대안학교는 취학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이며, 일반 공립학교에 비하여 자율과 경쟁의 측면에서 우월하다. 예산결산, 교직원 고용, 근로조건 협상, 성과관리, 교육과정, 수업 일 수 등에서는 자율성을 보장 받는다. 대안학교는 의무 학년제와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영어, 과학은 주요 교과목으로 운영해야 하고, 디자인 및 기술, 정보 및 소통기법, 체육, 시민정신, 외국어 교과 등은 기초교과로 하며 국가 교육과정을 교육부장관령으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2002년 교육법 제91조) (심대현, 2018: 66). 대안교육의 유형은 크게 학습자 위탁기관(PRU)과 아카데미(Academy)로 분류된다.

① 학습자 위탁기관 (PRU)

학습자 위탁기관은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질병, 십대 미혼모/부, 임신, 학교 공포증 등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과 학교배정 대기자 또는 학교 정학이나 퇴학자 등에게는 전일제나 시간제로 단기간 교육을 제공한다.

학습자 위탁기관은 지역 교육청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기관의 운영을 책임질 담당교사 1명이 배치되고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일반학교처럼 학교 평가기관인 교육 기준청(Ofsted)의 평가를 받는다. 개교와 폐교는 같은 지역의 다른 학습자 위탁기관, 운영 위원회, 일반학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합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결정해야 한다. 학습자 위탁기관은 학습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유나 나이에 따라 배정이 달라진다. 질병이 있는 학습자는 건강상태에 따라 전일제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주에 5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정학이나 퇴학을 받은 학습자는 전일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행동이 있는 학습자는 이 기관에 다니는 다른 학습자와 함께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대부분 학습자는 일반학교에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 위탁기관은 국가 교육과정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없으나, 영어, 수학, 과학, 인간과 사회, 건강, 경제 교육, 컴퓨팅(computing) 등의 기초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 과정 운영은 학습자 위탁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의 평생교육기관, 직무기반 연수, 고용주, 자원봉사, 또는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은 직접 운영하는 수업과 외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학습자 위탁기관은 지역 교육청 교육기관에 등록된 병원학교, 병원교육 서비스, 가정교육 서비스, 개인 교육센터, e러닝 센터, 기숙학교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에 등록된 위탁기관은 평생교육 기관의 현장실습, 직무경험, 자원봉사, 기업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청년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제공한다(강호원, 2018).

② 자유학교(Free school)¹²⁾

자유학교(Free School)는 아카데미의 일종으로 비영리이며 독립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출현한 학교이다. 자유학교는 교육부 장관과 기금협약을 체결한 비영리 자산 신탁에 의해 운영된다. 자유학교는 대부분 소규모로 프로젝트에 기초로 운영하는 300명 규모의 스튜디오 스쿨과 14-18세 학생을 위한 취업 전문의 기술대학이라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유학

교는 설립도 자유롭고 지방정부의 간섭도 적으며 교사자격이 없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19.9% 이상의 지분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방정부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5월 이후에 자유학교는 지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새로운 아카데미로 확장될 수 있다.

③ 대안교육 아카데미(Academy)

영국은 2010년 아카데미법에 의거해 아카데미 또는 자유학교 설립만을 허가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주로 대도시 저소득층 빈민가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도시 빈민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투자 우선지역 설정(EAZ), 우수학교 만들기 프로젝트(EiC), 아카데미(Academy) 설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업의 공통된 특징은 빈민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특히, 공립학교 운영에 지역 사회와 민간의 재정적 투자와 학교운영에 참여를 적극적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아카데미는 기존 공립학교 틀을 뛰어 넘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심대현, 2018: 68).

아카데미와 자유학교는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보통 중등학교(만 11-16세)와 후기 중등과정(만 16-18세)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의 대안학교는 모두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므로 학습자의 지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창조성 그리고 정서적, 윤리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한다. 이 학교는 지역 교육청이 관할하지 않고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의무도 없으며, 소속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학교로는 슈타이너 학교(Steiner School), 몬테소리 학교(Montessori School), 작은 지역사회 학교(Small Community School) 등이 있다. 슈타이너 학교는 아동이 7세가

12) 아카데미(Academy)는 기존의 공립학교처럼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로부터 교육재정을 직접 받는 사립학교로서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자체적인 학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학, 특수교육 및 장학/퇴학에 관한 규정은 여타의 공립학교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재단이 운영하며, 이 재단이 학교인력을 고용한다. 일부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기업, 대학교, 다른 학교,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와 같은 후원자를 둘 수 있으며, 후원자는 해당 학교의 실적 개선을 위한 책임을 진다. 자유학교(Free School)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예산을 받지만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며, 학교운영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 학업성취도에 근거한 학생선발을 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로 학교인력의 봉급과 대우를 설정하고 학기와 학교운영일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로 운영되고, 재단, 대학교, 사립학교, 지역단체와 종교단체, 교사, 학부모, 기업 등의 단체가 설립할 수 있다(강호원, 2019: 7).

될 때까지 놀이를 통한 교육을 장려하며 읽기와 쓰기를 가르친다. 몬테소리 학교는 학급을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자료를 사용하여 개인학습을 진행한다. 작은 지역사회 학교는 민주주의, 평등, 존중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소규모의 학습 공동체를 지향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순수한 배움에 집중하며 시험도 없다(강호원, 2018). 대표적인 대안교육의 자유학교로는 영국의 교육학자 니일(A. S. Neil, 1883-1973)이 설립한 서머힐(Summerhill)이다. 서머힐 스쿨은 정부로부터 지원도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학교로서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 또는 자유학교(Free School)를 표방하며 자율과 자치를 교육철학으로 삼고 있다(심대현, 2018).

아카데미는 학업 성취도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학교운영 형태이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편성 등의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새로운 학교라 할 수 있다(최상덕, 2006, 심대현, 2018: 69에서 재인용).

(4) 영국의 아카데미 운영 형태

영국의 교육부(2015)는 여러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신규 아카데미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아카데미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2가지 아카데미 운영 모델로는 ‘단일 아카데미(Single Academy)’와 ‘복수 아카데미 재단(Multi-Academy Trust)’이 있다. ① 단일 아카데미란 학교 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Ofsted)으로부터 최근에 우수 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학습자의 성취도와 향상도가 높으며, 학교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인 기존의 개별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② 복수 아카데미 재단은 하나의 재단과 하나의 이사회가 여러 개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다. ‘복수 아카데미 재단’ 안에서 인력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재화와 용역 구입 시 비용절감을 도모한다. 하나의 ‘복수 아카데미 재단’은 소속된 각각의 아카데미를 관장하는 개별적인 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를 지역 운영위원회라고 부르며, 재단의 이사회가 자신의 기능 일부를 지역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복수 아카데미 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단에 가입하거나 다른 학교들과 협력하여 신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신설되기 전에는 ‘복수 아카데미 재단’과 유사한 ‘학교 연맹(federation)’ 체결하기도 한다.

다양한 학교연맹의 유형 중 하나로 ‘학교공동경영 연맹(Size Federations)’이 구성된다. 학교공동경영 연맹이란 규모가 매우 작거나 작은 학교 2곳 이상 또는 소규모 학교 1곳과 중간 규모 학교 1곳 이상이 연맹을 맺는 것이다. 하나의 연맹에는 소속 학교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한 명의 ‘경영 교장(Executive Head)’을 둔다. 소속 학교는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인력의 전문성과 자원 공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수준 향상, 학습자의 학습 기회 확대와 성취도 증진, 학교 운영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한다 (강호원, 2019).

(5) 한국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에 대한 시사점

영국은 학교별 입학 예정자의 수용인원이 부족한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학습자 위탁기관, 자유학교, 아카데미는 기존 학교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교육 대상자들에게 맞춤형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는 기존 공립학교의 질적 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학교 입학생의 수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청소년들(질병, 심대 미혼모/부, 임신, 학교 공포증, 정학이나 퇴학자 등)에게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한 기관의 노력 결과이다.

영국의 대안교육은 다음과 같이 한국 교육계와 학교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영국의 교육개혁 운동은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의와 신념, 인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영국 교육 전체의 변화이며 성과라고 판단된다. 한국 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나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는 대안교육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령기에 모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교육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필수와 다양한 선택 교과목을 담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신에 맞는 교육과정을 플랜하고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도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연대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사회의 희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민간과 공교육 부문의 상호 대립이 아닌 우호적이고 협업적 파트너십 관계 형성이다. 지역사회 내 민간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노력과 실천방안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휘할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제도적인 교육개혁과 변화가 우선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 사회 내 청소년 교육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협업적 노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영국의 학습자 위탁기관, 자유학교, 아카데미 등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편적이며 특수한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

넷째, 교육개혁은 진정한 교육자와 청소년 지도자 등이 앞장서서 교육개혁 운동이 더욱 발전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여러 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교육에 관심있는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연대하여 상호 협력하면서 힘을 결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안교육은 운영단체를 중심으로 폐쇄적이며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소통을 위한 연대나 협업의 움직임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안교육 기관 간에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학교 그리고 대학 등과도 협업하며 교육개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집단이 교육실천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대학은 시설과 인력을 공유하며 앞으로 줄어드는 대학 입학생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교육 투자로 인식하고 대안교육과 진정한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국의 대안교육 운동은 교육과 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대안교육과 공교육 간에 점진적인 변화와 정책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해 왔다. 이에 한국의 대안교육도 정치적인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재양성과 교육실현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실험적인 노력과 성과만을 유도하는 한국의 교육이 어린학생과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혁신하고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학교교육과 대안교육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부모, 민간, 공공기관, 정부가 장기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업하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 일방향이면서 단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통해 다각적으로 다차원인 교육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개혁이 시급하다.

3) 독일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1) 독일의 대안교육

독일의 대안교육은 독일 교육 내에서 독특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그 매우 분권화된 구조로 인해 다양한 교육 방법론과 학교 유형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의 대안교육이 개발되었으며 계속 진화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Germany, 2021). OECD(2020)는 교육 정책 전망에서 독일의 더 넓은 교육 정책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런 정책들은 독일의 대안교육에 대한 규제 환경, 도전과 지원을 형성하는 맥락을 제공한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의 대안 교육 시스템은 분권화와 다양성에 의해 키워진 체험 학습과 학생 자율성에 대한 강조 등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독일의 높은 수준의 교육 체제는 대안교육이 그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독일의 대안교육 모델에 대한 이해가 가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대표적인 대안교육의 예로는 발도르프교육과 몬테소리교육이 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도르프 학교(250개 이상)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루돌프 슈타이너 학교라고도 불리며, 발도르프 교육 모델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립 기관으로, 일반적인 공공 학교보다 실천적이고 예술적 학습에 중점을 두고 덜 구조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지만, 특수학교로서 국가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교육 과정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을 공식적인 보조자격이나 아비투어를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각 주에 따라 학생들은 외부 정부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아비투어를 위해선, 대부분의 주에서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외부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또한, 몬테소리 교육 기관은 독일에서 다른 형태의 독립적인 사립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은 대략 1,000개 정도 있으며, 주로 유아 교육 기관이지만, 중등 교육 수준의 몬테소리 학교도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학생들은 공식 독일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공립학교에서 졸업 시험을 봐야 한다. 몬테소리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들이 따로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식 독일 교사 자격증과 함께 단기 디플로마 과정을 제공한다.¹³⁾

(2) 독일 정부의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 및 정책

독일 정부는 대안교육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성격과 독일의 정책 환경이 대안교육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13) WES. Education in Germany. <https://wenr.wes.org/2021/01/education-in-germany-2>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탐구는 대안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사점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먼저 독일의 교육 체제는 매우 분권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와 방법론이 발생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Germany, 2021). 이 체제 내에서 대안교육이 자리를 잡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시행한 여러 정책적 지원은 대안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OECD(2020)의 교육 정책 전망은 이러한 중요한 조치를 개요화 하며, 이는 포괄성과 평등에 대한 노력과 혁신적인 교수 및 학습 방법론의 통합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의 분권화라는 특성은 교육 과정에 대안 방법론의 통합을 허용한다.

(3) 독일 대안교육의 특징

독일의 교육은 공교육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전반적으로 대안교육을 시행한다고 할 수 있다(정수정, 2018). 독일은 대안교육의 질을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취학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홈스쿨링과 같은 형태의 교육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유은지, 2021). 아래 [표 II-6]은 독일의 대안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6. 독일의 대안학교

구분	특징	비고
① 국가가 인정한 대안학교(staatlich anerkannte private Ersatzschulen)	• 일반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자신의 학교 졸업생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신의 학교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을 자기 관리 하에 시행	* 두 가지 과정 모두 국가가 감독 - 독일의 대안학교는 의무교육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정규학교를 대신함
② 국가가 허가한 대안학교(staatlich genehmigte private Ersatzschulen) ¹⁴⁾	• 학생들에게 자체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졸업생은 주립 학교에서 외부 시험관으로 학위(예: Abitur, 중등 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적격 중등 학교 졸업 증명서)를 받아야 함 • 이 후 성과에 대한 국가 인증서를 받음	

* 출처: 유은지 (2021). 미국과 독일의 대안교육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대안교육에 대한 시사점 도출.

14) Besser bilden. 독일 주 인증 사립학교. <https://www.besser-bilden.de/privatschulen-staatlich-genehmigt/>에서 2023년 2월 4일 인출.

독일의 교육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은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어 개별 연방 주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적 필요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Germany, 2021).

(4) 독일 대안교육 참여 및 네트워크¹⁵⁾

독일의 첫 번째 대안학교는 1974년에 설립된 Freie Schule Frankfurt이다. 하지만 이 학교는 설립 당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10여 년의 법정공방을 거쳐 승인을 얻게 되었다. 이 당시 다른 대안학교들도 유사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어 1978년 8개의 대안학교가 모여 최초의 대안학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81년에는 그 수가 18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8년 독일의 전국 자율대안학교협의회(Bundesverband der Freien Alternativschulen: BFAS)가 결성되었다. 이 대안학교 네트워크는 소속된 학교들 간에 정보 공유와 다양한 상호 지원을 통해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적 소송과정이나 신규 학교 설립 기관에 교육계획과 재정계획을 지원하여 당국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현재는 100여개가 넘는 대안학교가 자율대안학교협의회(BTAS)에 참여하고 있다. 대안학교라는 명칭 이외에도 독일에는 다수의 자유학교가 있다. 일례로, 약 230여개의 발도르프(Waldorf)학교와 260여개의 몬테소리(Montessori) 학교가 있다. 이 학교들은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자의 교육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독일에서 ‘대안교육’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먼저 작은 규모를 지향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잘 아는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또한 혼합연령과 통합학급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프로젝트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최대한 허용한다. 나아가 학교와 교과과정 운영 등에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나라 대안교육 현장에서도 상당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15) Henrik(2014). 독일의 대안교육(Because We Do Not Dare),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정책과 실천,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독일 대안교육의 사례 : 발도르프 교육을 중심으로

① 발도르프 교육의 현황

발도르프 교육은 교사들에게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그리고 학교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며, 학생들의 학업 평가는 교실의 일상 활동에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표준화된 시험은 고등교육 입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75개국에 1,200개 이상의 독립 학교와 약 2,000개의 유치원, 그리고 40개국 이상에 500개 이상의 특수교육 센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학교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발도르프 방식에 기반을 둔 많은 공립학교, 차터스쿨, 학원, 그리고 홈스쿨링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독일, 미국, 네덜란드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¹⁶⁾

② 국내의 발도르프 교육¹⁷⁾

발도르프 교육은 1994년 유네스코 제44차 세계교육장관회의에서 21세기 개혁교육의 모델로 선정되었다. 이후 유럽, 북미, 남미에서 순회 전시회와 세미나들이 열렸고, 1996년과 1997년에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순회 전시가 개최되었다.

특히, 1996년 9월에는 한 달 동안 독일 문화원 전시실에서 한국에서의 발도르프 교육 전시회가 열렸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육이 한국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러한 배경과 맞물려 2002년에는 과천자유학교(현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가 개교하였고, 그 다음해인 2003년에는 푸른숲학교(현 푸른숲발도르프학교)가 개교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세계발도르프학교연맹에 등록된 학교가 5곳(청계자유, 푸른숲, 동림자유, 사과나무, 양평슈타이너)이며, 추가로 4곳의 발도르프 학교가 더 운영 중이다. 더불어, 발도르프 교육을 제도권교육의 혁신학교에 도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16) Wikipedia. Waldorf education. https://en.wikipedia.org/wiki/Waldorf_education#Developmental_approach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17) StoryEnzin. 세계 발도르프학교 현황. <https://storyenzin.com/2012/08/06/세계-발도르프학교-현황/>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③ 발도르프교육의 시사점

한국의 대안교육은 전체적인 교육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큰 장벽이다. 대안교육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고소득층 학생들만의 교육이라는 편견,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안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흐리게 하고 있다. 또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학비 부담과 학생 혜택에서의 제외,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발도르프 교육 등의 대안교육은 다양한 학습자의 필요성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강조하며, 평가와 성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안교육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대안학교에서의 학습 성과와 경험을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 같은 대안적 교육 방법론이 기존의 학교 시스템과 호환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대안교육은 한국 교육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이 교육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와 가능성을 더욱 존중하고 강조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발도르프 교육 등 대안교육 모델은 우리 사회가 교육의 본질을 재차 생각하고, 모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교육은 교육 시스템 개혁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발도르프 교육 같은 대안교육은 한국 교육 체계에 다양성과 개인화된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발도르프교육에 대한 한국의 대안교육이 갖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인증과 대안교육의 조화: 발도르프 학교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이지만, 국가의 인정을 받아 공식적인 자격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에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면, 학생들은 대안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안 교육의 학문적 성과를 보다 넓게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안교육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진로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다.

- 창의성과 실용성 중점의 교육: 발도르프 교육은 전통적인 학문적 지식에 더해 예술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안교육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된다.
- 정부 감독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 발도르프 교육 시스템은 학교가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지만 특수학교로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이 정부의 감독과 독립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 기관이 국가 표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독특한 교육 철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설계되는데, 이 점은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에서도 참고할 만한 요소이다. 각 학생의 고유한 발달 과정과 학습 속도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학생들에게 보다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 커뮤니티의 참여와 책임 공유: 발도르프 학교는 교육 커뮤니티 내에서 교사, 학생, 그리고 부모가 모두 참여하며, 교육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에서 채택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폭넓은 참여와 이해를 촉진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대안교육은 교육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개개인의 학습 요구와 가능성을 더욱 존중하고 강조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교육 체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4) 덴마크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1)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¹⁸⁾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은 주로 교육부를 통해 국가가 통제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일반 교육 시스템과 성인 교육 및 지속적인 훈련을 위한 병렬 교육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일반교육제도는 유아교육 및 돌봄, 통합 초·중등교육, 일반 및 직업 상위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성된다.

국제적인 비교에 따르면, 오늘날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은 비교적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며 평등주의적이며, 진학 및 고등교육에서의 역량 인정은 교육부를 통해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2) 덴마크 대안교육의 특징

덴마크 학제에서 두드러진 점은 덴마크 교육법이라는 큰 체제하에 공교육과 자유교육이 일정한 긴장관계를 가지며 병립할 뿐 아니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나누고 있다(신혜진, 한주영, 2017). 덴마크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 외에 크게 세 가지 대안교육 과정인 프리스콜레, 애프터스콜레, 플케호이스콜레가 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학교는 대부분 시민이 주축이 돼 설립하고 운영한다. 덴마크에서는 14세~18세 청소년 3명 중 1명이 이런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진로와 삶을 성찰하는 시기를 보낸다.

한국적 학제로 이해하면 고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 과정을 마친 뒤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대안교육 과정(vocational upper secondary education)에 들어간다.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같은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을 1년 동안 듣는 방법 혹은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수업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숙학교 형태의 애프터스콜레, 10학년 스쿨이 있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1년의 추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10학년’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처럼 자연스레 대안교육 과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10학년은 10학년 스쿨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¹⁹⁾

18) Denmark - History Background. <https://education.stateuniversity.com/pages/368/Denmark-HISTORY-BACKGROUND.html>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19) Naked Denmark (2017.5.12.). 덴마크 교육 한눈에 보기 ② 대안교육. <http://nakeddenmark.com/archives/7674>에서 2023년 2월 4일 인출.

(3) 덴마크 대안교육의 사례

덴마크는 공립학교 교육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대안교육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학교를 자유학교라 칭한다. 여기에는 프리스콜레(Friskole, 자유기초학교), 에프티스콜레(Efterskole, 자유중등학교),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 평민대학)가 포함된다. 본 고에서는 프리스콜레와 에프티스콜레를 중심으로 덴마크 대안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프리스콜레

가. 프리스콜레의 이해²⁰⁾

프리스콜레는 자유학교라고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1800년대 덴마크의 대중운동에서 기원한 교육 체계로, N.F.S. 그룬트비히와 크리스텐 콜드의 이론에 기반하여 생명을 통한 학습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학교들은 초기에 절대군주제와 부조리한 상인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중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교육의 장소는 집이며, 교사들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1814년 교육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학교에 보내는 의무에 반대했다.

그러나 1830년대에 일반인의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자체 교육을 제공하면 의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개념이 빠르게 정착되었다. 1855년 프리스콜 법은 이 원칙을 확고히 보장했고, 1908년부터는 모든 부모가 자식의 교육 방식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도록 보조금이 주어졌다. 이는 덴마크에서의 교육의 자유 원칙의 핵심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교는 덴마크의 교육 변혁을 주도한 핵심 요소로, 과거의 교육 체계와 민주적 사회의 교육에 대한 변화의 증거이자 결과물이다.

나. 프리스콜레 설립 방법

프리스콜레협회 회장인 Pedersen(2017: 12-13)²¹⁾은 프리스콜레를 설립하는 세 가지

20) Friskolerne. The history of the free schools. <https://www.friskolerne.dk/english/the-history-of-the-free-schools>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21) '덴마크 대안교육을 만나다' 한국-덴마크 교육국제세미나 발표문 중 프리스콜레협회 회장인 Pedersen의 주제발표문.

주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첫째, 지역 공립학교에서 프리스콜레로: 최근 수십 년 동안, 작은 공립학교들이 문을 닫고, 많은 프리스콜레들이 생겨났다. 이는 대형 학교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립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일부 부모들이 연합하여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공립학교를 프리스콜레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처음부터 시작하기: 일부 학부모 그룹은 대안적인 교육을 위하여 처음부터 프리스콜레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공립학교가 제공하지 않는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를 만들고자 하며, 새로운 프리스콜레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첫 해에 최소 12명의 학생이 입학해야 한다.

셋째, 전통의 무게: 일부 프리스콜레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100년이 넘었다. 이러한 학교들은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프리스콜레는 근본적인 이념과 전통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고 적응하고 있다.

다. 프리스콜레와 교육 정책²²⁾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은 ‘의무 교육’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의무적인 등교’를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홈스쿨링, 공립학교, 또는 자유 학교 중 어떤 형태의 교육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다.

자유 학교는 부모가 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들의 교육 수준이 공립학교의 수준과 같거나 더 높다는 것을 감독과 평가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자유학교는 공립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 각 과목의 학습 목표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 스스로의 권한이다. 학교들은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공개해야 하며, 약 30개의 학교는 “시험 및 테스트가 없는 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덴마크의 교육법은 교육이 학생들의 개인적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자유학교는 학생들이 자유, 민주주의, 평등을 중심으로 한 덴마크 사회에서 생활할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22) Friskolerne. Legislation. <https://www.friskolerne.dk/english/legislation>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명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유학교의 수준은 공립학교의 수준과 대등해야 한다.

자유학교의 감독 및 평가는 세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부모: 학교의 운영상태를 감독하며, 감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둘째, 이사회와 부모: 국가가 승인한 감독관을 선출하며, 이 감독관은 덴마크어, 수학, 영어 등 핵심 과목의 수준을 감독한다. 또한 학교 전체의 교육 수준이 공립학교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감독관 대신 자체 평가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는 이러한 자가 평가 방법을 승인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 위험 기반 감독, 주제별 감독, 개별 감독 등을 수행한다. 만약 학교가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고 국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은 부모, 학교, 국가가 적절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발전과 교육 수준을 보장하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스템은 교육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며, 동시에 교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과 평가를 통해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라. 프리스콜레와 한국 대안교육에 대한 시사점

덴마크의 프리스콜레는 교육의 자율성,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부모와 국가의 협력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 교육의 자율성: 한국의 대안교육은 주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이해도에 맞춰진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덴마크의 프리스콜레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로와 개인적 발전에 대한 중요성과 부합한다. 더욱 자유롭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채택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창성, 창의성,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더욱 잘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 중심의 교육: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덴마크의 프리스콜레는 개별 학생의 개인적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 부모와 국가의 협력: 부모는 학생의 교육과정에 깊이 참여하며, 국가는 교육 품질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은 학생의 교육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부모와 교육자, 그리고 국가가 학생의 교육 품질을 확보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개발하고 추구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협력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 및 감독: 덴마크의 프리스콜레 시스템은 부모, 학교, 그리고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효과적인 평가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에서도 참고해야 할 점이다. 평가 체계는 학생의 개인적인 발전을 측정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다양한 학습 경로와 방법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학생의 인권 존중: 덴마크의 프리스콜레는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존중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이며,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이 이를 모델로 삼아 학생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권을 더욱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 덴마크의 프리스콜레 시스템은 교육의 자율성,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부모와 국가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의 대안 교육 시스템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교육이 개인의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② 에프터스콜레

가. 에프터스콜레의 이해

에프터스콜레(Efterskole)는 기숙학교이며 14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덴마크의 독특한 독립 학교이다. 현재 30,669명의 학생들이 덴마크 전역의 약 240개의 학교 중 하나에 다니고 있다²³⁾. 에프터스콜레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과목 시험을 실시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체육, 음악 또는 연극과 같은 특수 과목에 집중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특수 교육을 제공한다. 이 학교는 전통적인 학문 주제 외에도 창의성, 팀워크, 리더십, 덴마크

23) Efterskolerne. About the Danish efterskole. <https://www.efterskolerne.dk/English/aboutthedanishelterskole>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문화 등을 강조한다.²⁴⁾

에프터스콜레의 교육목적은 “각각의 에프터스콜레는 독립적인 자치 기관이고 그들은 모두 학생들의 교육과 개인적인 발전을 다룬다. 그들은 삶을 위한 계몽, 일반 교육, 민주 시민권에 대한 공통적인 교육 초점을 수용한다”이다. 에프터스콜레는 공립학교에 비해 과목 선택, 교수법, 교육적 접근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학교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교육학적 성향에 따라 다르다. 에프터스콜레의 자유는 학교와 학생 모두에 대하여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 보조금이 제공된다. 에프터스콜레의 특징 중 하나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다. 교사는 수업 시간 외에 수업과 감독 모두를 책임진다. 이것은 학생들이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비공식적인 관계를 만든다.²⁵⁾

나. 에프터스콜레의 한국대안교육에 대한 시사점

덴마크의 자유교육과 한국의 교육 및 대안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송순재(2017)의 발표문을 바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2022)에 의한 한국 대안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립학교와 협력: 에프터스콜레는 그 특유의 협력적 접근방식으로 대안학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특히 공립학교에게 에프터스콜레와의 협력은 진로탐색 교육이나 학교부적응아 문제 등, 현재 구조에서 난점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제도는 이런 협력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 한국 대안교육에 대한 시사점: 에프터스콜레와 공교육의 협력은 기존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제3의 기회를 구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3년제, 5년제, 6년제 등의 체제에 더해 새로운 유연성을 확보하며, 공교육과의 협력구조 속에서 사회 전반의 교육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가능성을 보

24) Efterskolerne. Facts about the Danish efterskole. <https://www.efterskolerne.dk/English/factsabouttheefterskole>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25) Efterskolerne. Facts about the Danish efterskole. <https://www.efterskolerne.dk/English/factsabouttheefterskole>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여준다.

- 교육청 단위에 대한 시사점: 교육청 단위와 모색할 수 있는 협력 구조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대안교육 위탁교육의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공립학교 체제 내에서의 에프터스쿨레 설립으로 대안교육을 기존 체제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대안학교 교사와 공립학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협력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가능성 모색: 에프터스쿨레는 협력적인 접근방식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공교육 체제와 대안교육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며, 교육 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에프터스쿨레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겹치고 협력하는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교육 시스템의 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체제가 서로를 보완하며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이 절에서 외국의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 운영 실태에 관하여 4개국(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였다. 주요 내용은 각국의 대안교육 시작의 역사적인 배경과 계기 등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와 더불어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상의 특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교육은 그 나라가 처한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과 관련된 시대적인 상황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제시한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사례들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교육철학과 이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인재상과 더불어 학교 운영 방향과 교육방식들에서 차별성을 구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차터스쿨은 표준화된 틀 속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학교에 자극을 주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 확대 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차터스쿨은 검증된 개인이나 단체가 주정부와 협약(Charter)을 맺고 운영하는 일종의 자율형 공립학교이다. 이러한 형태의 대안학교는 주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2013년 당시 일반 학교의 퇴학생, 질병, 여타의 이유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습자 위탁기관 (PRU), 평생교육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주선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몇몇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덴마크의 자유학교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을 형식적인 제도에 가두기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필요한 배움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로 출발하였다. 자유학교 또한 일정수의 학생만 확보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종태, 2014). 독일의 발도르프학교는 그 당시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국가에 순응하고 획일화된 산업인력 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독창성 개발과 사고, 감성, 의지에 기반한 정신력을 강조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시킨 교육방식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반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국제관계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현황분석과 중장기 로드맵에 관한 모델 구상을 포함하여 청년과 청소년의 가치관 및 생활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미래 예측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내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운영 사례 고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안교육은 처음부터 정해진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된 학사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기보다는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의 방식과 방향성을 서로 협의하고 찾아가는 과정 중심의 학습활동이라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재정지원과 운영 방식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는 지원하되 학사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감독은 자체 감사 기능과 더불어 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감독, 전문기관의 회계 감사, 교육청의 지도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담당 부서 간의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통한 문서화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3장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조사

- 1. 조사개요
- 2. 조사 도구 개발
- 3. 표본설계 및 분석 방법
- 4.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조사 결과
- 5. 대안교육 영역별 청소년 참여
실태 비교
- 6. 소결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을 위한 조사표 개발과 조사대상 학교 및 기관 표집, 온라인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표 개발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진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조사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회의 및 수정 조사표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과정을 거쳐 마련된 최종 조사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본 연구에서 주요 대상으로 초점 맞춘 대안교육 관련 학교 및 기관(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 2,000명(각 학교 및 기관별 500명)을 임의표집으로 선정하였다. 학교 및 기관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과 학교 및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의 규모추정의 어려움, 지역별 큰 격차 등의 이유로 임의표집하여 본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대안교육의 영역에 있는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대표성 저하의 문제가 일부만 해소될 수 있으며 전에 없던 조사 규모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조사방식은 대안학교 및 기관이 가지는 지리·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수의 학교 및 기관이 물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어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학교 및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조사보다는 온라인 조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온라인 조사 수행이 가능한 업체와 함께 학교 및 기관 섭외, 조사링크 발송, 조사결과 정리, 답례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대안학교 632명, 특성화 중고등학교 476명, 대안교육기관 344명,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99명으로 총 1,751(조사목표사례의 87.6%)명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2. 조사 도구 개발

1) 청소년의 대안교육참여 실태 조사 문항 개발

본 연구에서 양적조사에 사용될 조사표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참여 실태와 지원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조사표 개발을 위해, 먼저 국내외 관련 문헌과 연구보고서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도 연구 목적에 따라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진 내부 논의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1차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실행계획서 심의 과정을 통해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대안교육연대와 대상 학교 현장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현장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한 수정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인 전주00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안면타당도 검사를 진행하였다. 안면타당도 검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차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정된 조사표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조사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대상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단어 사용, 조사하고자 하는 영역과 문항 간의 일치 등 조사협력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된 조사표는 다시 한 번 조사협력위원회에서 서면을 통해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위원회 검토가 완료되면서 조사표 최종본이 마련되었고 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 개발 절차는 [그림 III-1]과 같다.



* 조사협력위원회 : 대안교육학과 교수 1인, 대안학교(각종학교) 교장 1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장 1인, 대안교육연대 사무국 1인으로 구성. 조사표 개발, 조사 대상 선정, 조사 진행 등 협력

그림 III-1. 설문지 개발절차

설문지 초안 개발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 검토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참여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각각의 기준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은 연구진 자체 개발과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조사표의 내용을 참고 및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며, 각 영역 및 문항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설문지 영역 및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변인	문항내용
배경문항	• 배경문항	• 성별, 학교급, 참여 기간, 참여 영향 등 • 연구진 자체 개발(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대안교육에서 참여한 학습 및 활동 경험과 도움정도	• 상담	•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 최인재, 송원일, 박지원(2020a)의 대안교실 참여 프로그램 조사표 이용.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 진로탐색	• 진로상담, 진학 및 직업탐색 등 • 최인재 외(2020a)의 대안교실 참여 프로그램 조사표 이용.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 학습 및 활동	• 학습지도, 공동체활동, 자치 및 참여활동 등 • 최인재 외(2020a)의 대안교실 참여 프로그램 조사표 이용.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 관계증진	• 또래, 부모, 교사와의 관계증진 프로그램 등 • 최인재 외(2020a)의 대안교실 참여 프로그램 조사표 이용.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 문화체험	• 음악, 스포츠, 공연, 여행 프로그램 등 • 최인재 외(2020a)의 대안교실 참여 프로그램 조사표 이용.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교육과정 수립 및 학습활동 과정에 대한 인식	•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 수업방식, 원하는 과목 개설 여부 등 • 하태욱, 이병근, 황지원, 김은영(2021) 연구의 “꿈꾸는 학교상 변인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	• 대안교육을 통한 변화	• 친구 및 교사 관계, 존중, 리더십 및 협동심 등 사회적, 개인적 변화 • 하태욱 외(2021) 활용, 수정, 보완
대안교육 참여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본인 만족도, 권유 의향, 대안교육 기관 및 학교 확대에 대한 생각 등 • 연구진 자체 개발(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개선사항의 필요정도	• 개선사항	• 교원확대, 홍보강화, 재정지원 등 • 이해숙, 조윤정(2019) 참고
기타의견	•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 연구진 자체 개발(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2) 청소년의 대안교육참여 실태 조사 문항 세부 내용

(1) 배경문항

배경문항의 경우 먼저 성별, 학교급과 같은 기본정보를 포함하였고 그 외에 대안교육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처음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누구 또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정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위의 총 4문항의 배경질문은 연구진 자체 개발하였다. 배경문항 중, 성별, 학교급, 대안교육 참여기간의 경우 조사표의 질문들 중 인식과 변화에 관한 문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교분석에 사용하였다.

(2) 대안교육에서 참여한 학습 및 활동 경험과 도움정도

조사 대상자들이 대안교육에 참여하면서 참여한 학습 및 활동에 대한 여부 성장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최인재 외(2020a)의 연구에서 조사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최인재 외(2020a)의 연구에서는 대안교실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유, 공동체 체험, 학습 및 자기계발, 진로 및 직업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및 효과성을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상담, 진로탐색, 학습 및 활동, 관계증진, 문화체험 다섯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영역을 상담, 심리검사, 공동체활동, 자치 및 참여활동,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증진 활동, 미술 및 공예, 여행 및 캠프 활동 등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선택항목은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학습 및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3) 교육과정 수립 및 학습활동 과정에 대한 인식

현재 조사 대상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및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세부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전반적인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욕구와 관심이 파악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 문항은 하태욱 외(2021)의 연구에서 ‘꿈꾸는 학교상’이라는 변인으로 일반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질문한 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발표회, 전시회 등 학습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활동 진행 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동의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4) 대안교육을 통한 변화

대안교육을 통한 변화의 경우, 대안교육 참여를 통해 대상자의 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사회적 변화는 대안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능력과 태도에 나타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안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문항은 하태욱 외(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적 능력이나 태도의 향상”을 묻는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적 측면의 변화를 묻는 영역의 문항 역시 서울형공립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연구한 하태욱 외(202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대안학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중 학생들에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넓어졌다”,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등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하태욱 외, 2021) 본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대안교육을 통해 변화된 정도를 묻는 데 사용하였다.

(5) 대안교육에 대한 만족도

대안교육에 대한 만족도 영역의 경우 대안교육을 경험하면서 대상자가 체감한 대안교육과 학교 및 기관의 만족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였다. 본 영역은 대안교육 참여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만족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대안교육의 참여를 권유하고 싶은 정도와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의 정도를 통해 전반적인 대안교육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개의 선택 문항으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6) 개선사항의 필요성

개선사항의 필요성 영역은 대안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가 학교 및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어떤 수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영역이다. 본 영역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 방안에 관해 연구한 이혜숙과 조운정(2019)의 보고서 활용 문항을 참고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설립목표, 시설환경, 교사의 전문성, 예산 및 운영 등으로 나누어 그 필요성을 조사하였다(이혜숙, 조운정, 2019). 이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한 문항으로서, 많은 대안학교와 기관에 있어 필수적인 문항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 영역을 통해 학교와 기관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교사 확대, 시설·환경, 재정적 지원 등 전반적 개선사항들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선택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개선항목에 대한 필요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7) 기타의견

본 영역에서는 대안교육에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개선사항의 필요성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에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과 정책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할 수 있도록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표본설계 및 분석 방법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조사를 위해 전체 2,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전체 4개 영역(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대안교육기관)별로 각 500명의 학생들을 목표로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하였다. 세부적으로 대안교육 참여 중인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웹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은 임의적 추출을 통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설문조사페이지 웹주소를 배포하고 각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들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표집 및 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 대안교육 관련 기관 참여 학생 -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미인가 등록 대안교육기관	
표집틀	2022년 대안학교 목록(2022.04.01. 기준)	
표본수	- 대안교육 관련 기관 참여 학생 약 2,000명 4개 기관 각 500명씩 표집 - 대안학교 : 1개교(50명)×10개교 - 특성화학교 : 1개교(50명)×10개교 - 위탁교육기관 : 1기관(50명)×10개기관 - 대안교육기관 : 1기관(50명)×10개기관	
표집방법	- 표집방법 : 임의표집 - 조사방법 : 학교단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온라인조사)	
조사시기	2023년 5월~7월	

조사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빈도 및 기술 분석을 통해 대상자 특성과 응답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성별, 학교급, 대안교육 참여 기간,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및 기관 유형에 따라 응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평균비교분석(t검증 및 F검증)을 진행하여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크게 2개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개인적 변인(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른 응답의 차이 분석결과와 기관 및 학교에 따른 응답차이분석 결과를 각각 나누어 제시하였다.

4.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들의 배경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총 1,751명의 응답자 중 남자청소년 48.1%, 여자청소년 51.9%로 여자청소년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은 중학생 연령대 35.6%, 고등학생 연령대 64.4%로 고등학생 연령대의 응답자가 더 많았다. 학교 및 기관 유형을 보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응답자의 수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특성화 중고등학교 응답자가 27.2%, 대안 교육기관 19.6%,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17.1% 순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들의 대안교육 참여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 43.0%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0%, 3년 이상 23.4%, 6개월 미만 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842	48.1%
	여	909	51.9%
	계	1,751	100.0%
학교급	중	624	35.6%
	고	1,127	64.4%
	계	1,751	100.0%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632	36.1%
	특성화 중고등학교	476	27.2%
	대안교육기관	344	19.6%
	위탁교육기관	299	17.1%
	계	1,751	100.0%
참여기간	6개월 미만	134	7.6%
	6개월 이상 1년 미만	455	26.0%
	1년 이상 3년 미만	753	43.0%
	3년 이상	409	23.4%

2)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

조사 대상자에게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다. 본인 스스로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의 권유가 38.9%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의 권유 12.1%, 친구의 권유 3.1%, 기타 1.9%, 언론과 SNS 1.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성별, 학교급, 학교 및 기관, 참여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부모님의 권유로 대안교육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 스스로 참여한 경우는 40.4%로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45.1%, 부모님의 권유 35.8%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에 있어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한 응답자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본인 스스로 참여하였다는 응답자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이유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 참여 경험이 3년 미만인 청소년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결정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3년 이상 참여한 학생들은 부모님의 권유로 인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 -4.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본인 스스로	부모님의 권유	선생님의 권유	친구의 권유	언론과 SNS	기타	계
전체		1,043	943	293	74	26	47	2,426
		43.0	38.9	12.1	3.1	1.1	1.9	100.0
성별	남	460	481	128	29	9	32	1,139
		40.4	42.2	11.2	2.6	0.8	2.8	100.0
	여	583	462	168	45	17	17	1,292
		45.1	35.8	13.0	3.5	1.3	1.3	100.0
학교급	중	356	370	85	15	9	23	858
		41.5	43.1	9.9	1.8	1.1	2.7	100.0
	고	687	573	211	59	17	26	1,573
		43.7	36.4	13.4	3.8	1.1	1.7	100.0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02	44	33	8	1	3	191
		53.4	23.0	17.3	4.2	0.5	1.6	100.0
	6개월 이상 1년 미만	256	205	97	21	8	17	604
		42.4	33.9	16.1	3.5	1.3	2.8	100.0
	1년 이상 3년 미만	463	400	135	33	14	25	1,070
		43.3	37.4	12.6	3.1	1.3	2.3	100.0
	3년 이상	222	294	31	12	3	4	566
		39.2	51.9	5.5	2.1	0.5	0.7	100.0

3)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

대안교육 기관 또는 학교에서 경험한 학습 및 활동경험이 본인의 생활 또는 발달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영역은 상담(개인생활, 진로), 진로탐색(상담, 진학 및 진로탐색, 자격증 탐색 및 체험), 학습 및 활동(학습지도, 공동체활동, 학생자치, 생태 및 환경 관련 활동), 관계증진(또래, 교사, 부모 간), 문화체험(음악, 미술, 스포츠, 연극 등)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5개 영역 1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세부 문항별 도움 정도를 살펴보기 전, 전체 문항 평균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평균은 3.98로 최대 평점이 5점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성별과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학교급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평균 4.09, 고등학생 3.92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하여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t값 5.017($p<.001$)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및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학습 및 활동의 종류 또는 제공 방식이 학교급에 따라 차별성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안교육의 효과성과 직결될 수도 있는 학습 및 활동으로부터의 도움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표 Ⅲ-5. 학습 및 활동경험_전체

구분		평균(표준편차)	t / F
전체		3.98(.719)	-
성별	남	3.96(.723)	-.995
	여	4.00(.715)	
학교급	중	4.09(.681)	5.017 ***
	고	3.92(.732)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02(.756)	2.249
	6개월 이상 1년 미만	4.02(.762)	
	1년 이상 3년 미만	3.99(.714)	
	3년 이상	3.90(.663)	

* $p<.05$, ** $p<.01$, *** $p<.001$

학습 및 활동 경험 문항별 응답 결과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생활상담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5.1%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31.4%가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학교급과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은 평균 4.03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3.89로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t값 2.840($p<.01$)으로 유의미였다. 참여기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여한 학생들의 평점이 4.06으로 3년 이상 참여한 학생들의 평점 3.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상담은 특히 참여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1년 이상 대안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상담 진행 시 기존과 다른 방식 또는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6. 학습 및 활동경험_개인생활상담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23	75	434	498	558	1,588	3.94 (.970)	-
		1.5	4.7	27.3	31.4	35.1	100.0		
성별	남	10	31	220	234	269	764	3.94 (.958)	.140
		1.3	4.1	28.8	30.6	35.2	100.0		
	여	13	44	214	264	289	824	3.94 (.981)	
		1.6	5.3	26.0	32.0	35.1	100.0		
학 교 급	중	11	26	122	197	225	581	4.03 (.973)	2.840 **
		1.9	4.5	21.0	33.9	38.7	100.0		
	고	12	49	312	301	333	1,007	3.89 (.965)	
		1.2	4.9	31.0	29.9	33.1	100.0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a)	1	3	35	25	52	116	4.07 (.967)	5.666 **
		0.9	2.6	30.2	21.6	44.8	100.0		
	6개월 이상 1년 미만(b)	5	17	103	113	177	415	4.06 (.972)	
		1.2	4.1	24.8	27.2	42.7	100.0		
	1년 이상 3년 미만(c)	11	33	178	230	226	678	3.92 (.966)	
		1.6	4.9	26.3	33.9	33.3	100.0		
	3년 이상(d)	6	22	118	130	103	379	3.80 (.959)	d<b
		1.6	5.8	31.1	34.3	27.2	100.0		

* α .05, ** α .01, *** α .001

심리검사의 도움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평점은 3.71로 분석되었으며 응답 유형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3.1%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과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3.84, 고등학생 3.65로 중학생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t=3.295$, $p<.01$). 또한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7.516$, $p<.001$).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참여기간이 길수록 낮게 응답되었는데, 대상 청소년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의 경우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전문적인 검사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7. 학습 및 활동경험_심리검사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 3.0	100 7.0	471 33.1	419 29.4	390 27.4	1,423 100.0	3.71 (1.037)
성 별	남	21 3.1	54 7.9	232 34.0	190 27.9	185 27.1	687 100.0	3.68 (1.051)
	여	22 3.0	46 6.2	239 32.3	229 30.9	205 27.7	741 100.0	3.74 (1.024)
학 교 급	중	14 3.0	27 5.7	129 27.5	150 31.9	150 31.9	470 100.0	3.84 (1.034)
	고	29 3.0	73 7.7	342 35.9	269 28.2	240 25.2	953 100.0	3.65 (1.034)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0 0.0	6 5.7	44 41.9	18 17.1	37 35.2	105 100.0	3.82 (.988)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0 2.7	18 4.9	125 33.7	89 24.0	129 34.8	371 100.0	3.83 (1.047)
	1년 이상 3년 미만(c)	21 3.3	45 7.1	182 28.8	213 33.8	170 26.9	631 100.0	3.74 (1.037)
	3년 이상(d)	12 3.8	31 9.8	120 38.0	99 31.3	54 17.1	316 100.0	3.48 (1.009)

* $p<.05$, ** $p<.01$, *** $p<.001$

진로상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전체 대상자 평균은 3.93으로 나타났으며 35.2%의 응답자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뒤이어 31.5%가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66.7%가 진로상담이 본인의 성장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8. 학습 및 활동경험_진로상담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1 2.0	71 4.6	409 26.7	483 31.5	540 35.2	1,534 100.0	3.93 (.991)	-
성 별	남	17 2.3	39 5.2	207 27.6	213 28.4	274 36.5	750 100.0	3.92 (1.024)	-.574
		14 1.8	32 4.1	202 25.8	270 34.4	266 33.9	784 100.0	3.95 (.959)	
	여	11 2.2	23 4.6	125 24.8	166 32.9	179 35.5	504 100.0	3.95 (.991)	
		20 1.9	48 4.7	284 27.6	317 30.8	361 35.1	1,030 100.0	3.92 (.991)	
학 교 급	중	1 0.9	2 1.8	35 30.7	34 29.8	42 36.8	114 100.0	4.00 (.912)	.503
		8 2.1	19 4.9	117 30.0	100 25.6	146 37.4	390 100.0	3.92 (1.024)	
	고	13 1.9	29 4.3	165 24.2	237 34.8	237 34.8	681 100.0	3.96 (.966)	
		9 2.6	21 6.0	92 26.4	112 32.1	115 33.0	349 100.0	3.87 (1.025)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9	2 1.8	35 30.7	34 29.8	42 36.8	114 100.0	4.00 (.912)	.924
		8 2.1	19 4.9	117 30.0	100 25.6	146 37.4	390 100.0	3.92 (1.024)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3 1.9	29 4.3	165 24.2	237 34.8	237 34.8	681 100.0	3.96 (.966)	
		9 2.6	21 6.0	92 26.4	112 32.1	115 33.0	349 100.0	3.87 (1.025)	

* $p<.05$, ** $p<.01$, *** $p<.001$

진학 및 직업 탐색의 도움 정도는 전체 응답자 평균 3.91로 분석되었다. 또한 응답유형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34.6%, “약간 도움이 되었다” 31.8%로 전체 대상자의 66.4%가 진학 및 직업 탐색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학습 및 활동경험_진학 및 직업 탐색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 2.2	82 5.2	411 26.2	499 31.8	543 34.6	1,569 100.0	3.91 (1.003)
성 별	남	18 2.4	38 5.0	214 28.2	222 29.3	266 35.1	758 100.0	3.90 (1.019)
	여	16 2.0	44 5.4	197 24.3	277 34.2	277 34.2	811 100.0	3.93 (.988)
학 교 급	중	13 2.4	29 5.4	126 23.6	179 33.5	188 35.1	535 100.0	3.93 (1.010)
	고	21 2.0	53 5.1	285 27.6	320 31.0	355 34.3	1,034 100.0	3.90 (.999)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0 0.0	1 0.9	43 37.1	29 25.0	43 37.1	116 100.0	3.98 (.884)
	6개월 이상 1년 미만(b)	9 2.2	19 4.7	122 30.1	107 26.4	149 36.7	406 100.0	3.91 (1.024)
	1년 이상 3년 미만(c)	17 2.5	35 5.1	147 21.2	251 36.3	242 35.0	692 100.0	3.96 (.993)
	3년 이상(d)	8 2.3	27 7.6	99 27.9	112 31.5	109 30.7	355 100.0	3.81 (1.029)

* $p<.05$, ** $p<.01$, *** $p<.001$

진로탐색 중 자격증 탐색 및 체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7.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 평균 3.7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과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평균 3.85, 고등학생 평균 3.66으로 중학생이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t값 3.021($p<.01$)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참여 기간에 따라서는 3년 이상 참여한 학생들이 3년 미만의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비하여 도움이 될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14.037$, $p<.001$).

참여기간이 길고 고등학생일수록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 과정에서 탐색과 체험 활동 보다는 자격증 취득과 진로 성취를 위한 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Ⅲ-10. 학습 및 활동경험_자격증 탐색 및 체험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50 3.7	107 8.0	418 31.3	338 25.3	423 31.7	1,336 100.0	3.73 (1.102)	-
성 별	남	29 4.5	45 6.9	231 35.7	147 22.7	196 30.3	648 100.0	3.67 (1.111)	-1.882
	여	21 3.1	62 9.0	187 27.2	191 27.8	227 33.0	688 100.0	3.79 (1.092)	
학 교 급	중	22 4.6	38 7.9	102 21.2	146 30.4	173 36.0	481 100.0	3.85 (1.131)	3.021**
	고	28 3.3	69 8.1	316 37.0	192 22.5	250 29.2	855 49.9	3.66 (1.080)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9	6 5.5	40 36.4	22 20.0	41 37.3	110 100.0	3.87 (1.015)	14.037***
	6개월 이상 1년 미만(b)	8 2.3	17 4.8	119 33.7	77 21.8	132 37.4	353 100.0	3.87 (1.046)	
	1년 이상 3년 미만(c)	15 2.6	51 8.7	159 27.1	175 29.8	187 31.9	587 100.0	3.80 (1.062)	
	3년 이상(d)	26 9.1	33 11.5	100 35.0	64 22.4	63 22.0	286 100.0	3.37 (1.206)	
									d(a,b,c)

* α .05, ** α .01, *** α .001

학습지도 또는 학습코칭 참여에 따른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 3.88이었으며, 응답자의 63.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평균 3.83으로 여학생 평균 3.93보다 낮았으며, 중학생은 평균 4.02로 고등학생 평균 3.81 보다 높았다. 참여기간은 6개월 미만이 평균 4.06으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상이 평균 3.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학습 및 활동경험_학습지도, 학습코칭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2 2.0	74 4.6	479 29.7	491 30.4	537 33.3	1,613 100.0	3.88 (.990)	-	
성 별	남	20 2.6	35 4.5	242 31.1	238 30.6	243 31.2	778 100.0	3.83 (1.004)	-1.980*	
		여	12 1.4	39 4.7	237 28.4	253 30.3	294 35.2	835 100.0		3.93 (.974)
	중		15 2.5	26 4.4	131 22.2	182 30.8	237 40.1	591 100.0		4.02 (1.014)
		고	17 1.7	48 4.7	348 34.1	309 30.2	300 29.4	1,022 100.0		3.81 (.968)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9	2 1.7	36 31.0	27 23.3	50 43.1	116 100.0	4.06 (.944)	3.331*
		6개월 이상 1년 미만(b)	7 1.7	12 2.8	138 32.6	98 23.1	169 39.9	424 100.0	3.97 (.994)	
	1년 이상 3년 미만(c)		18 2.6	42 6.0	196 28.1	214 30.7	228 32.7	698 100.0	3.85 (1.029)	
		3년 이상(d)	6 1.6	18 4.8	109 29.1	152 40.5	90 24.0	375 100.0	3.81 (.912)	

* α .05, ** α .01, *** α .001

학습 및 활동 영역 중 공동체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움 정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4.10으로 대상자의 72.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평균 4.28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4.00으로 중학생에 비하여 낮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t값 5.68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12. 학습 및 활동경험_공동체 활동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42 2.5	67 3.9	361 21.0	447 26.1	799 46.6	1,716 100.0	4.10 (1.021)	-
성 별	남	19 2.3	25 3.0	181 21.9	209 25.3	391 47.4	825 100.0	4.12 (1.004)	.824
		23 2.6	42 4.7	180 20.2	238 26.7	408 45.8	891 100.0	4.08 (1.037)	
	여	23 2.6	42 4.7	180 20.2	238 26.7	408 45.8	891 100.0	4.08 (1.037)	
		23 2.6	42 4.7	180 20.2	238 26.7	408 45.8	891 100.0	4.08 (1.037)	
학 교 급	중	10 1.6	18 2.9	91 14.9	163 26.6	331 54.0	613 100.0	4.28 (.935)	5.684***
		32 2.9	49 4.4	270 24.5	284 25.8	468 42.4	1,103 100.0	4.00 (1.053)	
	고	32 2.9	49 4.4	270 24.5	284 25.8	468 42.4	1,103 100.0	4.00 (1.053)	
		32 2.9	49 4.4	270 24.5	284 25.8	468 42.4	1,103 100.0	4.00 (1.053)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2 1.6	4 3.2	38 30.7	30 24.2	50 40.3	124 100.0	3.98 (.996)	2.349
		12 2.7	13 2.9	123 27.6	97 21.8	201 45.1	446 100.0	4.04 (1.042)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2 2.7	13 2.9	123 27.6	97 21.8	201 45.1	446 100.0	4.04 (1.042)	
		25 3.4	31 4.2	138 18.6	188 25.3	360 48.5	742 100.0	4.11 (1.063)	
	1년 이상 3년 미만(c)	25 3.4	31 4.2	138 18.6	188 25.3	360 48.5	742 100.0	4.11 (1.063)	
		3 0.7	19 4.7	62 15.3	132 32.7	188 46.5	404 100.0	4.20 (.915)	
	3년 이상(d)	3 0.7	19 4.7	62 15.3	132 32.7	188 46.5	404 100.0	4.20 (.915)	
		3 0.7	19 4.7	62 15.3	132 32.7	188 46.5	404 100.0	4.20 (.915)	

* α .05, ** α .01, *** α .001

학생차지 및 참여활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평균은 4.10으로 공동체활동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 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자청소년(4.04)보다는 여자청소년(4.15)이, 고등학생(4.01) 보다는 중학생(4.25)이 자치 및 참여활동으로부터 더욱 도움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학습 및 활동경험_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25 1.5	45 2.7	397 24.1	462 28.0	720 43.7	1,649 100.0	4.10 (.956)	-
성 별	남	15 1.9	27 3.4	201 25.5	216 27.4	329 41.8	788 100.0	4.04 (.990)	-2.401*
		10 1.2	18 2.1	196 22.8	246 28.6	391 45.4	861 100.0	4.15 (.921)	
	여	10 1.2	18 2.1	196 22.8	246 28.6	391 45.4	861 100.0	4.15 (.921)	
		10 1.2	18 2.1	196 22.8	246 28.6	391 45.4	861 100.0	4.15 (.921)	
학 교 급	중	8 1.3	13 2.2	101 16.8	181 30.1	299 49.7	602 100.0	4.25 (.901)	4.864***
		17 1.6	32 3.1	296 28.3	281 26.8	421 40.2	1,047 100.0	4.01 (.977)	
	고	17 1.6	32 3.1	296 28.3	281 26.8	421 40.2	1,047 100.0	4.01 (.977)	
		17 1.6	32 3.1	296 28.3	281 26.8	421 40.2	1,047 100.0	4.01 (.977)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0 0.0	2 1.8	43 37.7	24 21.1	45 39.5	114 100.0	3.98 (.922)	1.134
		0 0.0	2 1.8	43 37.7	24 21.1	45 39.5	114 100.0	3.98 (.922)	
	6개월 이상 1년 미만(b)	5 1.2	7 1.7	126 29.7	107 25.2	179 42.2	424 100.0	4.06 (.944)	
		5 1.2	7 1.7	126 29.7	107 25.2	179 42.2	424 100.0	4.06 (.944)	
	1년 이상 3년 미만(c)	16 2.2	17 2.4	163 22.6	199 27.6	326 45.2	721 100.0	4.11 (.980)	
		16 2.2	17 2.4	163 22.6	199 27.6	326 45.2	721 100.0	4.11 (.980)	
	3년 이상(d)	4 1.0	19 4.9	65 16.7	132 33.8	170 43.6	390 100.0	4.14 (.934)	
		4 1.0	19 4.9	65 16.7	132 33.8	170 43.6	390 100.0	4.14 (.934)	

* $p < .05$, ** $p < .01$, *** $p < .001$

생태 및 환경 관련 활동의 도움 정도에 대해 질문 한 결과 전체 응답자 평균 3.92로 나타났으며, 응답유형에 있어 전체 응답자의 64.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동체 및 자치참여 활동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본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 평균 4.01으로 고등학생 평균 3.88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t값 2.474($p<.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생태 및 환경과 관련된 활동은 현재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표 III-14. 학습 및 활동경험_생태·환경 관련 활동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44 2.7	67 4.1	465 28.5	450 27.6	607 37.2	1,633 100.0	3.92 (1.029)	-
성 별	남	25 3.2	28 3.6	232 29.5	208 26.4	294 37.4	787 100.0	3.91 (1.044)	-.445
	여	19 2.3	39 4.6	233 27.5	242 28.6	313 37.0	846 100.0	3.93 (1.014)	
학 교 급	중	18 3.0	30 5.0	131 21.9	171 28.6	249 41.6	599 100.0	4.01 (1.052)	2.474*
	고	26 2.5	37 3.6	334 32.3	279 27.0	358 34.6	1,034 100.0	3.88 (1.012)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0 0.0	2 1.8	42 36.8	24 21.1	46 40.4	114 100.0	4.00 (.922)	2.318
	6개월 이상 1년 미만(b)	7 1.7	8 1.9	130 31.3	96 23.1	174 41.9	415 100.0	4.02 (.982)	
	1년 이상 3년 미만(c)	22 3.1	29 4.1	201 28.2	204 28.6	257 36.0	713 100.0	3.90 (1.037)	
	3년 이상(d)	15 3.8	28 7.2	92 23.5	126 32.2	130 33.2	391 100.0	3.84 (1.085)	

* α .05, ** α .01, *** α .001

관계증진 영역 첫 번째인 또래관계 증진(멘토링 등)의 도움정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평균은 3.9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은 평균 4.07, 고등학생은 평균 3.88로 나타나,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t=3.583, p<.001$).

표 III-15. 학습 및 활동경험_또래관계 증진(멘토링 등)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6 2.3	75 4.8	427 27.0	436 27.6	606 38.4	1,580 100.0	3.95 (1.023)	-	
성 별	남	17 2.2	36 4.7	209 27.2	202 26.3	305 39.7	769 100.0	3.96 (1.027)	.563	
		19 2.3	39 4.8	218 26.9	234 28.9	301 37.1	811 100.0	3.94 (1.020)		
	여	13 2.3	21 3.7	116 20.2	187 32.6	237 41.3	574 100.0	4.07 (.981)		3.583***
		23 2.3	54 5.4	311 30.9	249 24.8	369 36.7	1,006 100.0	3.88 (1.041)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9	3 2.8	37 33.9	23 21.1	45 41.3	109 100.0	3.99 (.977)	1.207	
		9 2.3	13 3.3	117 29.3	87 21.8	173 43.4	399 100.0	4.01 (1.031)		
	6개월 이상 1년 미만(b)	20 2.9	36 5.2	170 24.4	202 29.0	269 38.6	697 100.0	3.95 (1.046)		
		6 1.6	23 6.1	103 27.5	124 33.1	119 31.7	375 100.0	3.87 (.984)		
	1년 이상 3년 미만(c)									
	3년 이상(d)									

* $p<.05$, ** $p<.01$, *** $p<.001$

사제동행 등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73.3%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평균은 4.1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과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 평균 4.28, 고등학생 평균 4.08로 차이를 보였으며($t=4.034$, $p<.001$) 참여기간에 있어서는 3년 이상(4.02)에 비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여 청소년이 평균 4.22로 높게 나타났다($F=3.925$, $p<.01$).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사-학생 간 소통 활동에 대한 도움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III-16. 학습 및 활동경험_교사-학생 간 소통(사제동행 등)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3 2.0	54 3.2	363 21.5	411 24.4	824 48.9	1,685 100.0	4.15 (.993)	-
성 별	남	19 2.3	15 1.8	182 22.4	210 25.8	388 47.7	814 100.0	4.15 (.982)	-.182
	여	14 1.6	39 4.5	181 20.8	201 23.1	436 50.1	871 100.0	4.15 (1.005)	
학 교 급	중	8 1.3	22 3.6	91 15.0	157 26.0	327 54.1	605 100.0	4.28 (.938)	4.034***
	고	25 2.3	32 3.0	272 25.2	254 23.5	497 46.0	1,080 100.0	4.08 (1.017)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2 1.6	1 0.8	26 20.6	28 22.2	69 54.8	126 100.0	4.28 (.926)	3.925**
	6개월 이상 1년 미만(b)	6 1.4	5 1.2	104 23.9	91 20.9	230 52.8	436 100.0	4.22 (.942)	
	1년 이상 3년 미만(c)	16 2.2	28 3.9	140 19.4	181 25.0	358 49.5	723 100.0	4.16 (1.010)	
	3년 이상(d)	9 2.3	20 5.0	93 23.3	111 27.8	167 41.8	400 100.0	4.02 (1.027)	d<b

* α .05, ** α .01, *** α .001

가족상담 등 부모와 자녀 간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평균은 3.85로 나타났으며 응답유형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60.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참여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3년 이상 참여 청소년의 경우 평균 3.71이었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여 청소년은 평균 3.93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901$, $p<.01$).

표 III-17. 학습 및 활동경험_부모-자녀 관계 증진(가족상담 등)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2 2.2	93 6.4	449 30.7	379 25.9	512 35.0	1,465 100.0	3.85 (1.042)	-	
성 별	남	19 2.6	51 7.0	233 31.7	181 24.7	250 34.1	734 100.0	3.81 (1.064)	-1.620	
		13 1.8	42 5.8	216 29.6	198 27.1	262 35.8	731 100.0	3.89 (1.017)		
	여	19 3.7	31 6.1	131 25.6	130 25.4	201 39.3	512 100.0	3.90 (1.104)		1.449
		13 1.4	62 6.5	318 33.4	249 26.1	311 32.6	953 100.0	3.82 (1.006)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0 0.0	8 7.0	30 26.1	30 26.1	47 40.9	115 100.0	4.01 (.978)	3.901**	
		9 2.4	12 3.2	123 32.4	87 22.9	149 39.2	380 100.0	3.93 (1.027)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4 2.2	46 7.4	177 28.3	171 27.4	217 34.7	625 100.0	3.85 (1.051)		
		9 2.6	27 7.8	119 34.5	91 26.4	99 28.7	345 100.0	3.71 (1.047)		d<b
	1년 이상 3년 미만(c)	9 2.6	27 7.8	119 34.5	91 26.4	99 28.7	345 100.0	3.71 (1.047)		
		3년 이상(d)	9 2.6	27 7.8	119 34.5	91 26.4	99 28.7	345 100.0	3.71 (1.047)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문화체험 영역인 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체험 등에 대한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4.1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유형은 전체 대상자의 72.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성별에 있어 여자청소년이 평점 4.19로 남자청소년 4.06보다 높게 나타났다($t=-2.720$, $p<.01$). 학교급에 있어 중학생이 평점 4.24로 고등학생 4.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3.480$, $p<.01$) 참여기간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 참여한 청소년이 3년 이상 참여한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도움 정도를 보였다($F=5.997$, $p<.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음악, 미술, 공예와 같은 예술 활동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스포츠 활동에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에 따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러한 긍정적이 경험이 대안교육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맞는 활동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표 III-18. 학습 및 활동경험_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25 1.5	53 3.2	376 22.4	451 26.9	771 46.0	1,676 100.0	4.13 (.964)	-
성 별	남	13 1.6	24 3.0	195 24.3	240 29.9	331 41.2	803 100.0	4.06 (.958)	-2.720**
	여	12 1.4	29 3.3	181 20.7	211 24.2	440 50.4	873 100.0	4.19 (.966)	
학 교 급	중	11 1.8	20 3.3	101 16.7	156 25.8	317 52.4	605 100.0	4.24 (.966)	3.480**
	고	14 1.3	33 3.1	275 25.7	295 27.5	454 42.4	1,071 100.0	4.07 (.958)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8	1 0.8	36 29.3	27 22.0	58 47.2	123 100.0	4.14 (.926)	5.997***
	6개월 이상 1년 미만(b)	7 1.6	16 3.7	105 24.2	98 22.6	208 47.9	434 100.0	4.12 (1.001)	
	1년 이상 3년 미만(c)	8 1.1	16 2.2	142 19.6	200 27.6	358 49.5	724 100.0	4.22 (.911)	
	3년 이상(d)	9 2.3	20 5.1	93 23.5	126 31.9	147 37.2	395 100.0	3.97 (1.008)	d<c

* $p<.05$, ** $p<.01$, *** $p<.001$

문화체험 영역 중 스포츠 활동의 도움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4.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유형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73.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본 결과는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미술 등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여자청소년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스포츠 활동의 경우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t=4.797$, $p<.001$).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욱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t=4.825$, $p<.001$).

표 III-19. 학습 및 활동경험_스포츠 활동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0 1.8	51 3.0	367 21.9	463 27.6	768 45.7	1,679 100.0	4.12 (.971)	-
성 별	남	11 1.4	18 2.2	148 18.2	223 27.4	413 50.8	813 100.0	4.24 (.918)	4.797***
		19 2.2	33 3.8	219 25.3	240 27.7	355 41.0	866 100.0	4.02 (1.007)	
	여	10 1.6	11 1.8	103 16.8	165 27.0	323 52.8	612 100.0	4.27 (.914)	
		20 1.9	40 3.8	264 24.7	298 27.9	445 41.7	1,067 100.0	4.04 (.991)	
학 교 급	중	2 1.7	3 2.5	33 27.3	34 28.1	49 40.5	121 100.0	4.03 (.966)	3.102*
		9 2.1	13 3.0	112 26.0	103 23.9	194 45.0	431 100.0	4.07 (1.008)	
	고	11 1.5	20 2.8	146 20.1	180 24.8	369 50.8	726 100.0	4.21 (.956)	
		8 2.0	15 3.7	76 19.0	146 36.4	156 38.9	401 100.0	4.06 (.952)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2 1.7	3 2.5	33 27.3	34 28.1	49 40.5	121 100.0	4.03 (.966)	3.102*
		9 2.1	13 3.0	112 26.0	103 23.9	194 45.0	431 100.0	4.07 (1.008)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1 1.5	20 2.8	146 20.1	180 24.8	369 50.8	726 100.0	4.21 (.956)	
		8 2.0	15 3.7	76 19.0	146 36.4	156 38.9	401 100.0	4.06 (.952)	

* $p<.05$, ** $p<.01$, *** $p<.001$

연극, 뮤지컬 등 공연관람 등의 문화체험과 관련하여 도움 받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평균 4.06으로 다른 문화체험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71.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자청소년 평균이 4.14로 남자청소년 평균 3.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3.701$, $p<.001$), 학교급에서 중학생 평균 4.16으로 고등학생 평균 4.00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t=3.053$, $p<.01$).

표 III-20. 학습 및 활동경험_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28 1.7	65 4.1	369 23.0	470 29.3	674 42.0	1,606 100.0	4.06 (.983)	-
성 별	남	12 1.6	39 5.1	204 26.6	224 29.2	289 37.6	768 100.0	3.96 (.993)	-3.701***
	여	16 1.9	26 3.1	165 19.7	246 29.4	385 45.9	838 100.0	4.14 (.966)	
학 교 급	중	13 2.3	23 4.0	102 17.8	159 27.7	277 48.3	574 100.0	4.16 (1.001)	3.053**
	고	15 1.5	42 4.1	267 25.9	311 30.1	397 38.5	1,032 100.0	4.00 (.968)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0 0.0	2 1.7	23 20.0	36 31.3	54 47.0	115 100.0	4.23 (.831)	2.774*
	6개월 이상 1년 미만(b)	7 1.7	12 3.0	108 26.7	85 21.0	192 47.5	404 100.0	4.10 (1.005)	
	1년 이상 3년 미만(c)	11 1.6	33 4.7	150 21.4	217 31.0	290 41.4	701 100.0	4.06 (.977)	
	3년 이상(d)	10 2.6	18 4.7	88 22.8	132 34.2	138 35.8	386 100.0	3.96 (1.003)	

* $p<.05$, ** $p<.01$, *** $p<.001$

문화체험 영역 네 번째 항목인 여행과 캠프 참여의 도움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평균은 4.2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76.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여자 청소년 평균은 4.28로 남자청소년 평균 4.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72$, $p<.05$). 학교급에서 중학생은 평균 4.3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도 4.15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학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t=4.509$, $p<.001$).

여행, 캠프와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야외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와 기관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긍정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I-21. 학습 및 활동경험_여행, 캠프

(단위 :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25 1.6	30 1.9	326 20.2	393 24.4	839 52.0	1,613 100.0	4.23 (.939)	-
성 별	남	14 1.8	17 2.2	172 21.8	194 24.6	392 49.7	789 100.0	4.18 (.964)	-2.172*
	여	11 1.3	13 1.6	154 18.7	199 24.2	447 54.3	824 100.0	4.28 (.913)	
학 교 급	중	12 2.0	12 2.0	79 13.3	132 22.2	360 60.5	595 100.0	4.37 (.929)	4.509***
	고	13 1.3	18 1.8	247 24.3	261 25.6	479 47.1	1,018 100.0	4.15 (.936)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1.0	1 1.0	29 28.4	20 19.6	51 50.0	102 100.0	4.17 (.945)	.200
	6개월 이상	6	4	96	83	216	405	4.23	
	1년 미만(b)	1.5	1.0	23.7	20.5	53.3	100.0	(.944)	
	1년 이상	11	12	145	169	372	709	4.24	
	3년 미만(c)	1.6	1.7	20.5	23.8	52.5	100.0	(.938)	
	3년 이상(d)	7 1.8	13 3.3	56 14.1	121 30.5	200 50.4	397 100.0	4.14 (.936)	

* $p<.05$, ** $p<.01$, *** $p<.001$

5)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 정도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등과 같이 대안교육 참여를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전체평균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은 5점 만점 중 평균 3.9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변화 정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평균 3.96에 비하여 중학생 평균이 4.05로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의 긍정적인 변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t=2.400$, $p<.05$). 교급별로 나타나는 변화정도의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표 III-22. 전반적인 변화_전체

(단위 : 명, %)

구분		평균(표준편차)	t / F
전체		3.98(.780)	-
성별	남	3.97(.780)	-1.140
	여	4.01(.787)	
학교급	중	4.05(.794)	2.400*
	고	3.96(.776)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05(.743)	1.022
	6개월 이상 1년 미만	4.00(.805)	
	1년 이상 3년 미만	4.01(.807)	
	3년 이상	.394(.724)	

* $p<.05$, ** $p<.01$, *** $p<.001$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 첫 번째 질문인 “친구 및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 평균은 총 5점 만점 중 4.18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76.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평균 4.24로 여자청소년 평균 4.1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t=2.680, p<.01$). 학교급에 있어 중학생의 경우 평균 4.28로 고등학생 평균 4.12보다 높게 나타났다($t=3.332, p<.01$).

표 Ⅲ-23. 전반적인 변화_친구 및 선생님들의 관계가 좋아졌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3 1.9	44 2.5	327 18.7	519 29.6	828 47.3	1,751 100.0	4.18 (.948)	
성 별	남	13 1.5	15 1.8	144 17.1	253 30.1	417 49.5	842 100.0	4.24 (.905)	2.680**
		20 2.2	29 3.2	183 20.1	266 29.3	411 45.2	909 100.0	4.12 (.983)	
	여	20 2.2	29 3.2	183 20.1	266 29.3	411 45.2	909 100.0	4.12 (.983)	
		20 2.2	29 3.2	183 20.1	266 29.3	411 45.2	909 100.0	4.12 (.983)	
학 교 급	중	14 2.2	10 1.6	92 14.7	179 28.7	329 52.7	624 100.0	4.28 (.919)	3.332**
		19 1.7	34 3.0	235 20.9	340 30.2	499 44.3	1,127 100.0	4.12 (.954)	
	고	19 1.7	34 3.0	235 20.9	340 30.2	499 44.3	1,127 100.0	4.12 (.954)	
		19 1.7	34 3.0	235 20.9	340 30.2	499 44.3	1,127 100.0	4.12 (.954)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7	3 2.2	26 19.4	37 27.6	67 50.0	134 100.0	4.24 (.894)	.864
		1 0.7	3 2.2	26 19.4	37 27.6	67 50.0	134 100.0	4.24 (.894)	
	6개월 이상 1년 미만(b)	7 1.5	9 2.0	95 20.9	113 24.8	231 50.8	455 100.0	4.21 (.944)	
		7 1.5	9 2.0	95 20.9	113 24.8	231 50.8	455 100.0	4.21 (.944)	
	1년 이상 3년 미만(c)	20 2.7	25 3.3	127 16.9	209 27.8	372 49.4	753 100.0	4.18 (1.002)	
		20 2.7	25 3.3	127 16.9	209 27.8	372 49.4	753 100.0	4.18 (1.002)	
	3년 이상(d)	5 1.2	7 1.7	79 19.3	160 39.1	158 38.6	409 100.0	4.12 (.863)	
		5 1.2	7 1.7	79 19.3	160 39.1	158 38.6	409 100.0	4.12 (.863)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 이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평균은 3.78로 변화 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의 60.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 여자청소년의 경우 평균 3.85로 남자청소년 평균 3.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08$, $p<.05$). 참여기간이 3년 이상인 대상자의 경우 6개월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참여자보다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F=4.615$, $p<.01$).

표 III-24. 전반적인 변화_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78 4.5	152 8.7	456 26.0	457 26.1	608 34.7	1,751 100.0	3.78 (1.144)	
성 별	남	45 5.3	79 9.4	231 27.4	211 25.1	276 32.8	842 100.0	3.71 (1.172)	-2.608*
		33 3.6	73 8.0	225 24.8	246 27.1	332 36.5	909 100.0	3.85 (1.113)	
	여	37 5.9	70 11.2	125 20.0	150 24.0	242 38.8	624 100.0	3.79 (1.236)	.150
		41 3.6	82 7.3	331 29.4	307 27.2	366 32.5	1,127 100.0	3.78 (1.090)	
학 교 급	중	37 5.9	70 11.2	125 20.0	150 24.0	242 38.8	624 100.0	3.79 (1.236)	.150
		41 3.6	82 7.3	331 29.4	307 27.2	366 32.5	1,127 100.0	3.78 (1.090)	
	고	37 5.9	70 11.2	125 20.0	150 24.0	242 38.8	624 100.0	3.79 (1.236)	.150
		41 3.6	82 7.3	331 29.4	307 27.2	366 32.5	1,127 100.0	3.78 (1.090)	
	6개월 미만(a)	4 3.0	9 6.7	34 25.4	30 22.4	57 42.5	134 100.0	3.95 (1.106)	4.615**
		18 4.0	34 7.5	126 27.7	110 24.2	167 36.7	455 100.0	3.82 (1.127)	
	6개월 이상 1년 미만(b)	35 4.6	70 9.3	170 22.6	200 26.6	278 36.9	753 100.0	3.82 (1.164)	d(a,c)
		21 5.1	39 9.5	126 30.8	117 28.6	106 25.9	409 100.0	3.61 (1.122)	

* $p<.05$, ** $p<.01$, *** $p<.001$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1.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응답평균은 3.8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보였으나($F=2.724$, $p<.05$)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25. 전반적인 변화_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72 4.1	140 8.0	460 26.3	476 27.2	603 34.4	1,751 100.0	3.80 (1.121)	
성 별	남	41 4.9	70 8.3	220 26.1	221 26.3	290 34.4	842 100.0	3.77 (1.151)	-.990
	여	31 3.4	70 7.7	240 26.4	255 28.1	313 34.4	909 100.0	3.82 (1.093)	
학 교 급	중	30 4.8	62 9.9	153 24.5	160 25.6	219 35.1	624 100.0	3.76 (1.171)	-.969
	고	42 3.7	78 6.9	307 27.2	316 28.0	384 34.1	1,127 100.0	3.82 (1.092)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3 2.2	5 3.7	45 33.6	28 20.9	53 39.6	134 100.0	3.92 (1.041)	2.724*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2 2.6	36 7.9	138 30.3	94 20.7	175 38.5	455 100.0	3.84 (1.105)	
	1년 이상 3년 미만(c)	33 4.4	55 7.3	182 24.2	227 30.1	256 34.0	753 100.0	3.82 (1.113)	
	3년 이상(d)	24 5.9	44 10.8	95 23.2	127 31.1	119 29.1	409 100.0	3.67 (1.172)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 이후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평균은 4.0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평균 4.11, 고등학생 평균 3.99로 중학생이 더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의 경우 사후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공동체를 통해 사회를 배우는 대안교육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은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와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Ⅲ-26. 전반적인 변화_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9 2.2	87 5.0	382 21.8	513 29.3	730 41.7	1,751 100.0	4.03 (1.017)	
성 별	남	16 1.9	39 4.6	192 22.8	250 29.7	345 41.0	842 100.0	4.03 (.997)	-.019
	여	23 2.5	48 5.3	190 20.9	263 28.9	385 42.4	909 100.0	4.03 (1.053)	
학 교 급	중	19 3.0	30 4.8	109 17.5	174 27.9	292 46.8	624 100.0	4.11 (1.049)	2.245*
	고	20 1.8	57 5.1	273 24.2	339 30.1	438 38.9	1,127 100.0	3.99 (.997)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7	3 2.2	32 23.9	32 23.9	66 49.3	134 100.0	4.19 (.927)	3.156*
	6개월 이상	5	22	103	120	205	455	4.09	
	1년 미만(b)	1.1	4.8	22.6	26.4	45.1	100.0	(.981)	
	1년 이상	25	38	149	221	320	753	4.03	
	3년 미만(c)	3.3	5.0	19.8	29.3	42.5	100.0	(1.060)	
	3년 이상(d)	8 2.0	24 5.9	98 24.0	140 34.2	139 34.0	409 100.0	3.92 (.993)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를 통해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5.3%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평균은 3.93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27.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54 3.1	85 4.9	469 26.8	459 26.2	684 39.1	1,751 100.0	3.93 (1.061)		
성 별	남	23 2.7	34 4.0	238 28.3	217 25.8	330 39.2	842 100.0	3.95 (1.035)	.057	
		31 3.4	51 5.6	231 25.4	242 26.6	354 38.9	909 100.0	3.92 (1.082)		
	여	23 3.7	34 5.5	143 22.9	157 25.2	267 42.8	624 100.0	3.98 (1.099)		1.349
		31 2.8	51 4.5	326 28.9	302 26.8	417 37.0	1,127 100.0	3.91 (1.039)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3 2.2	2 1.5	39 29.1	33 24.6	57 42.5	134 100.0	4.04 (.992)	1.356	
		11 2.4	21 4.6	137 30.1	94 20.7	192 42.2	455 100.0	3.96 (1.061)		
	6개월 이상 1년 미만(b)	27 3.6	39 5.2	186 24.7	197 26.2	304 40.4	753 100.0	3.95 (1.086)		
		13 3.2	23 5.6	107 26.2	135 33.0	131 32.0	409 100.0	3.85 (1.036)		
	1년 이상 3년 미만(c)									
	3년 이상(d)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지는 변화를 경험하였는 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 평균은 4.13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평균 4.19,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4.10으로 중학생의 변화 체감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 값 2.016($p<.05$)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Ⅲ-28. 전반적인 변화_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 1.3	42 2.4	354 20.2	591 33.8	741 42.3	1,751 100.0	4.13 (.907)
성 별	남	12 1.4	19 2.3	176 20.9	284 33.7	351 41.7	842 100.0	4.12 (.912)
		11 1.2	23 2.5	178 19.6	307 33.8	390 42.9	909 100.0	4.15 (.902)
	여							
학 교 급	중	8 1.3	15 2.4	110 17.6	207 33.2	284 45.5	624 100.0	4.19 (.898)
		15 1.3	27 2.4	244 21.7	384 34.1	457 40.6	1,127 100.0	4.10 (.910)
	고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0 0.0	2 1.5	26 19.4	44 32.8	62 46.3	134 100.0	4.24 (.815)
	6개월 이상 1년 미만(b)	5 1.1	11 2.4	108 23.7	132 29.0	199 43.7	455 100.0	4.12 (.926)
	1년 이상 3년 미만(c)	15 2.0	21 2.8	143 19.0	251 33.3	323 42.9	753 100.0	4.12 (9.46)
	3년 이상(d)	3 0.7	8 2.0	77 18.8	164 40.1	157 38.4	409 100.0	4.13 (.837)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 이후 경험한 변화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72.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 평균은 4.0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경우 평균 4.14로 고등학생 평균 4.02보다 높게 응답되었으며 t값 2.464($p<.05$)로 유의미하였다.

표 Ⅲ-29. 전반적인 변화_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 2.1	59 3.4	385 22.0	556 31.8	715 40.8	1,751 100.0	4.06 (.972)
성 별	남	19 2.3	32 3.8	184 21.9	265 31.5	342 40.6	842 100.0	4.04 (.989)
		17 1.9	27 3.0	201 22.1	291 32.0	373 41.0	909 100.0	4.07 (.956)
	여	19 2.3	32 3.8	184 21.9	265 31.5	342 40.6	842 100.0	4.04 (.989)
		17 1.9	27 3.0	201 22.1	291 32.0	373 41.0	909 100.0	4.07 (.956)
학 교 급	중	14 2.2	23 3.7	105 16.8	204 32.7	278 44.6	624 100.0	4.14 (.973)
		22 2.0	36 3.2	280 24.8	352 31.2	437 38.8	1,127 100.0	4.02 (.970)
	고	14 2.2	23 3.7	105 16.8	204 32.7	278 44.6	624 100.0	4.14 (.973)
		22 2.0	36 3.2	280 24.8	352 31.2	437 38.8	1,127 100.0	4.02 (.970)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7	5 3.7	31 23.1	33 24.6	64 47.8	134 100.0	4.15 (.954)
		8 1.8	12 2.6	118 25.9	124 27.3	193 42.4	455 100.0	4.06 (.973)
	6개월 이상 1년 미만(b)	21 2.8	27 3.6	150 19.9	244 32.4	311 41.3	753 100.0	4.06 (1.002)
		6 1.5	15 3.7	86 21.0	155 37.9	147 35.9	409 100.0	4.03 (.922)
	1년 이상 3년 미만(c)	21 2.8	27 3.6	150 19.9	244 32.4	311 41.3	753 100.0	4.06 (1.002)
		6 1.5	15 3.7	86 21.0	155 37.9	147 35.9	409 100.0	4.03 (.922)
	3년 이상(d)	6 1.5	15 3.7	86 21.0	155 37.9	147 35.9	409 100.0	4.03 (.922)
		21 2.8	27 3.6	150 19.9	244 32.4	311 41.3	753 100.0	4.06 (1.002)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 이후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평균은 3.97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7.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있어 여자청소년은 평균 4.04점으로 남자청소년 평균 3.90보다 높게 나타났다($t=-2.915$, $p<.01$).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은 4.08의 평균을 보였으나 고등학생은 3.91로 중학생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t=3.345$, $p<.01$). 대안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대표적 가치인 리더십과 협동심이 성별과 교급에 상관없이 향상될 수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30. 전반적인 변화_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41 2.3	89 5.1	447 25.5	474 27.1	700 40.0	1,751 100.0	3.97 (1.034)	
성 별	남	16 1.9	57 6.8	237 28.2	219 26.0	313 37.2	842 100.0	3.90 (1.042)	-2.915**
		25 2.8	32 3.5	210 23.1	255 28.1	387 42.6	909 100.0	4.04 (1.022)	
	여	25 2.8	32 3.5	210 23.1	255 28.1	387 42.6	909 100.0	4.04 (1.022)	
		25 2.8	32 3.5	210 23.1	255 28.1	387 42.6	909 100.0	4.04 (1.022)	
학 교 급	중	13 2.1	37 5.9	119 19.1	171 27.4	284 45.5	624 100.0	4.08 (1.032)	3.345**
		28 2.5	52 4.6	328 29.1	303 26.9	416 36.9	1,127 100.0	3.91 (1.030)	
	고	28 2.5	52 4.6	328 29.1	303 26.9	416 36.9	1,127 100.0	3.91 (1.030)	
		28 2.5	52 4.6	328 29.1	303 26.9	416 36.9	1,127 100.0	3.91 (1.030)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4 3.0	7 5.2	46 34.3	32 23.9	45 33.6	134 100.0	3.80 (1.060)	2.621*
		4 3.0	7 5.2	46 34.3	32 23.9	45 33.6	134 100.0	3.80 (1.060)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2 2.6	22 4.8	145 31.9	93 20.4	183 40.2	455 100.0	3.91 (1.070)	
		12 2.6	22 4.8	145 31.9	93 20.4	183 40.2	455 100.0	3.91 (1.070)	
	1년 이상 3년 미만(c)	20 2.7	35 4.6	165 21.9	224 29.7	309 41.0	753 100.0	4.02 (1.027)	
		20 2.7	35 4.6	165 21.9	224 29.7	309 41.0	753 100.0	4.02 (1.027)	
	3년 이상(d)	5 1.2	25 6.1	91 22.2	125 30.6	163 39.9	409 100.0	4.02 (.989)	
		5 1.2	25 6.1	91 22.2	125 30.6	163 39.9	409 100.0	4.02 (.989)	

* $p<.05$, ** $p<.01$, *** $p<.001$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갖도록 변화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평균은 4.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평균 4.13이고, 여자청소년은 그보다 높은 4.24로 차이를 보였다($t=-2.582, p<.05$). 학교급에서 중학생은 4.2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고등학생은 그보다 낮은 4.15로 나타나 두 교급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t=2.219, p<.05$).

표 III-31. 전반적인 변화_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21 1.2	42 2.4	335 19.1	549 31.4	804 45.9	1,751 100.0	4.18 (.906)	
성 별	남	10 1.2	22 2.6	173 20.6	284 33.7	353 41.9	842 100.0	4.13 (.906)	-2.582*
	여	11 1.2	20 2.2	162 17.8	265 29.2	451 49.6	909 100.0	4.24 (.903)	
학 교 급	중	11 1.8	18 2.9	93 14.9	185 29.7	317 50.8	624 100.0	4.25 (.933)	2.219*
	고	10 0.9	24 2.1	242 21.5	364 32.3	487 43.2	1,127 100.0	4.15 (.889)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7	2 1.5	34 25.4	38 28.4	59 44.0	134 100.0	4.13 (.899)	.484
	6개월 이상 1년 미만(b)	5 1.1	8 1.8	111 24.4	120 26.4	211 46.4	455 100.0	4.15 (.925)	
	1년 이상 3년 미만(c)	12 1.6	22 2.9	123 16.3	241 32.0	355 47.1	753 100.0	4.20 (.925)	
	3년 이상(d)	3 0.7	10 2.4	67 16.4	150 36.7	179 43.8	409 100.0	4.20 (.852)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 이후 학생자치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 평균은 3.96이었다. 본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성별에서 남자청소년은 3.90의 평균을 보인데 반해 여자청소년은 4.02로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t=-2.361$, $p<.05$). 학교급에 있어서 중학생은 4.10, 고등학생은 3.89로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4.028$, $p<.001$).

대안교육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자치와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 및 기관은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을 존중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32. 전반적인 변화_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50 2.9	93 5.3	434 24.8	466 26.6	708 40.4	1,751 100.0	3.96 (1.059)	
성 별	남	26 3.1	49 5.8	226 26.8	221 26.3	320 38.0	842 100.0	3.90 (1.073)	-2.361*
		24 2.6	44 4.8	208 22.9	245 27.0	388 42.7	909 100.0	4.02 (1.043)	
	여	24 2.9	44 4.0	208 20.0	245 26.3	388 46.8	909 100.0	4.02 (1.039)	4.028***
		26 2.8	46 6.0	210 27.4	247 26.8	416 36.9	923 100.0	4.01 (1.062)	
학 교 급	중	18 2.9	25 4.0	125 20.0	164 26.3	292 46.8	624 100.0	4.10 (1.039)	4.028***
		32 2.8	68 6.0	309 27.4	302 26.8	416 36.9	1,127 100.0	3.89 (1.062)	
	고	2 1.5	5 3.7	32 23.9	41 30.6	54 40.3	134 100.0	4.04 (.965)	1.610
		15 3.3	21 4.6	125 27.5	111 24.4	183 40.2	455 100.0	3.94 (1.076)	
	3년 미만(c)	20 2.7	38 5.0	177 23.5	197 26.2	321 42.6	753 100.0	4.01 (1.051)	
		13 3.2	29 7.1	100 24.4	117 28.6	150 36.7	409 100.0	3.89 (1.082)	
	3년 이상(d)	2 1.5	5 3.7	32 23.9	41 30.6	54 40.3	134 100.0	4.04 (.965)	
		15 3.3	21 4.6	125 27.5	111 24.4	183 40.2	455 100.0	3.94 (1.076)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가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이끌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평균은 3.99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등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Ⅲ-33. 전반적인 변화_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3 1.9	54 3.1	448 25.6	575 32.8	641 36.6	1,751 100.0	3.99 (.957)		
성 별	남	19 2.3	26 3.1	220 26.1	282 33.5	295 35.0	842 100.0	3.96 (.968)	-1.364	
		14 1.5	28 3.1	228 25.1	293 32.2	346 38.1	909 100.0	4.02 (.945)		
	여	16 2.6	26 4.2	128 20.5	204 32.7	250 40.1	624 100.0	4.04 (1.002)		1.408
		17 1.5	28 2.5	320 28.4	371 32.9	391 34.7	1,127 100.0	3.97 (.930)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2 1.5	3 2.2	39 29.1	37 27.6	53 39.6	134 100.0	4.01 (.958)	.661	
		11 2.4	11 2.4	136 29.9	125 27.5	172 37.8	455 100.0	3.96 (.996)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6 2.1	23 3.1	179 23.8	243 32.3	292 38.8	753 100.0	4.03 (.969)		
		4 1.0	17 4.2	94 23.0	170 41.6	124 30.3	409 100.0	3.96 (.888)		
	1년 이상 3년 미만(c)									
	3년 이상(d)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 이후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6.5%가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응답 평균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4. 전반적인 변화_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63 3.6	107 6.1	417 23.8	528 30.2	636 36.3	1,751 100.0	3.89 (1.077)	
성 별	남	31 3.7	53 6.3	189 22.5	256 30.4	313 37.2	842 100.0	3.91 (1.083)	.599
	여	32 3.5	54 5.9	228 25.1	272 29.9	323 35.5	909 100.0	3.88 (1.071)	
학 교 급	중	28 4.5	47 7.5	116 18.6	178 28.5	255 40.9	624 100.0	3.94 (1.139)	1.232
	고	35 3.1	60 5.3	301 26.7	350 31.1	381 33.8	1,127 100.0	3.87 (1.040)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2 1.5	4 3.0	45 33.6	38 28.4	45 33.6	134 100.0	3.90 (.960)	.125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9 4.2	23 5.1	122 26.8	113 24.8	178 39.1	455 100.0	3.90 (1.109)	
	1년 이상 3년 미만(c)	29 3.9	48 6.4	169 22.4	224 29.7	283 37.6	753 100.0	3.91 (1.093)	
	3년 이상(d)	13 3.2	32 7.8	81 19.8	153 37.4	130 31.8	409 100.0	3.87 (1.049)	

* $p<.05$, ** $p<.01$, *** $p<.001$

6) 대안교육 만족도

대안교육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대안교육 참여 만족도는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택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평균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만족도 평균은 4.11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응답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청소년의 경우 평균 4.04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여자청소년은 4.17로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t=-2.895$, $p<.01$).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은 4.17, 고등학생은 4.07로 중학생이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2.334$, $p<.01$).

본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발생하는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원인파악을 통해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35. 대안교육 만족도_전체

구분		평균(표준편차)	t / F
전체		4.11(.907)	-
성별	남	4.04(.938)	-2.895**
	여	4.17(.874)	
학교급	중	4.17(.916)	2.334**
	고	4.07(.900)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28(.769)	2.235
	6개월 이상 1년 미만	4.13(.929)	
	1년 이상 3년 미만	4.09(.921)	
	3년 이상	4.06(.893)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첫 번째 문항은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만족한다”이며, 본 문항에 대한 응답평균은 4.17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5.6%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4.27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고등학생 역시 4.12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학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t=2.936$, $p<.01$).

표 III-36.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34 1.9	49 2.8	345 19.6	475 27.0	855 48.6	1,751 100.0	4.17 (.970)			
성 별	남	21 2.5	26 3.1	171 20.3	221 26.3	403 47.9	842 100.0	4.14 (1.006)	-1.487		
		14 1.5	20 2.2	178 19.6	248 27.3	449 49.4	909 100.0	4.21 (.935)			
	여	13 2.1	18 2.9	102 16.4	148 23.7	343 55.0	624 100.0	4.27 (.973)		2.936**	
		22 2.0	28 2.5	247 21.9	321 28.5	509 45.2	1,127 100.0	4.12 (.965)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7	2 1.5	23 17.2	35 26.1	73 54.5	134 100.0	4.32 (.864)	1.730		
		9 2.0	12 2.6	97 21.3	91 20.0	246 54.1	455 100.0	4.22 (.997)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9 2.5	17 2.3	156 20.7	205 27.2	356 47.3	753 100.0	4.14 (.989)			
		6 1.5	15 3.7	73 17.8	138 33.7	177 43.3	409 100.0	4.14 (.935)			
	1년 이상 3년 미만(c)										
	3년 이상(d)										

* α .05, ** α .01, *** α .001

대안교육 참여 만족도 두 번째 문항은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이며 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7.4%가 권유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평균은 3.96으로 만족도를 묻는 세 문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성별에서 남자청소년의 경우 3.87, 여자청소년 4.04로 차이를 보였다($t=-3.174$, $p<.01$).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 평균 4.05, 고등학생 평균 3.91로 중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2.563$, $p<.01$). 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 참여자는 4.16으로 조사되었지만, 3년 이상 참여자는 3.8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911$, $p<.05$).

표 III-37.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70 4.0	97 5.5	403 23.0	452 25.8	729 41.6	1,751 100.0	3.96 (1.108)	
성 별	남	40 4.8	54 6.4	209 24.8	213 25.3	326 38.7	842 100.0	3.87 (1.142)	-3.174**
	여	30 3.3	43 4.7	194 21.3	239 26.3	403 44.3	909 100.0	4.04 (1.069)	
학 교 급	중	27 4.3	37 5.9	112 18.0	152 24.4	296 47.4	624 100.0	4.05 (1.132)	2.563**
	고	43 3.8	60 5.3	291 25.8	300 26.6	433 38.4	1,127 100.0	3.91 (1.091)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2 1.5	6 4.5	25 18.7	36 26.9	65 48.5	134 100.0	4.16 (.983)	2.911*
	6개월 이상 1년 미만(b)	21 4.6	21 4.6	103 22.6	104 22.9	206 45.3	455 100.0	4.00 (1.132)	
	1년 이상 3년 미만(c)	32 4.2	41 5.4	177 23.5	187 24.8	316 42.0	753 100.0	3.95 (1.120)	d<a
	3년 이상(d)	15 3.7	29 7.1	98 24.0	125 30.6	142 34.7	409 100.0	3.86 (1.108)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참여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세 번째 문항은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며, 본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만족도 세 문항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전체 응답 평균은 4.19이며 전체 응답자의 74.8%가 학교 및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소년 평균 4.12, 여자청소년 평균 4.26으로 여자청소년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22$, $p<.01$).

표 III-38.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27 1.5	53 3.0	361 20.6	429 24.5	881 50.3	1,751 100.0	4.19 (.966)	
성 별	남	17 2.0	28 3.3	199 23.6	193 22.9	405 48.1	842 100.0	4.12 (1.010)	-3.022**
		10 1.1	25 2.8	162 17.8	236 26.0	476 52.4	909 100.0	4.26 (.920)	
	여	14 2.2	28 4.5	96 15.4	160 25.6	326 52.2	624 100.0	4.21 (1.007)	.688
		13 1.2	25 2.2	265 23.5	269 23.9	555 49.3	1,127 100.0	4.18 (.943)	
학 교 급	중	1 0.7	4 3.0	25 18.7	22 16.4	82 61.2	134 100.0	4.34 (.935)	1.261
		7 1.5	12 2.6	104 22.9	96 21.1	236 51.9	455 100.0	4.19 (.978)	
	고	11 1.5	28 3.7	156 20.7	185 24.6	373 49.5	753 100.0	4.17 (.977)	
		8 2.0	9 2.2	76 18.6	126 30.8	190 46.5	409 100.0	4.18 (.941)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7 1.5	12 2.6	104 22.9	96 21.1	236 51.9	455 100.0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1 1.5	28 3.7	156 20.7	185 24.6	373 49.5	753 100.0	
		1년 이상 3년 미만(c)	8 2.0	9 2.2	76 18.6	126 30.8	190 46.5	409 100.0	
		3년 이상(d)	7 1.5	12 2.6	104 22.9	96 21.1	236 51.9	455 100.0	

* $p<.05$, ** $p<.01$, *** $p<.001$

7) 개선방안의 필요성

대안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및 기관에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개선방안은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담당교원의 확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재정적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개별 문항의 결과에 앞서 전체 7문항의 평균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문항 평균은 4.15로 높은 수준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에서 보듯이,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조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개선방안의 내용들은 학교 및 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표 III-39. 개선방안의 필요성_전체

구분		평균(표준편차)	t / F
전체		4.15(.695)	-
성별	남	4.13(.706)	- .810
	여	4.16(.683)	
학교급	중	4.13(.680)	- .708
	고	4.16(.702)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17(.756)	1.385
	6개월 이상 1년 미만	4.10(.711)	
	1년 이상 3년 미만	4.18(.673)	
	3년 이상	4.14(.693)	

* α .05, ** α .01, *** α .001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 및 기관의 개선사항 조사 첫 번째 질문은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의 필요성이다. 조사결과 응답평균은 3.70으로 개선사항 중 가장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54.7%가 필요성을 느꼈으며, 가장 많은 35.6%가 필요성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3.62, 고등학생의 경우 3.75로 고등학생이 더욱 교직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2.548, p<.05$).

중학생과 달리 고등학생은 졸업 이후 대학진학, 진로 선택과 취업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교사로부터 다양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직원의 확대를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I-40. 개선방안_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46 2.6	124 7.1	624 35.6	467 26.7	490 28.0	1,751 100.0	3.70 (1.034)
성 별	남	24 2.9	57 6.8	300 35.6	218 25.9	243 28.9	842 100.0	3.701 (1.044)
	여	22 2.4	67 7.4	324 35.6	249 27.4	247 27.2	909 100.0	3.70 (1.024)
학 교 급	중	29 4.7	53 8.5	222 35.6	145 23.2	175 28.0	624 100.0	3.62 (1.117)
	고	17 1.5	71 6.3	402 35.7	322 28.6	315 28.0	1,127 100.0	3.75 (.981)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6 4.5	10 7.5	45 33.6	22 16.4	51 38.1	134 100.0	3.76 (1.171)
	6개월 이상 1년 미만(b)	11 2.4	32 7.0	170 37.4	106 23.3	136 29.9	455 100.0	3.71 (1.044)
	1년 이상 3년 미만(c)	25 3.3	51 6.8	269 35.7	196 26.0	212 28.2	753 100.0	3.69 (1.055)
	3년 이상(d)	4 1.0	31 7.6	140 34.2	143 35.0	91 22.2	409 100.0	3.70 (.931)

* $p<.05$, ** $p<.01$, *** $p<.001$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중, 대안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9.3%가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평균은 4.0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Ⅲ-41. 개선방안_대안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24 1.4	63 3.6	452 25.8	535 30.6	677 38.7	1,751 100.0	4.02 (.955)	
성 별	남	12 1.4	43 5.1	219 26.0	253 30.1	315 37.4	842 100.0	3.97 (.983)	-1.954
	여	12 1.3	20 2.2	233 25.6	282 31.0	362 39.8	909 100.0	4.06 (.927)	
학 교 급	중	10 1.6	29 4.7	159 25.5	184 29.5	242 38.8	624 100.0	3.99 (.987)	-.764
	고	14 1.2	34 3.0	293 26.0	351 31.1	435 38.6	1,127 100.0	4.03 (.937)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2 1.5	5 3.7	40 29.9	30 22.4	57 42.5	134 100.0	4.01 (1.007)	.400
	6개월 이상 1년 미만(b)	8 1.8	10 2.2	131 28.8	134 29.5	172 37.8	455 100.0	3.99 (.956)	
	1년 이상 3년 미만(c)	9 1.2	27 3.6	184 24.4	235 31.2	298 39.6	753 100.0	4.04 (.944)	
	3년 이상(d)	5 1.2	21 5.1	97 23.7	136 33.3	150 36.7	409 100.0	3.99 (.960)	

p* < .05, *p* < .01, ****p* < .001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 및 장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평균은 4.31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79.3%가 시설 및 장비의 확충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42. 개선방안_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 1.0	31 1.8	315 18.0	422 24.1	966 55.2	1,751 100.0	4.31 (.892)
성 별	남	5 0.6	13 1.5	158 18.8	190 22.6	476 56.5	842 100.0	4.33 (.872)
	여	12 1.3	18 2.0	157 17.3	232 25.5	490 53.9	909 100.0	4.29 (.910)
학 교 급	중	6 1.0	15 2.4	97 15.5	151 24.2	355 56.9	624 100.0	4.34 (.892)
	고	11 1.0	16 1.4	218 19.3	271 24.1	611 54.2	1,127 100.0	4.29 (.892)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2 1.5	2 1.5	26 19.4	29 21.6	75 56.0	134 100.0	4.29 (.932)
	6개월 이상	3	4	108	109	231	455	4.23
	1년 미만(b)	0.7	0.9	23.7	24.0	50.8	100.0	(.887)
	1년 이상	5	17	114	189	428	753	4.35
	3년 미만(c)	0.7	2.3	15.1	25.1	56.8	100.0	(.864)
	3년 이상(d)	7 1.7	8 2.0	67 16.4	95 23.2	232 56.7	409 100.0	4.31 (.892)

*p<.05, **p<.01, ***p<.001

학교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78.8%가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으며 문항 평균은 4.35로 개선사항 관련 질문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43. 개선방안_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12 0.7	37 2.1	322 18.4	335 19.1	1045 59.7	1,751 100.0	4.35 (.897)	
성 별	남	7 0.8	20 2.4	154 18.3	151 17.9	510 60.6	842 100.0	4.35 (.915)	.012
	여	5 0.6	17 1.9	168 18.5	184 20.2	535 58.9	909 100.0	4.35 (.881)	
학 교 급	중	7 1.1	15 2.4	107 17.2	135 21.6	360 57.7	624 100.0	4.32 (.918)	-.915
	고	5 0.4	22 2.0	215 19.1	200 17.8	685 60.8	1,127 100.0	4.36 (.886)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0 0.0	2 1.5	29 21.6	23 17.2	80 59.7	134 100.0	4.35 (.869)	2.727*
	6개월 이상 1년 미만(b)	2 0.4	8 1.8	105 23.1	99 21.8	241 53.0	455 100.0	4.25 (.900)	
	1년 이상 3년 미만(c)	5 0.7	13 1.7	130 17.3	150 19.9	455 60.4	753 100.0	4.38 (.874)	
	3년 이상(d)	5 1.2	14 3.4	58 14.2	63 15.4	269 65.8	409 100.0	4.41 (.938)	

*p<.05, **p<.01, ***p<.001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중 체험활동 비중의 확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75.9%가 체험활동 비중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문항평균은 4.22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3년 이상 참여자(4.12/.913)와 1년 이상 3년 미만 참여자(4.28/.904)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2.971$, $p<.05$).

표 III-44. 개선방안_체험활동 비중 확대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16 0.9	43 2.5	363 20.7	455 26.0	874 49.9	1,751 100.0	4.22 (.917)	
성 별	남	9 1.1	22 2.6	181 21.5	212 25.2	418 49.6	842 100.0	4.20 (.935)	-.797
	여	7 0.8	21 2.3	182 20.0	243 26.7	456 50.2	909 100.0	4.23 (.900)	
학 교 급	중	5 0.8	23 3.7	103 16.5	172 27.6	321 51.4	624 100.0	4.25 (.915)	1.233
	고	11 1.0	20 1.8	260 23.1	283 25.1	553 49.1	1,127 100.0	4.20 (.918)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7	4 3.0	29 21.6	26 19.4	74 55.2	134 100.0	4.25 (.947)	2.971*
	6개월 이상 1년 미만(b)	3 0.7	14 3.1	102 22.4	115 25.3	221 48.6	455 100.0	4.18 (.828)	
	1년 이상 3년 미만(c)	7 0.9	16 2.1	141 18.7	184 24.4	405 53.8	753 100.0	4.28 (.904)	
	3년 이상(d)	5 1.2	9 2.2	91 22.2	130 31.8	174 42.5	409 100.0	4.12 (.913)	d<c

* $p<.05$, ** $p<.01$, *** $p<.001$

체험활동 비중 확대에 이어 진로탐색 활동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5.8%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평균은 4.2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대안교육 참여기간에 따라 응답차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가장 낮은 필요성을 가진 3년 이상의 참여자(4.13)와 가장 높은 필요성을 가진 1년 이상 3년 미만 참여자(4.30)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3.180$, $p<.05$).

표 III-45. 개선방안_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16 0.9	40 2.3	369 21.1	430 24.6	896 51.2	1,751 100.0	4.23 (.919)	
성 별	남	9 1.1	17 2.0	190 22.6	208 24.7	418 49.6	842 100.0	4.20 (.928)	-1.294
	여	7 0.8	23 2.5	179 19.7	222 24.4	478 52.6	909 100.0	4.26 (.911)	
학 교 급	중	10 1.6	17 2.7	113 18.1	148 23.7	336 53.9	624 100.0	4.25 (.954)	.913
	고	6 0.5	23 2.0	256 22.7	282 25.0	560 49.7	1,127 100.0	4.21 (.899)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0 0.0	2 1.5	30 22.4	33 24.6	69 51.5	134 100.0	4.26 (.858)	3.180*
	6개월 이상 1년 미만(b)	2 0.4	12 2.6	101 22.2	122 26.8	218 47.9	455 100.0	4.19 (.901)	
	1년 이상 3년 미만(c)	6 0.8	15 2.0	146 19.4	169 22.4	417 55.4	753 100.0	4.30 (.901)	
	3년 이상(d)	8 2.0	11 2.7	92 22.5	106 25.9	192 46.9	409 100.0	4.13 (.981)	d<c

* $p<.05$, ** $p<.01$, *** $p<.001$

개선방안 마지막 질문은 “대안교육 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의 필요성이다. 본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8%가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문항평균은 4.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평균 4.15였으며 고등학생은 평균 4.25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t=-2.107$, $p<.05$).

표 III-46. 개선방안_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 F
전체		25 1.4	47 2.7	388 22.2	358 20.5	933 53.3	1,751 100.0	4.24 (.972)	
성 별	남	12 1.4	24 2.9	206 24.5	158 18.8	442 52.5	842 100.0	4.18 (.990)	-1.418
	여	13 1.4	23 2.5	182 20.0	200 22.0	491 54.0	909 100.0	4.25 (.954)	
학 교 급	중	14 2.2	24 3.9	131 21.0	141 22.6	314 50.3	624 100.0	4.15 (1.024)	-2.107*
	고	11 1.0	23 2.0	257 22.8	217 19.3	619 54.9	1,127 100.0	4.25 (.940)	
참 여 기 간	6개월 미만(a)	1 0.7	1 0.7	35 26.1	21 15.7	76 56.7	134 100.0	4.27 (.927)	2.268
	6개월 이상	4	17	119	93	222	455	4.13	
	1년 미만(b)	0.9	3.7	26.2	20.4	48.8	100.0	(.982)	
	1년 이상	10	16	167	167	393	753	4.22	
	3년 미만(c)	1.3	2.1	22.2	22.2	52.2	100.0	(.950)	
	3년 이상(d)	10 2.4	13 3.2	67 16.4	77 18.8	242 59.2	409 100.0	4.29 (1.010)	

* $p<.05$, ** $p<.01$, *** $p<.001$

5. 대안교육 영역별 청소년 참여 실태 비교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실태 조사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전체적인 결과와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조사대상자가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 및 기관에 따른 차이에 비중을 두고 살펴보하고자 한다.

1)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및 기관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한 결과이며 본 문항은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대안학교의 경우 본인 스스로 결정하였다 43.9%, 부모님의 권유가 42.0%로 가장 많았다. 특성화 중고등학교 역시 본인 스스로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의 권유가 32.8%로 높게 조사되었다. 위탁교육기관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본인 스스로 45.2%, 부모님의 권유 27.6%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른 학교 및 기관과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님의 권유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 스스로는 39.3%로 두 번째 높은 이유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순서는 다르지만, 부모님의 권유와 본인의 결정에 의해 대안교육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선생님의 권유도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비중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표 III-47. 영역별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본인 스스로	부모님의 권유	선생님의 권유	친구의 권유	언론과 SNS	기타	계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390	373	73	28	11	13	888
		43.9	42.0	8.2	3.2	1.2	1.5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276	212	119	18	10	12	647
		42.7	32.8	18.4	2.8	1.5	1.9	100.0
	대안교육기관	187	242	24	12	2	9	476
		39.3	50.8	5.0	2.5	0.4	1.9	100.0
	위탁교육기관	190	116	80	16	3	15	420
		45.2	27.6	19.1	3.8	0.7	3.6	100.0

2)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와 관련한 결과를 기관별로 나누어 다음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청소년들이 어떠한 학습 및 활동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별 결과 제시 전, 학습 및 활동 전체 평균에 대한 기관별 수준과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 평균은 3.98로 분석되었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평균이 4.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4.04, 대안학교 3.95, 대안교육기관 3.88 순으로 도움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평균이 가장 높은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가장 낮은 대안교육 기관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4.829$, $p<.01$). 본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결과는 [그림 III-2]와 같다.

대안교육에서 제공하는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는 대안교육의 효과성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각 영역별 청소년들의 요구를 파악 및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과 활동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48. 기관별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학습 및 활동경험 전체 평균 비교	대안학교(a)	626	3.95	.705	4.829**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05	.727	
	대안교육 기관(c)	342	3.88	.665	
	위탁교육 기관(d)	295	4.04	.779	
	계	1,739	3.98	.719	c\>b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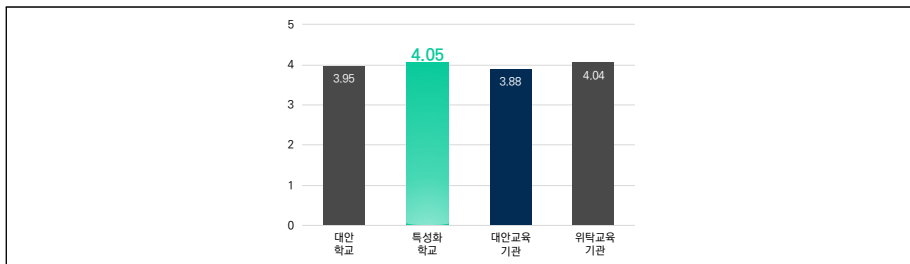


그림 III-2. 기관별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

(1) 기관별 조사결과

① 전체기관

먼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각 학습 및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수준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여행, 캠프 등이 포함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었다(4.23). 다음으로 교사-학생 간 소통을 위한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었으며(4.15), 세 번째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공예와 같은 예술 활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13).

이러한 결과는 여행, 캠프와 같은 야외 활동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 공예와 같은 예술 프로그램 등의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지원 증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I-49.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전체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학습 및 활동경험 전체	1739	1	5	3.98	0.719	
개인생활상담	1588	1	5	3.94	0.970	
심리검사	1423	1	5	3.71	1.037	
진로상담	1534	1	5	3.93	0.991	
진학 및 직업 탐색	1569	1	5	3.91	1.003	
자격증 탐색 및 체험	1336	1	5	3.73	1.102	
학습지도, 학습코칭	1613	1	5	3.88	0.990	
공동체 활동	1716	1	5	4.10	1.021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1649	1	5	4.10	0.956	
생태·환경 관련 활동	1633	1	5	3.92	1.029	
도래관계 증진(멘토링 등)	1580	1	5	3.95	1.023	
교사-학생 간 소통 (사제동행 등)	1685	1	5	4.15	0.993	2
부모-자녀 관계 증진 (가족상담 등)	1465	1	5	3.85	1.042	
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1676	1	5	4.13	0.964	3
스포츠 활동	1679	1	5	4.12	0.971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1606	1	5	4.06	0.983	
여행, 캠프	1613	1	5	4.23	0.939	1

② 대안학교

다음으로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었던 학습 및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 결과와 같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여행, 캠프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4.20). 두 번째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활동은 스포츠활동(4.1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4.11)과 교사-학생 간 소통(4.1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공연관람, 예술프로그램, 공동체활동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안학교에 소속된 청소년들의 경우 여행 및 캠프, 스포츠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과 함께 교사-학생 간 소통, 학생자치 및 참여, 공동체 활동과 같은 관계 지향적 활동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관과 그에 속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개별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50.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대안학교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학습 및 활동경험 전체	626	1	5	3.95	0.705	
개인생활상담	569	1	5	3.89	0.956	
심리검사	506	1	5	3.66	1.049	
진로상담	549	1	5	3.91	0.975	
진학 및 직업 탐색	578	1	5	3.94	0.973	
자격증 탐색 및 체험	456	1	5	3.72	1.072	
학습지도, 학습코칭	575	1	5	3.82	0.998	
공동체 활동	619	1	5	4.06	1.074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596	1	5	4.11	0.953	3
생태·환경 관련 활동	577	1	5	3.81	1.057	
도래관계 증진(멘토링 등)	554	1	5	3.88	1.076	
교사-학생 간 소통 (사제동행 등)	604	1	5	4.11	0.999	3
부모-자녀 관계 증진 (가족상담 등)	494	1	5	3.89	1.017	
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600	1	5	4.06	0.973	
스포츠 활동	602	1	5	4.13	0.969	2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573	1	5	4.06	0.976	
여행, 캠프	572	1	5	4.20	0.965	1

③ 특성화중고등학교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 정도 동일한 문항에 대해 특성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 정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05). 특성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도움되었다고 한 활동은 스포츠활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28). 이와 큰 차이 없이 두 번째 도움이 많이 되었던 활동으로 응답된 활동은 여행, 캠프 프로그램이었으며, 교사-학생 간 소통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세 번째로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4.25). 그 외에도 음악/미술 활동, 공동체활동,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등이 상위권으로 조사되었다.

대안학교와 유사하게 특성화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학생 간 소통 프로그램은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과 교사의 역량이 대안교육의 효과성과 깊은 연계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보고한다.

표 III-51.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특성화중고등학교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학습 및 활동경험 전체	476	1	5	4.05	0.727	
개인생활상담	426	1	5	4.00	0.977	
심리검사	434	1	5	3.88	0.982	
진로상담	443	1	5	4.04	0.932	
진학 및 직업 탐색	458	1	5	4.05	0.939	
자격증 탐색 및 체험	386	1	5	3.87	1.033	
학습지도, 학습코칭	451	1	5	3.90	1.002	
공동체 활동	469	1	5	4.20	0.983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448	1	5	4.15	0.955	
생태·환경 관련 활동	453	1	5	4.03	1.001	
도래관계 증진(멘토링 등)	444	1	5	4.05	0.996	
교사-학생 간 소통 (사제동행 등)	455	1	5	4.25	0.996	3
부모-자녀 관계 증진 (가족상담 등)	416	1	5	3.88	1.056	
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460	1	5	4.21	0.941	
스포츠 활동	466	1	5	4.28	0.899	1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433	1	5	4.02	0.999	
여행, 캠프	447	1	5	4.27	0.918	2

④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은 4개 유형의 기관 중, 전체 학습 및 활동경험으로부터 받은 도움 정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조사되었다(3.88).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한 활동은 여행, 캠프였으며 같은 문화체험 영역의 음악, 미술, 공예 프로그램은 세 번째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 대안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공동체 활동의 경우 도움이 많이 되었던 프로그램 2순위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스포츠활동, 공연 관람 등이 자신의 삶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체 활동과 자치, 참여 활동으로부터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의 경우 그러한 활동의 증대를 통해 대안교육 참여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52.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대안교육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학습 및 활동경험 전체	342	1	5	3.88	0.665	
개인생활상담	320	1	5	3.81	0.947	
심리검사	228	1	5	3.31	1.009	
진로상담	272	1	5	3.70	1.064	
진학 및 직업 탐색	261	1	5	3.56	1.092	
자격증 탐색 및 체험	241	1	5	3.34	1.204	
학습지도, 학습코칭	317	1	5	3.79	0.951	
공동체 활동	341	1	5	4.15	0.936	2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330	1	5	4.06	0.981	
생태·환경 관련 활동	334	1	5	3.92	1.055	
도래관계 증진(멘토링 등)	320	1	5	3.89	0.959	
교사-학생 간 소통 (사제동행 등)	339	1	5	3.94	1.009	
부모-자녀 관계 증진 (가족상담 등)	289	1	5	3.64	1.025	
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331	1	5	4.10	0.954	3
스포츠 활동	330	1	5	3.99	0.971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326	1	5	3.99	0.992	
여행, 캠프	339	1	5	4.27	0.907	1

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마지막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학습 및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탁교육기관 청소년들의 경우 관계증진 프로그램 중 교사-학생 간 소통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4.32). 다음으로 여행, 캠프 프로그램(4.22), 공연관람(4.19)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공예프로그램, 개인생활상담, 학습지도 및 학습코칭이 도움정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응답되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가진 사례가 많은 위탁교육기관 청소년의 경우 교사-학생 간 소통과 개인생활상담과 같이 교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교육기관 역시 교사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위탁교육기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 교사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III-53.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정도_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학습 및 활동경험 전체	295	1	5	4.04	0.779	
개인생활상담	273	1	5	4.12	0.985	
심리검사	255	1	5	3.89	1.025	
진로상담	270	1	5	4.04	1.001	
진학 및 직업 탐색	272	1	5	3.97	1.007	
자격증 탐색 및 체험	253	1	5	3.92	1.068	
학습지도, 학습코칭	270	1	5	4.10	0.966	
공동체 활동	287	1	5	3.99	1.048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275	1	5	4.04	0.935	
생태·환경 관련 활동	269	1	5	3.99	0.958	
도래관계 증진(멘토링 등)	262	1	5	4.02	1.019	
교사-학생 간 소통 (사제동행 등)	287	1	5	4.32	0.910	1
부모-자녀 관계 증진 (가족상담 등)	266	1	5	3.97	1.056	
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285	1	5	4.16	0.987	
스포츠 활동	281	1	5	4.00	1.054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274	1	5	4.19	0.952	3
여행, 캠프	255	1	5	4.22	0.958	2

(1) 문항별 조사결과

학습 및 활동 경험 각 세부 문항별로 기관에 따른 평균 및 응답유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개인생활상담의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평균 4.27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위탁교육기관 평균 4.22, 대안학교 평균 4.2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유형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약간 도움이 되었다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4.5%,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은 37.8%와 48.7%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5.454($p<.001$)로 유의미하였다.

상담은 한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기에 교사의 상담 역량을 담보해야 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표 III-54. 학습 및 활동경험_개인생활상담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572	4.20	.965	.551	
		특성화 중고등학교(b)		447	4.27	.918		
		대안교육 기관(c)		339	4.27	.907		
		위탁교육 기관(d)		255	4.22	.958		
		계		1,613	4.23	.939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1	22	164	196	176	569	45.454***
		1.9	3.9	28.8	34.5	30.9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7	20	102	136	161	426	
		1.6	4.7	23.9	31.9	37.8	100.0	
	대안교육 기관	3	21	99	109	88	320	
		0.9	6.6	30.9	34.1	27.5	100.0	
	위탁교육 기관	2.0	12	69	57	133	273	
		0.7	4.4	25.3	20.9	48.7	100.0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심리검사에 대한 도움 정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위탁교육기관의 평균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응답이 3.88로 유사하였다. 다음으로 대안학교가 평균 3.66으로 높았으며 대안교육기관은 평균 3.3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18.78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보면, 대안학교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대안교육기관 역시 41.7%로 보통이 높게 응답되었다.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교육기관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례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81.948($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그림 III-3]을 통해 도식화 하여 제시하였다. 상담과 함께 심리검사 역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자원 연계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표 III-55. 학습 및 활동경험_심리검사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506	3.66	1.049	18.783*** c<a<b,d	
		특성화 중고등학교(b)		434	3.88	.982		
		대안교육 기관(c)		228	3.31	1.009		
		위탁교육 기관(d)		255	3.89	1.025		
		계		1,423	3.71	1.037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9	36	172	151	128	506	81.948***
		3.8	7.1	34.0	29.8	25.3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1	19	115	155	134	434	
		2.5	4.4	26.5	35.7	30.9	100.0	
	대안교육 기관	11	29	95	64	29	231	
		4.8	12.7	41.7	28.1	12.7	100.0	
	위탁교육 기관	2	16	89	49	99	255	
		0.8	6.3	34.9	19.2	38.8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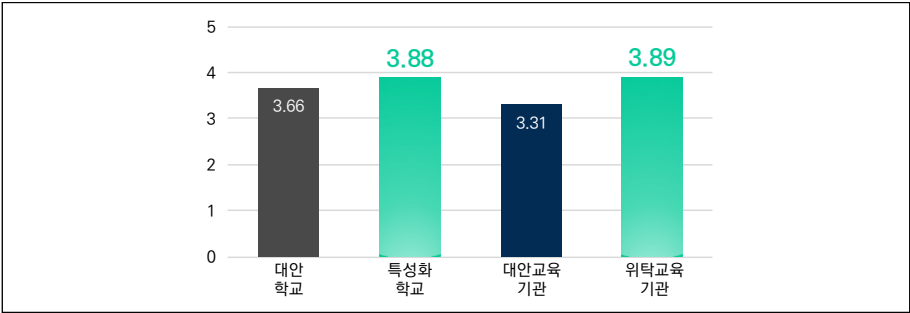


그림 III-3. 학습 및 활동경험_심리검사

진로탐색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진로상담의 경우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에 속한 대상자들이 응답한 도움 정도 평균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안학교 3.91, 대안교육기관 3.70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F값 7.979($p<.001$)로 유의미하였다. 각 기관별 도움정도는 [그림 III-4]를 통해 도식화하였다.

기관별 응답률 비교를 보면,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은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3.9%, 33.5%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률이 38.2%,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로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체험, 그리고 상담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표 III-56. 학습 및 활동경험_진로상담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549	3.91	.975	7.979***
	특성화 중고등학교(b)	443	4.04	.932	
	대안교육 기관(c)	272	3.70	1.064	
	위탁교육 기관(d)	270	4.04	1.001	
	계	1,534	3.93	.991	c<b,d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1	25	148	186	179	549	51.765***
		2.0	4.6	27.0	33.9	32.6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8	9	108	149	169	443	
		1.8	2.0	24.4	33.6	38.2	100.0	
	대안교육 기관	9	26	74	91	72	272	
		3.3	9.6	27.2	33.5	26.5	100.0	
	위탁교육 기관	3	11	79	57	120	270	
		1.1	4.1	29.3	21.1	44.4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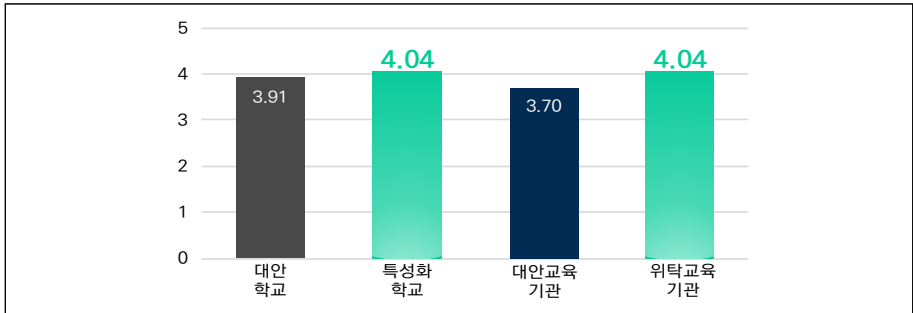


그림 III-4. 학습 및 활동경험_진로상담

진로탐색을 위한 진학 및 직업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정도를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기관은 특성화 중고등학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4.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위탁교육기관 3.97, 대안학교 3.94, 대안교육기관 3.56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III-5).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F 값 14.332($p<.001$)로 유의미한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본 문항에 대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보면,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대안학교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대안교육기관은 “보통”의 응답률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66.618($p<.001$)로 유의미하였다.

진학과 직업 탐색에 있어 기관에 따라 나타나는 평균 및 응답률의 차이를 보았을 때,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이 고루한 수준에서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 및 기관이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III-57. 학습 및 활동경험_진학 및 직업 탐색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578	3.94	.973	14.332***
		특성화 중고등학교(b)	458	4.05	.939	
		대안교육 기관(c)	261	3.56	1.092	
		위탁교육 기관(d)	272	3.97	1.007	
		계	1,569	3.91	1.003	c<a,b,d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3	22	149	199	195	578	66.618***
		2.3	3.8	25.8	34.4	33.7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8	15	97	163	175	458	
		1.8	3.3	21.2	35.6	38.2	100.0	
	대안교육 기관	9	33	84	72	63	261	
		3.5	12.6	32.2	27.6	24.1	100.0	
	위탁교육 기관	4	12	81	65	110	272	
		1.5	4.4	29.8	23.9	40.4	100.0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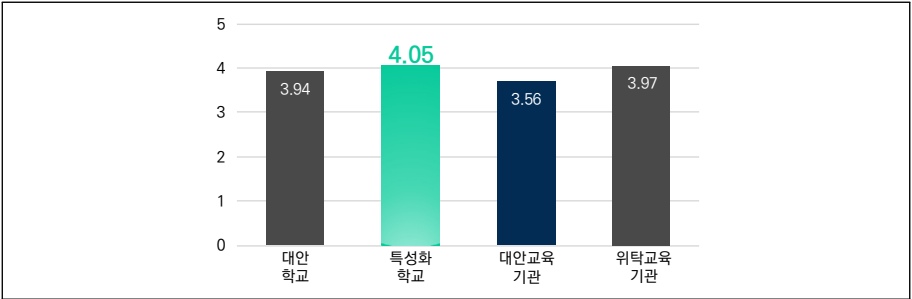


그림 III-5. 학습 및 활동경험_진학 및 직업 탐색

자격증 탐색과 체험이 본인의 삶과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의 기관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위탁교육기간에 속한 대상자의 응답 평균이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상자의 응답평균이 3.87로 높았다. 대안학교 3.72, 대안교육기관 3.34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그림 III-6],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15.087($p < .001$)로 유의미하였다.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보면, 대안교육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자격증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는 보통 34.0%, 약간 도움이 되었다 24.9%, 매우 도움이 되었다 19.9% 순으로 응답하여 다른 기관과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χ^2 값 62.991($p < .001$)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58. 학습 및 활동경험_자격증 탐색 및 체험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456	3.72	1.072	15.087***	
		특성화 중고등학교(b)		386	3.87	1.033		
		대안교육 기관(c)		241	3.34	1.204		
		위탁교육 기관(d)		253	3.92	1.068		
		계		1,336	3.73	1.102	c<a,b,d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4	36	150	118	138	456	62.991***
		3.1	7.9	32.9	25.9	30.3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7	29	106	111	133	386	
		1.8	7.5	27.5	28.8	34.5	100.0	
	대안교육 기관	24	27	82	60	48	241	
		10.0	11.2	34.0	24.9	19.9	100.0	
	위탁교육 기관	5	15	80	49	104	253	
		2.0	5.9	31.6	19.4	41.1	100.0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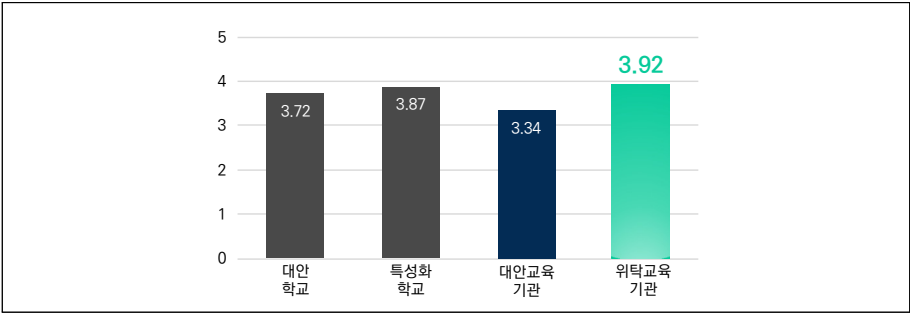


그림 Ⅲ-6. 학습 및 활동경험_자격증 탐색 및 체험

‘학습 및 활동경험 중 학습지도와 학습코칭에 대한 도움정도’의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본 영역에 대해서 위탁교육기관은 평균 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 3.90, 대안학교 3.82, 대안교육기관 3.79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그림 Ⅲ-7). 이러한 차이는 F값 6.108($p < .00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은 학습지도와 코칭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경우 도움 정도가 보통인 응답자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6.437($p < .001$)로 유의미하였다.

전반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난 학습지도에 대한 도움 정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학교와 차별적인 수업을 원하는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들의 학습지도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표 III -59. 학습 및 활동경험_학습지도, 학습코칭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575	3.82	.998	6.108***	
		특성화 중고등학교(b)		451	3.90	1.002		
		대안교육 기관(c)		317	3.79	.951		
		위탁교육 기관(d)		270	4.10	.966		
		계		1,613	3.88	.990	a,c<d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3	28	184	173	177	578	46.437***
		2.3	4.9	32.0	30.1	30.8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9	26	120	144	152	451	
		2.0	5.8	26.6	31.9	33.7	100.0	
	대안교육 기관	7	15	95	119	81	317	
		2.2	4.7	30.0	37.5	25.6	100.0	
	위탁교육 기관	3	5	80	55	127	270	
		1.1	1.9	29.6	20.4	47.0	100.0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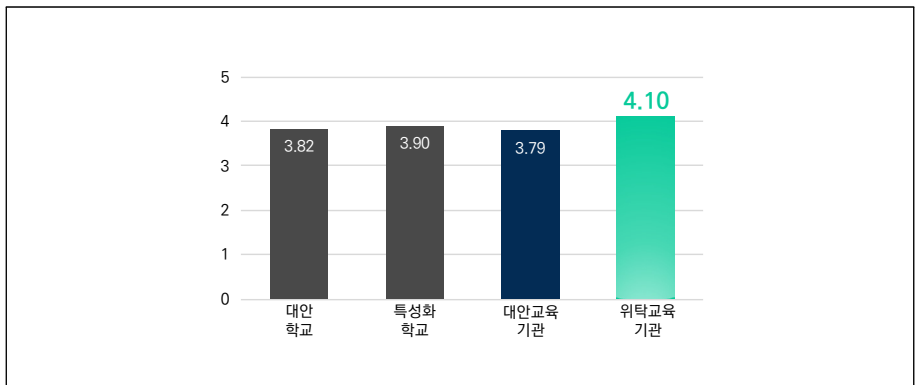


그림 III -7. 학습 및 활동경험_학습지도, 학습코칭

공동체활동의 도움정도에 대한 기관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문항에서는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평균이 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안교육 기관이 4.15로 유사한 수준에서 도움정도를 응답하였고, 대안학교 4.06, 위탁교육기관 3.9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F값 3.267($p<.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기관에 따른 응답률을 보면, 모든 기관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50.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31.4%로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8.638($p<.001$)로 유의미하였다.

모든 기관 및 학교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공동체 활동은 대안교육의 취지와도 관련성이 높은 가치 실현 교육과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조성 마련을 위한 학교 및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60. 학습 및 활동경험_공동체 활동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19	4.06	1.074	3.267*	
		특성화 중고등학교(b)		469	4.20	.983		
		대안교육 기관(c)		341	4.15	.936		
		위탁교육 기관(d)		287	3.99	1.048		
		계		1,716	4.10	1.021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23	25	126	163	282	619	38.638***
		3.7	4.0	20.4	26.3	45.6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9	17	84	121	238	469	
		1.9	3.6	17.9	25.8	50.8	100.0	
	대안교육 기관	3	16	61	107	154	341	
		0.9	4.7	17.9	31.4	45.2	100.0	
	위탁교육 기관	7	9	90	56	125	287	
		2.4	3.1	31.4	19.5	43.6	100.0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의 도움정도에 대한 기관별 분석 결과이다. 평균 비교 결과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안학교 4.11, 대안교육기관 4.06, 위탁교육기관 4.04 순으로 응답하였다.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4.0 이상의 도움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평균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관별 응답률의 비교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보통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0.082($p<.01$)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61. 학습 및 활동경험_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대안학교(a)		596	4.11	.953	.921	
		특성화 중고등학교(b)		448	4.15	.955		
		대안교육 기관(c)		330	4.06	.981		
		위탁교육 기관(d)		275	4.04	.935		
		계		1,649	4.10	.956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8	20	134	173	261	596	30.082**
		1.3	3.4	22.5	29.0	43.8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9	8	98	127	206	448	
		2.0	1.8	21.9	28.4	46.0	100.0	
	대안교육 기관	6	14	71	102	137	330	
		1.8	4.2	21.5	30.9	41.5	100.0	
	위탁교육 기관	2	3	94	60	116	275	
		0.7	1.1	34.2	21.8	42.2	100.0	

* α .05, ** α .01, *** α .001

‘생태 및 환경 관련 활동의 도움정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학교 및 기관별로 평균을 보면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평균 4.03으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교육기관 3.99, 대안교육기관 3.92, 대안학교 3.8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III-8]. 이러한 기관별 평균의 차이는 F값 4.518로 $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학교와 특성화 중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결과의 응답률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본 활동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후 순위의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보통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6.930($p<.001$)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62. 학습 및 활동경험_생태·환경 관련 활동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577	3.81	1.057	4.518**
	특성화 중고등학교(b)			453	4.03	1.001	
	대안교육 기관(c)			334	3.92	1.055	
	위탁교육 기관(d)			269	3.99	.958	
	계			1,633	3.92	1.029	a<b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교차 분석	대안학교	22	25	180	164	186	577
		3.8	4.3	31.2	28.4	32.2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9	15	120	117	192	453
		2.0	3.3	26.5	25.8	42.4	100.0
	대안교육 기관	11	20	74	109	120	334
		3.3	6.0	22.2	32.6	35.9	100.0
	위탁교육 기관	2	7	91	60	109	269
		0.7	2.6	33.8	22.3	40.5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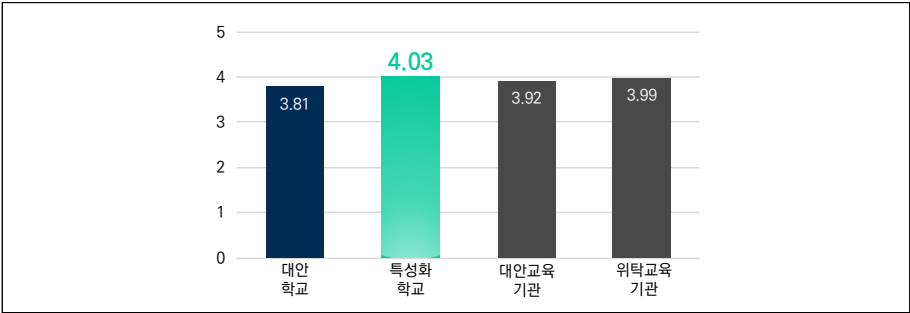


그림 III-8. 학습 및 활동경험_생태·환경 관련 활동

관계증진을 위한 학습 및 활동 영역 중 포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대한 기관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평균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교육기관 4.02, 대안교육기관 3.89, 대안학교 3.88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차이는 F값 3.026($p<.05$)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청소년기 포래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기관과 학교에서 원만한 포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포래관계 활동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기관별로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및 기관에서는 포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항목이 가장 높았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응답은 30.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7.776($p<.01$)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63. 학습 및 활동경험_포래관계 증진(멘토링 등)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554	3.88	1.076	3.026*
	특성화 중고등학교(b)	444	4.05	.996	
	대안교육 기관(c)	320	3.89	.959	
	위탁교육 기관(d)	262	4.02	1.019	
	계	1,580	3.95	1.023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9	30	155	147	203	554	37.776**
		3.4	5.4	28.0	26.5	36.6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8	19	105	125	187	444	
		1.8	4.3	23.7	28.2	42.1	100.0	
	대안교육 기관	5	17	85	114	99	320	
		1.6	5.3	26.6	35.6	30.9	100.0	
	위탁교육 기관	4	9	82	50	117	262	
		1.5	3.4	31.3	19.1	44.7	100.0	

* $p<.05$, ** $p<.01$, *** $p<.001$

관계증진을 위한 학습 및 활동 영역 두 번째인 ‘교사-학생 간 소통 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대한 기관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에 있어서 위탁교육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의 도움정도 수준이 평균 4.3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4.25, 대안학교 4.11, 대안교육기관 3.94의 순으로 도움정도를 나타냈다(그림 III-9). 이러한 결과는 F값 9.943으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임을 알 수 있다. 학교 및 기관에서 사제 관계는 또래관계 못지않게 교육의 효과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원만한 사제 관계는 청소년의 진로와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하여 사제 간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별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가장 높은 응답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8.9%로 높았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57.563($p<.001$)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64. 학습 및 활동경험_교사-학생 간 소통(사제동행 등)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04	4.11	.999	9.943***
	특성화 중고등학교(b)	455	4.25	.996	
	대안교육 기관(c)	339	3.94	1.009	
	위탁교육 기관(d)	287	4.32	.910	
	계	1,685	4.15	.993	a<d c<b,d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5	15	137	160	277	604	57.563***
		2.5	2.5	22.7	26.5	45.9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0	17	71	107	250	455	
		2.2	3.7	15.6	23.5	55.0	100.0	
	대안교육 기관	5	20	92	94	128	339	
		1.5	5.9	27.1	27.7	37.8	100.0	
	위탁교육 기관	3	2	63	50	169	287	
		1.1	0.7	22.0	17.4	58.9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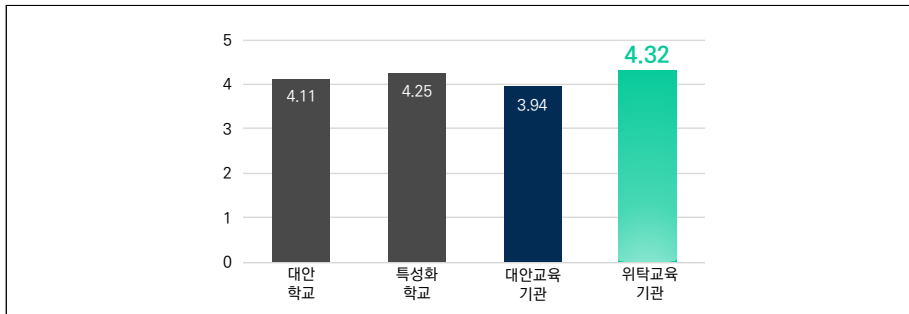


그림 III-9. 학습 및 활동경험_교사-학생 간 소통(사제동행 등)

관계 증진 영역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별 도움정도’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움정도 평균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대안학교 3.89, 특성화 중고등학교 3.88, 대안교육기관 3.64의 순으로 나타나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및 기관들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III-10). 이러한 기관별 도움정도의 차이는 F값 5.435로 $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기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및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은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의 경우 “보통” 35.3%, “약간 도움이 되었다” 29.4%, “매우 도움이 되었다” 24.2%의 순으로 응답하여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23.186($p<.05$)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 증진은 학교 또는 기관 안에서 달성하기에 수월한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관계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학교 및 기관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표 III-65. 학습 및 활동경험_부모-자녀 관계 증진(가족상담 등)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494	3.89	1.017	5.435**	
		특성화 중고등학교(b)		416	3.88	1.056		
		대안교육 기관(c)		289	3.64	1.025		
		위탁교육 기관(d)		266	3.97	1.056		
		계		1,465	3.85	1.042	c(a,b,d)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8	29	151	129	177	494	23.186*
		1.6	5.9	30.6	26.1	35.8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0	26	122	105	153	416	
		2.4	6.3	29.3	25.2	36.8	100.0	
	대안교육 기관	8	24	102	85	70	289	
		2.8	8.3	35.3	29.4	24.2	100.0	
	위탁교육 기관	6	14	74	60	112	266	
		2.3	5.3	27.8	22.6	42.1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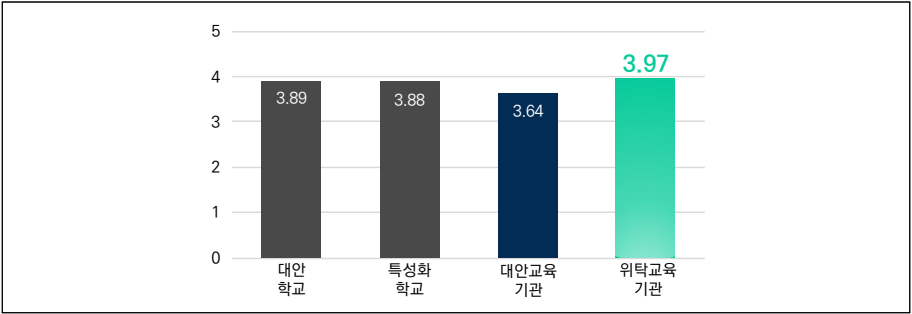


그림 III-10. 학습 및 활동경험_부모-자녀 관계 증진(가족상담 등)

다음은 문화체험 영역 중 음악, 미술, 공예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도움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본 영역 평균의 경우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소속된 청소년들의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뒤로 위탁교육기관 4.16, 대안교육기관 4.10, 대안학교 4.06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기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위탁교육기관의 경우는 보통에 대한 응답률이 27.0%, ‘약간 도움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률이 18.6% 순으로 다른 학교 및 기관과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1.366($p<.01$)로 유의미하였다.

음악, 미술, 공예와 같은 예술 활동은 감수성이 높은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욕구를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본 활동을 통해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익한 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더욱 다양한 예술활동을 더 많은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재량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I-66. 학습 및 활동경험_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예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00	4.06	.973	2.275	
		특성화 중고등학교(b)		460	4.21	.941		
		대안교육 기관(c)		331	4.10	.954		
		위탁교육 기관(d)		285	4.16	.987		
		계		1,676	4.13	.964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9	25	137	178	251	600	31.366**
		1.5	4.2	22.8	29.7	41.8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5	13	96	112	234	460	
		1.1	2.8	20.9	24.4	50.9	100.0	
	대안교육 기관	6	11	66	108	140	331	
		1.8	3.3	19.9	32.6	42.3	100.0	
	위탁교육 기관	5	4	77	53	146	285	
		1.8	1.4	27.0	18.6	51.2	100.0	

* $p<.05$, ** $p<.01$, *** $p<.001$

‘스포츠활동 경험에 대한 도움정도’의 기관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은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4.2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대안학교 4.13, 위탁교육기관 4.00, 대안교육기관 3.99로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도움정도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그림 III-11],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7.576($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를 보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기관 및 학교 공통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나 2순위 응답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은 “보통” 27.4%로 “약간 도움이 되었다” 22.8%에 비해 높게 나타나 다른 학교 및 기관과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2.597($p<.01$)로 유의미하였다.

스포츠활동은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응답 된 활동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많은 기관 및 학교의 경우 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다. 대안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을 위해 체육관, 다양한 스포츠 용품 등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67. 학습 및 활동경험_스포츠 활동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02	4.13	.969	7.576***
		특성화 중고등학교(b)			466	4.28	.899	
		대안교육 기관(c)			330	3.99	.971	
		위탁교육 기관(d)			281	4.00	1.054	
		계			1,679	4.12	.971	c,d<b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0	21	125	170	276	602	32.597**
		1.7	3.5	20.8	28.2	45.9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6	7	84	122	247	466	
		1.3	1.5	18.0	26.2	53.0	100.0	
	대안교육 기관	6	13	81	107	123	330	
		1.8	3.9	24.6	32.4	37.3	100.0	
	위탁교육 기관	8	10	77	64	122	281	
		2.9	3.6	27.4	22.8	43.4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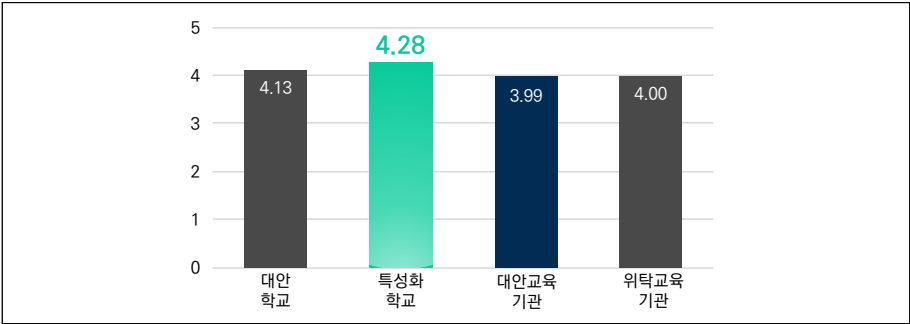


그림 Ⅲ-11. 학습 및 활동경험_스포츠 활동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이 본인의 삶의 성장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4.06이며, 가장 높은 평균은 4.19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참가자들의 응답이었다. 대안학교 4.06, 특성화 중고등학교 4.02, 대안교육 기관 3.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탁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및 기관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순으로 응답되었으나 위탁교육 기관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되었다” 50.4%, “보통이다” 23.4%, “약간 도움이 되었다” 22.6%의 순으로 응답하여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21.955($p<.05$)로 유의미하였다.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다른 문화체험 및 활동에 비하여 접근성이 낮은 활동인데,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역 내 문화 공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낮은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Ⅲ-68. 학습 및 활동경험_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573	4.06	.976	2.322
	특성화 중고등학교(b)	433	4.02	.999	
	대안교육 기관(c)	326	3.99	.992	
	위탁교육 기관(d)	274	4.19	.952	
	계	1,606	4.06	.983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0 1.8	25 4.4	121 21.1	181 31.6	236 41.2	573 100.0	21.955*
	특성화 중고등학교	7 1.6	19 4.4	112 25.9	115 26.6	180 41.6	433 100.0	
	대안교육 기관	8 2.5	14 4.3	72 22.1	112 34.4	120 36.8	326 100.0	
	위탁교육 기관	3 1.1	7 2.6	64 23.4	62 22.6	138 50.4	274 100.0	

* $p < .05$, ** $p < .01$, *** $p < .001$

문화체험 영역 세 번째인 여행, 캠프 프로그램은 조사한 총 16개 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도움정도를 보인 프로그램이며 이에 대한 도움정도의 응답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평균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위탁교육기관 4.22, 대안학교 4.20으로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도움정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기관별 응답률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이후의 응답률은 위탁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서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보통이다” 25.5%, “약간 도움이 되었다” 18.0% 순으로 응답되어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23.008($p < .05$)로 유의미하였다.

본 프로그램 또한 모든 기관과 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움정도가 응답된 활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와 기관에서 이를 활발히 진행하기에는 활동 예산 수급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III-69. 학습 및 활동경험_여행, 캠프

(단위 : 명, %)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572	4.20	.965	.702	
		특성화 중고등학교(b)		447	4.27	.918		
		대안교육 기관(c)		339	4.27	.907		
		위탁교육 기관(d)		255	4.22	.958		
		계		1,613	4.23	.939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9	16	119	138	290	572	23.008*
		1.6	2.8	20.8	24.1	50.7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7	4	90	106	240	447	
		1.6	0.9	20.1	23.7	53.7	100.0	
	대안교육 기관	6	6	52	103	172	339	
		1.8	1.8	15.3	30.4	50.7	100.0	
	위탁교육 기관	3	4	65	46	137	255	
		1.2	1.6	25.5	18.0	53.7	100.0	

* $p < .05$, ** $p < .01$, *** $p < .001$

3)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 및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나 학습활동 과정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문항은 교차분석을 통한 응답률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되는지에 대해 질문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 및 기관의 청소년들은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경우는 “대체로 그렇다”가 38.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26.2%, “매우 그렇다” 23.8% 순으로 응답하여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56.667($p < .001$)로 유의미하였다.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대안교육의 효과성과 차별성을 높이는 확실한 방안 중 하나이다. 학교 및 기관에서는 교육 및 학습에 있어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Ⅲ-70.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15	34	144	218	221	632	56.667***
		2.4	5.4	22.8	34.5	35.0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4	18	86	161	197	476	
		2.9	3.8	18.1	33.8	41.4	100.0	
	대안교육 기관	8	31	90	133	82	344	
		2.3	9.0	26.2	38.7	23.8	100.0	
	위탁교육 기관	3	6	67	87	136	299	
		1.0	2.0	22.4	29.1	45.5	100.0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일반교과 수업을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한 결과이다.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대안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위탁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대체로 그렇다” 순으로 응답되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가 37.2%, “보통” 27.9%, “매우 그렇다” 18.6%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학교 및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106.076($p<.001$)로 유의미하였다.

표 Ⅲ-71.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일반교과 수업을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15	29	148	214	226	632	106.076***
		2.4	4.6	23.4	33.9	35.8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3	27	87	148	201	476	
		2.7	5.7	18.3	31.1	42.2	100.0	
	대안교육 기관	10	46	96	128	64	344	
		2.9	13.4	27.9	37.2	18.6	100.0	
	위탁교육 기관	1	8	65	78	147	299	
		0.3	2.7	21.7	26.1	49.2	100.0	

* $p<.05$, ** $p<.01$, *** $p<.001$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및 기관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보통”, “대체로 그렇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가 3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통”이 이와 유사한 31.1%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0.364($p<.01$)로 유의미하였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일반교과 수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들 역시 대안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학교 및 기관,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학교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교사연수와 같은 다양한 역량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72.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19 3.0	54 8.5	184 29.1	182 28.8	193 30.5	632 100.0	30.364**
	특성화 중고등학교	24 5.0	56 11.8	133 27.9	120 25.2	143 30.0	476 100.0	
	대안교육 기관	13 3.8	39 11.3	107 31.1	108 31.4	77 22.4	344 100.0	
	위탁교육 기관	3 1.0	23 7.7	85 28.4	77 25.8	111 37.1	299 100.0	

* $p<.05$, ** $p<.01$, *** $p<.001$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네 번째 질문인 ‘발표회, 전시회 등 학습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탁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및 기관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 “보통” 순으로 응답되었다. 위탁교육기관의 경우는 “보통”이 27.1%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대체로 그렇다”는 23.8%로 세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 및 기관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위탁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3.473($p<.01$)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73.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발표회, 전시회 등 학습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8	16	118	186	304	632	33.473**
		1.3	2.5	18.7	29.4	48.1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8	10	95	138	225	476	
		1.7	2.1	20.0	29.0	47.3	100.0	
	대안교육 기관	4	8	52	112	168	344	
		1.2	2.3	15.1	32.6	48.8	100.0	
	위탁교육 기관	2	19	81	71	126	299	
		0.7	6.4	27.1	23.8	42.1	100.0	

* α .05, ** α .01, *** α .001

‘각 학교 및 기관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두 학교 및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률도 8.7%로 다른 학교 및 기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8.834($p < .001$)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74.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9	20	139	204	260	632	48.834***
		1.4	3.2	22.0	32.3	41.1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7	18	85	133	233	476	
		1.5	3.8	17.9	27.9	49.0	100.0	
	대안교육 기관	7	30	85	104	118	344	
		2.0	8.7	24.7	30.2	34.3	100.0	
	위탁교육 기관	5	4	71	72	147	299	
		1.7	1.3	23.8	24.1	49.2	100.0	

* α .05, ** α .01, *** α .001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나 취업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각각 36.6%와 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안학교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 30.9%로 가장 높았으며, 대안교육기관은 “보통”이 35.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 및 기관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파악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110.743($p<.001$)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75.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나 취업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14	64	183	195	176	632	110.743***
		2.2	10.1	29.0	30.9	27.9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7	35	108	142	174	476	
		3.6	7.4	22.7	29.8	36.6	100.0	
	대안교육 기관	31	52	121	89	51	344	
		9.0	15.1	35.2	25.9	14.8	100.0	
	위탁교육 기관	4	17	82	77	119	299	
		1.3	5.7	27.4	25.8	39.8	100.0	

* $p<.05$, ** $p<.01$, *** $p<.001$

학교나 기관의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기관과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33.8%,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는 “보통”에 대한 응답률이 34.8%,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177.309($p<.001$)로 유의미하였다.

앞서 주지했듯이 상담과 치료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및 기관에서 내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외부 자원과 연계해야 하며, 정부는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이 다양하게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표 III-76.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35	52	220	148	177	632	177.309***
		5.5	8.2	34.8	23.4	28.0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3	19	150	133	161	476	
		2.7	4.0	31.5	27.9	33.8	100.0	
	대안교육 기관	35	67	149	50	43	344	
		10.2	19.5	43.3	14.5	12.5	100.0	
	위탁교육 기관	4	10	96	68	121	299	
		1.3	3.3	32.1	22.7	40.5	100.0	

* $p<.05$, ** $p<.01$, *** $p<.001$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진행 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경우는 “대체로 그렇다”가 38.4%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하지만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도 이와 유사하게 높은 3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3.864($p<.001$)로 유의미하였다.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대안교육 특성 상 안전문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학교 및 기관이 교육 및 활동 제공에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 Ⅲ-77.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_학습활동 진행 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3	14	130	205	280	632	43.864***
		0.5	2.2	20.6	32.4	44.3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4	9	84	141	238	476	
		0.8	1.9	17.7	29.6	50.0	100.0	
	대안교육 기관	5	7	75	132	125	344	
		1.5	2.0	21.8	38.4	36.3	100.0	
	위탁교육 기관	0	2	51	69	177	299	
		0.0	0.7	17.1	23.1	59.2	100.0	

* $p<.05$, ** $p<.01$, *** $p<.001$

4)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

청소년들이 대안교육을 통하여 체감하게 된 전반적인 변화들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기관에 따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들은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기관별 평균과 응답률을 문항 전체와 세부 문항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변화 전체 문항의 총합에 대한 각 기관별 평균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교와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3.82~4.07사이로 평균 3.99의 높은 변화율을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평균 4.07로 가장 높은 변화 정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안학교 4.00, 대안교육기관 3.82 순으로 변화 정도를 나타냈다[그림 Ⅲ-12].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 값 7.890으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III-78. 기관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전반적인 변화	대안학교(a)	632	4.00	.77962	7.890***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07	.80571	
	대안교육 기관(c)	344	3.82	.74269	
	위탁교육 기관(d)	299	4.07	.77339	
	계	1751	3.99	.78328	c(a,b,d)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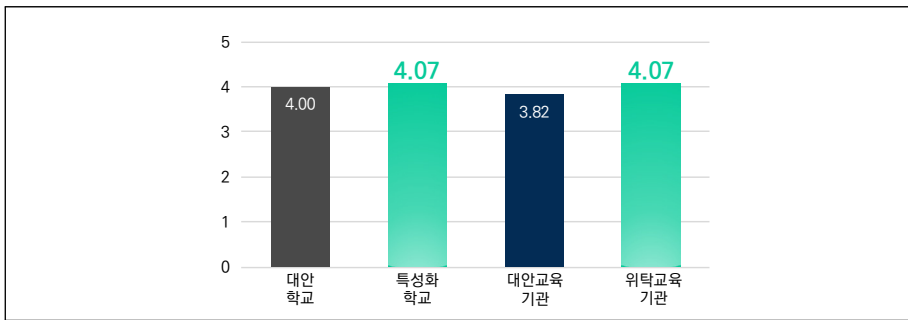


그림 III-12. 기관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

(1) 기관별 조사결과

① 전체 기관

세부 문항별 비교분석 전, 전체 및 기관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각 문항별 변화정도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표를 통해 전체 그리고 각 기관별 청소년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떤 수준의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변화 수준 평균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변화정도 평균은 3.99였으며 각 문항 별로 3.78~4.18 범위의 변화 정도를 보였다. 가장 변화 정도가 큰 문항은 “친구 및 선생님 들과 관계가 좋아졌다”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이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평균 4.13,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평균 4.06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 외에도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등의 문항도 높은 변화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안교육의 효과는 친구 및 선생님들과의 관계 개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돕고자 하는 마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책무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문항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고, 변화정도가 낮게 나타난 학업에 대한 열정과 진로 선택 같은 영역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효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 및 기관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표 Ⅲ-79.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전체 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전반적인 변화 전체	1751	1	5	3.99	.783	
(1)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1751	1	5	4.18	.948	1
(2)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1751	1	5	3.78	1.144	
(3)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1751	1	5	3.80	1.121	
(4) 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1751	1	5	4.03	1.017	
(5)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1751	1	5	3.93	1.061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1751	1	5	4.13	.907	2
(7)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1751	1	5	4.06	.972	3
(8)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1751	1	5	3.97	1.034	
(9)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1751	1	5	4.18	.906	1
(10)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1751	1	5	3.96	1.059	
(11)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1751	1	5	3.99	.957	
(12)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751	1	5	3.89	1.077	

② 대안학교

다음으로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변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변화정도 전체 평균은 4.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변화정도가 큰 문항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로 평균 4.20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4.17,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4.10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 밖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4.06,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4.01,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4.00 등으로 높은 변화 정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 -80.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대안학교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전반적인 변화 전체	632	1	5	4.00	0.780	
(1)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632	1	5	4.17	0.953	2
(2)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632	1	5	3.76	1.155	
(3)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632	1	5	3.86	1.070	
(4) 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632	1	5	3.97	1.027	
(5)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632	1	5	3.95	1.055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632	1	5	4.10	0.933	3
(7)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632	1	5	4.06	0.978	
(8)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632	1	5	4.01	1.014	
(9)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632	1	5	4.20	0.921	1
(10)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632	1	5	3.99	1.058	
(11)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632	1	5	4.00	0.947	
(12)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632	1	5	3.88	1.080	

③ 특성화 중고등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변화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 중고등학교 변화정도 평균은 4.0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변화정도가 큰 문항은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이며 평균 4.25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4.2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4.20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 밖에 “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4.12,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4.11,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4.09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은 변화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특성화 중고등학교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전반적인 변화 전체	476	1	5	4.07	0.806	
(1)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476	1	5	4.25	0.962	1
(2)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476	1	5	3.87	1.142	
(3)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476	1	5	3.89	1.114	
(4) 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476	1	5	4.12	1.003	
(5)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476	1	5	4.02	1.028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476	1	5	4.20	0.915	3
(7)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476	1	5	4.11	0.983	
(8)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476	1	5	4.05	1.033	
(9)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476	1	5	4.22	0.886	2
(10)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476	1	5	4.07	1.030	
(11)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476	1	5	4.09	0.929	
(12)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476	1	5	3.91	1.110	

④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 전체 평균은 3.82로 조사되었으며 변화정도가 가장 큰 문항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로 평균 4.15로 나타났다.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가 모두 평균 4.01로 두 번째 높은 평균을 보였다. 다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3.94, “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3.88,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3.86 등으로 높은 변화정도를 보였다.

표 III-82.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대안교육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전반적인 변화 전체	344	1	5	3.82	0.743	
(1)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344	1	5	4.01	0.946	2
(2)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344	1	5	3.50	1.143	
(3)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344	1	5	3.43	1.188	
(4) 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344	1	5	3.88	1.043	
(5)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344	1	5	3.67	1.118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344	1	5	4.01	0.876	2
(7)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344	1	5	3.94	0.953	3
(8)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344	1	5	3.86	1.044	
(9)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344	1	5	4.15	0.895	1
(10)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344	1	5	3.73	1.108	
(11)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344	1	5	3.83	0.975	
(12)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344	1	5	3.86	1.077	

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변화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탁교육기관의 전체 변화정도 평균은 4.07로 조사되었으며,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가 평균 4.27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4.23)”,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4.20)”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4.13)”,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4.12)”,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4.07)” 순으로 변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 -83. 문항별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_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전반적인 변화 전체	299	1	5	4.07	0.773	
(1)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299	1	5	4.27	0.893	1
(2)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299	1	5	4.00	1.059	
(3)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299	1	5	3.95	1.075	
(4) 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299	1	5	4.20	0.952	3
(5)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299	1	5	4.07	1.011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299	1	5	4.23	0.855	2
(7)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299	1	5	4.12	0.956	
(8)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299	1	5	3.89	1.053	
(9)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299	1	5	4.13	0.921	
(10)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299	1	5	4.02	1.013	
(11)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299	1	5	4.00	0.980	
(12)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99	1	5	3.95	1.017	

(2) 문항별 조사결과

다음으로 전반적인 변화 세부 문항별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변화 첫 번째로 대안교육 참여 이후로 친구 및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문항 전체 평균은 4.18이었으며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4.27로 가장 높은 변화 정도를 나타냈다. 특성화 중고등학교 4.25, 대안학교 4.17, 대안교육기관 4.01 순으로 높은 수준에서 응답되었다[그림 III-13].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5.407로 $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기관별 응답률 비교 결과를 보면,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 역시 35.5%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다른 학교 및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3.320($p<.001$)으로 유의미하였다.

일반학교와 달리 학생 정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안교육 기관 및 학교의 특징은 친구나 선생님과의 친밀성 증진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를 이용하여 학교 및 기관 전체 구성원 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면 이를 통해 대안교육의 효과성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표 Ⅲ-84. 전반적인 변화_친구 및 선생님들의 관계가 좋아졌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17	.953	5.407**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25	.962		
		대안교육 기관(c)		344	4.01	.946		
		위탁교육 기관(d)		299	4.27	.893		
		계		1751	4.18	.948	c\<b,d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5	11	119	193	294	632	43.320***
		2.4	1.7	18.8	30.5	46.5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7	19	76	120	254	476	
		1.5	4.0	16.0	25.2	53.4	100.0	
	대안교육 기관	9	7	76	130	122	344	
		2.6	2.0	22.1	37.8	35.5	100.0	
	위탁교육 기관	2	7	56	76	158	299	
		0.7	2.3	18.7	25.4	52.8	100.0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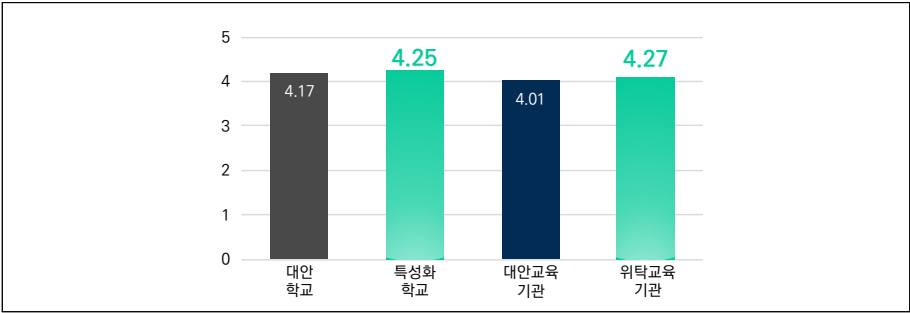


그림 III-13. 전반적인 변화_친구 및 선생님들의 관계가 좋아졌다.

‘대안교육 참여를 통한 변화 두 번째 질문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이며 본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3.78이며 위탁교육기관이 평균 4.00으로 가장 높은 변화 정도를 보였다. 특성화 중고등학교 3.87, 대안학교 3.76, 대안교육기관 3.05 순으로 변화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그림 III-14).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11.475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기관별 응답률을 보면, 대안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43.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보통”이 32.6%, “대체로 그렇다” 26.5%, “매우 그렇다” 23.6%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1.6%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6.457($p < .001$)로 유의미하였다.

공동체, 자치, 참여와 같이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철학이 강조된 교육과정을 각 학교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대안교육이 가지는 차별성이지만 그와 함께 학습의 동기를 높여주는 것 역시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학습동기 강화 방안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표 III-85. 전반적인 변화_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3.76	1.155	11.745***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3.87	1.142		
		대안교육 기관(c)		344	3.50	1.143		
		위탁교육 기관(d)		299	4.00	1.059		
		계		1751	3.78	1.144	c<a<d c<b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32	55	160	173	212	632	46.457***
		5.1	8.7	25.3	27.4	33.5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9	42	104	127	184	476	
		4.0	8.8	21.9	26.7	38.7	100.0	
	대안교육 기관	20	40	112	91	81	344	
		5.8	11.6	32.6	26.5	23.6	100.0	
	위탁교육 기관	7	15	80	66	131	299	
		2.3	5.0	26.8	22.1	43.8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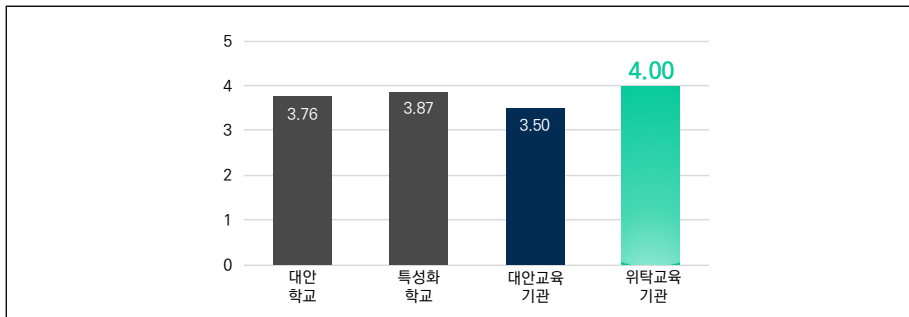


그림 III-14. 전반적인 변화_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다음으로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전체 평균은 3.80으로 위탁교육기관이 평균 3.95로 가장 높은 변화정도를 나타냈다.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3.86, 유사하게 대안학교가 3.86의 평균을 보였으며, 대안교육기관은 3.43 이다[그림 III-15]. 기관별 차이는 F값 16.281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학교와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경우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의 순으로 응답률이 조사되었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가 29.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통” 27.0%, “매우 그렇다” 21.5%로 응답하였다. 위탁교육기관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42.5%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 29.1%, “대체로 그렇다” 20.4%의 순으로 기관 간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71.938($p<.001$)로 유의미하였다.

대안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여행, 문화, 예술, 스포츠, 공동체, 자치 등의 활동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량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대안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의 크기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I-86. 전반적인 변화_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3.86	1.070	16.281***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3.89	1.114		
		대안교육 기관(c)		344	3.43	1.188		
		위탁교육 기관(d)		299	3.95	1.075		
		계		1751	3.80	1.121	c<a,b,d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9	42	173	175	223	632	71.938***
		3.0	6.7	27.4	27.7	35.3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21	30	107	139	179	476	
		4.4	6.3	22.5	29.2	37.6	100.0	
	대안교육 기관	25	51	93	101	74	344	
		7.3	14.8	27.0	29.4	21.5	100.0	
	위탁교육 기관	7	17	87	61	127	299	
		2.3	5.7	29.1	20.4	42.5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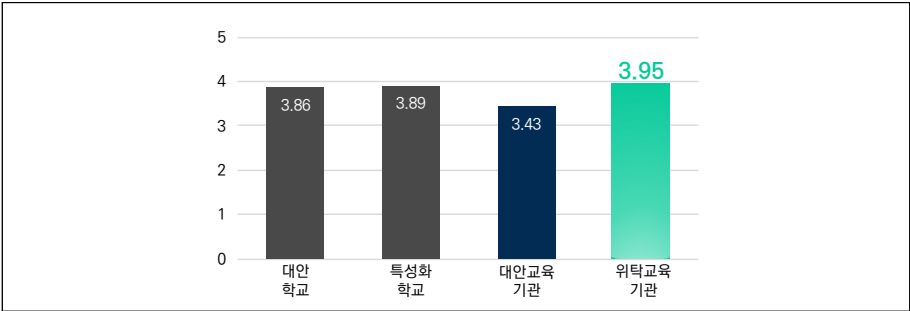


그림 III-15. 전반적인 변화_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대안교육 참여 이후 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4.0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평균은 4.20으로 위탁교육기관 참가자들이다. 다음으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4.12, 대안학교 3.97, 대안교육기관 3.88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그림 III-16).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7.383으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 응답률을 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위탁교육기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51.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 44.8%, 대안학교 38.8%, 대안교육기관 34.6%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2.479($p < .001$)로 유의미하였다.

본인과 타인에 대한 존중은 대안교육을 통해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관은 이러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표 Ⅲ-87. 전반적인 변화_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3.97	1.027	7.383***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12	1.003	
	대안교육 기관(c)	344	3.88	1.043	
	위탁교육 기관(d)	299	4.20	.952	
	계	1751	4.03	1.017	a<d c<b,d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7	28	156	186	245	632
		2.7	4.4	24.7	29.4	38.8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2	22	76	153	213	476
		2.5	4.6	16.0	32.1	44.8	100.0
	대안교육 기관	7	28	84	106	119	344
		2.0	8.1	24.4	30.8	34.6	100.0
	위탁교육 기관	3	9	66	68	153	299
		1.0	3.0	22.1	22.7	51.2	100.0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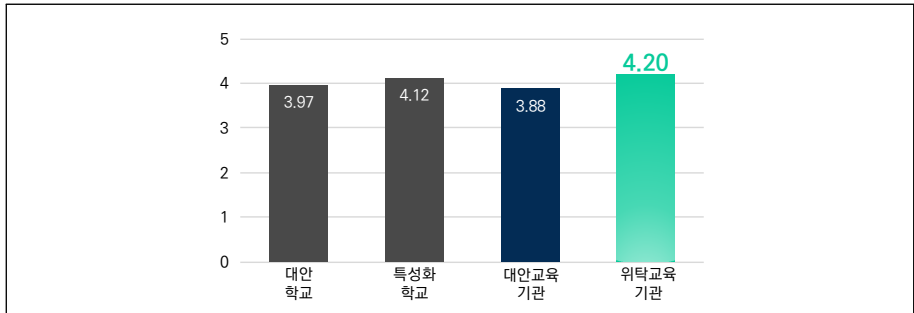


그림 Ⅲ-16. 전반적인 변화_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대안교육 참여가 본인 스스로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3.93으로 나타났으며,

위탁교육기관이 평균 4.07로 가장 높은 변화 정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4.02, 대안학교 3.95, 대안교육기관 3.67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III-17). 기관별 차이는 F값 10.221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안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위탁교육기관은 “매우 그렇다”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 “대체로 그렇다” 29.9%, “보통” 28.8%, “매우 그렇다” 27.6%의 순으로 응답되어 기관 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1.681($p<.001$)로 유의미하였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제공은 대안교육을 통한 긍정적 발전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III-88.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3.95	1.055	10.221***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02	1.028	
		대안교육 기관(c)		344	3.67	1.118	
		위탁교육 기관(d)		299	4.07	1.011	c(a,b,d)
		계		1751	3.93	1.06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20	25	173	163	251	632	41.681***
		3.2	4.0	27.4	25.8	39.7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0	23	118	123	202	476	
		2.1	4.8	24.8	25.8	42.4	100.0	
	대안교육 기관	17	30	99	103	95	344	
		4.9	8.7	28.8	29.9	27.6	100.0	
	위탁교육 기관	7	7	79	70	136	299	
		2.3	2.3	26.4	23.4	45.5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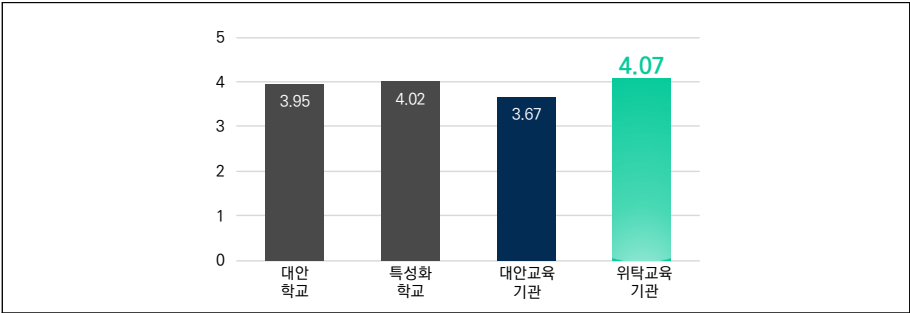


그림 III-17.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4.13으로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위탁 교육기관의 평균이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4.20, 대안 학교 4.10, 대안교육기관 4.01의 순으로 응답되었다[그림 III-18]. 이러한 기관별 평균의 차이는 F값 4.485로 $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및 기관에 서는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가 4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로 “매우 그렇다” 32.0, “보통” 22.1% 순으로 응답되어 기관 간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3.532($p<.01$)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89. 전반적인 변화_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10	.933	4.485**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20	.915	
	대안교육 기관(c)	344	4.01	.876	
	위탁교육 기관(d)	299	4.23	.855	
	계	1751	4.13	.907	c<b,d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0	16	137	204	265	632	33.532**
		1.6	2.5	21.7	32.3	41.9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7	14	77	157	221	476	
		1.5	2.9	16.2	33.0	46.4	100.0	
	대안교육 기관	5	8	76	145	110	344	
		1.5	2.3	22.1	42.2	32.0	100.0	
	위탁교육 기관	1	4	64	85	145	299	
		0.3	1.3	21.4	28.4	48.5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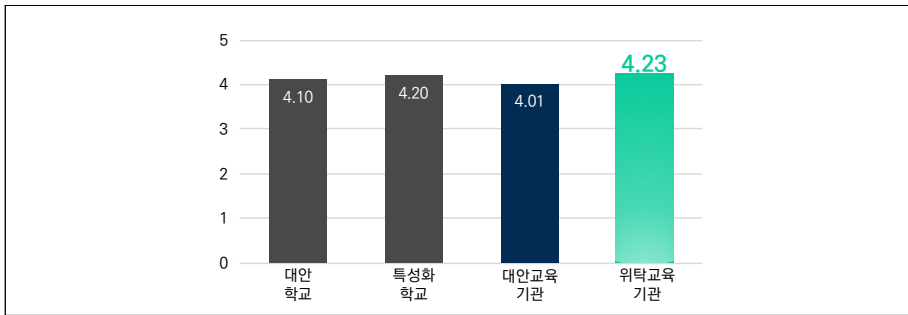


그림 Ⅲ-18. 전반적인 변화_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전반적인 변화 일곱 번째 질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문항이다. 본 문항 전체 평균은 4.0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교육기관이 4.12, 특성화 중고등학교 4.11로 유사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변화정도를 보였다. 그 뒤로 대안학교 4.06, 대안교육기관 3.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2.661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률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가 38.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뒤로 “매우 그렇다” 32.0%, “보통” 22.4%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27.533($p<.001$)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90. 전반적인 변화_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06	.978	2.661*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11	.983		
		대안교육 기관(c)		344	3.94	.953		
		위탁교육 기관(d)		299	4.12	.956		
		계		1751	4.06	.97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3	23	138	200	258	632	27.533**
		2.1	3.6	21.8	31.7	40.8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3	10	98	145	210	476	
		2.7	2.1	20.6	30.5	44.1	100.0	
	대안교육 기관	6	18	77	133	110	344	
		1.7	5.2	22.4	38.7	32.0	100.0	
	위탁교육 기관	4	8	72	78	137	299	
		1.3	2.7	24.1	26.1	45.8	100.0	

* $p < .05$, ** $p < .01$, *** $p < .001$

대안교육 참여 이후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3.97이었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4.05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 뒤로 대안학교 4.01, 위탁교육기관 3.89, 대안교육기관 3.86으로 유사한 수치 안에서 비중의 높낮이를 보였다.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3.469로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기관별 응답률의 특성을 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로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및 기관에서는 “대체로 그렇다”, “보통”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보통” 34.5%, “대체로 그렇다” 20.7%의 순으로 응답되어 기관 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7.662($p < .001$)로 유의미하였다.

대안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인 리더십과 협동심은 사회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 중 하나로, 리더십과 협동심의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위해 학교 및

기관의 지원이 확대 될 필요성이 있다.

표 III-91. 전반적인 변화_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01	1.014	3.469*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05	1.033		
		대안교육 기관(c)	344	3.86	1.044		
		위탁교육 기관(d)	299	3.89	1.053		
		계	1751	3.97	1.03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5	25	155	178	259	632	37.662***
		2.4	4.0	24.5	28.2	41.0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1	23	106	125	211	476	
		2.3	4.8	22.3	26.3	44.3	100.0	
	대안교육 기관	7	30	83	109	115	344	
		2.0	8.7	24.1	31.7	33.4	100.0	
	위탁교육 기관	8	11	103	62	115	299	
		2.7	3.7	34.5	20.7	38.5	100.0	

* $p<.05$, ** $p<.01$, *** $p<.001$

대안교육의 참여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4.18로 높은 수준의 변화 정도를 보였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평균 4.22로 가장 높은 변화 정도를 표시했다. 그 뒤로 대안학교 4.20, 대안교육 기관 4.15, 위탁교육기관 4.13으로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변화율을 보고하였으며 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40%대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로 “대체로 그렇다”, “보통” 순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보통” 27.4%, “대체로 그렇다” 24.1%로 다른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응답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28.140($p<.01$)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92. 전반적인 변화_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20	.921	.694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22	.886		
		대안교육 기관(c)		344	4.15	.895		
		위탁교육 기관(d)		299	4.13	.921		
		계		1751	4.18	.90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0	13	118	191	300	632	28.140**
		1.6	2.1	18.7	30.2	47.5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5	13	77	160	221	476	
		1.1	2.7	16.2	33.6	46.4	100.0	
	대안교육 기관	4	11	58	126	145	344	
		1.2	3.2	16.9	36.6	42.2	100.0	
	위탁교육 기관	2	5	82	72	138	299	
		0.7	1.7	27.4	24.1	46.2	100.0	

* $p < .05$, ** $p < .01$, *** $p < .001$

대안교육 참여 이후 학생자치활동과 같은 다양한 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었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3.96이었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평균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로 위탁교육기관 4.02, 대안학교 3.99, 대안교육기관 3.73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그림 III-19]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7.450으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기관별로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하여 40%대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30.5%로 가장 낮았으며 “대체로 그렇다” 28.8%, “보통” 28.5%로 유사한 응답비중을 보여 다른 학교 및 기관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27.525($p < .01$)로 유의미하였다.

대안교육을 통한 긍정적 변화의 하나인 적극적인 자치활동 참여는 참여의 자율성 보장

과 자치활동을 통해 도출된 의견 수용과 같은 학교 및 기관의 노력에 의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표 III -93. 전반적인 변화_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3.99	1.058	7.450***	c\ a,b,d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07	1.030		
	대안교육 기관(c)		344	3.73	1.108		
	위탁교육 기관(d)		299	4.02	1.013		
	계		1751	3.96	1.05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9	31	150	171	261	632	27.525**
		3.0	4.9	23.7	27.1	41.3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9	25	108	117	217	476	
		1.9	5.3	22.7	24.6	45.6	100.0	
	대안교육 기관	15	27	98	99	105	344	
		4.4	7.9	28.5	28.8	30.5	100.0	
	위탁교육 기관	7	10	78	79	125	299	
		2.3	3.3	26.1	26.4	41.8	100.0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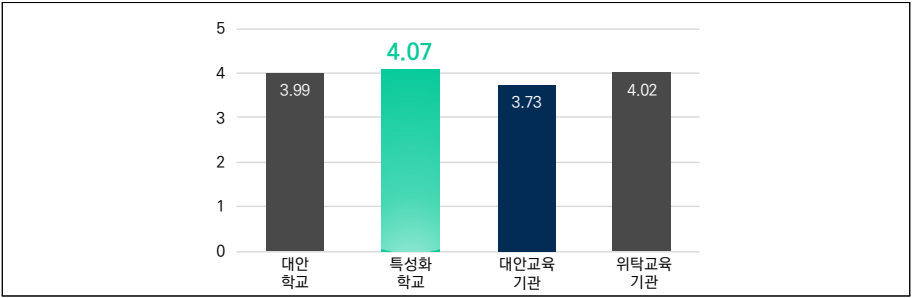


그림 III -19. 전반적인 변화_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대안교육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전체 평균은 3.99였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평균이 4.09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는 대안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이 4.00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평균이 3.83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II-20).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4.905로 $p < .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기관별로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은 “매우 그렇다”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은 “대체로 그렇다”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35.706($p < .001$)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94. 전반적인 변화_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11)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대안학교(a)		632	4.00	.947	4.905**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09	.929		
		대안교육 기관(c)		344	3.83	.975		
		위탁교육 기관(d)		299	4.00	.980		
		계		1751	3.99	.957	c<b	
구분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15	15	147	231	224	632	35.706***
		2.4	2.4	23.3	36.6	35.4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6	10	120	140	200	476	
		1.3	2.1	25.2	29.4	42.0	100.0	
	대안교육 기관	7	20	95	124	98	344	
		2.0	5.8	27.6	36.1	28.5	100.0	
	위탁교육 기관	5	9	86	80	119	299	
		1.7	3.0	28.8	26.8	39.8	100.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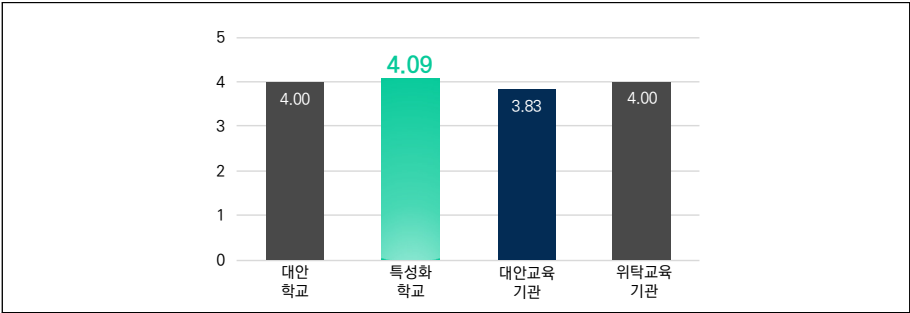


그림 III-20. 전반적인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전반적인 변화 마지막 12번째 질문은 대안교육 참여 이후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이다.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3.89로 나타났으며 위탁교육기관의 변화 정도가 평균 3.95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 뒤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3.91, 대안학교 3.88, 대안교육기관 3.86 순으로 응답되었다. 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보통”이 30.1%로 두 번째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대체로 그렇다”가 25.4%로 세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나머지 학교 및 기관에서는 그와 반대의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기관 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25.058($p<.05$)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95. 전반적인 변화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12)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안학교(a)	632	3.88	1.080	.478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3.91	1.110	
	대안교육 기관(c)	344	3.86	1.077	
	위탁교육 기관(d)	299	3.95	1.017	
	계	1751	3.89	1.07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24	37	156	190	225	632	25.058*
		3.8	5.9	24.7	30.1	35.6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9	33	103	138	183	476	
		4.0	6.9	21.6	29.0	38.5	100.0	
	대안교육 기관	13	27	68	124	112	344	
		3.8	7.9	19.8	36.1	32.6	100.0	
	위탁교육 기관	7	10	90	76	116	299	
		2.3	3.3	30.1	25.4	38.8	100.0	

* $p<.05$, ** $p<.01$, *** $p<.001$

5) 대안교육 만족도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기관 별로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대안교육 만족도는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은지,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총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 평균에 대한 기관별 비교, 각 기관별 조사결과 제시, 문항별 세부 비교분석 순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대안교육 만족도 전체 문항 평균에 대한 기관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전체 만족도는 평균 4.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교육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의 만족도는 4.26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4.16, 대안학교 4.09, 대안교육기관 3.93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7.985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대안교육의 효과성과도 높은 연계성을 가지는 요인으로, 학교와 기관은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적, 인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I -96. 기관별 대안교육 만족도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대안교육만족도	대안학교(a)	632	4.09	.919	7.985***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16	.908	
	대안교육 기관(c)	344	3.93	.937	
	위탁교육 기관(d)	299	4.26	.808	
	계	1751	4.11	.907	c<b,d

* $p < .05$, ** $p < .01$, *** $p < .001$

(1) 기관별 조사결과

① 전체 기관

세부 문항별 비교분석에 앞서 전체기관과 개별 학교 및 기관별 만족도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조사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 및 문항별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평균 4.11로 조사되었으며 문항별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4.19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4.17,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3.96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 -97. 대안교육 만족도_전체 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안교육 만족도 전체	1,751	1	5	4.11	.907
(1)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1,751	1	5	4.17	.970
(2)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1,751	1	5	3.96	1.108
(3)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51	1	5	4.19	.966

② 대안학교

대안교육 참여 만족도 결과를 대안학교에 소속된 청소년들의 응답만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들의 대안교육 전반적 만족도는 4.09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만족도가 4.16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다음으로는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4, 대안교육의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은 정도가 3.96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98.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학교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안교육 만족도 전체	632	1	5	4.09	.919
(1)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632	1	5	4.16	.985
(2)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632	1	5	3.96	1.081
(3)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32	1	5	4.14	.962

③ 특성화중고등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만족도 평균은 4.1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와 기관의 확대에 대한 생각이 4.23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유사한 평균 수준으로,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만족도가 4.22로 조사되었으며 대안교육의 참여에 대한 권유 정도는 4.05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응답되었다.

표 III-99. 대안교육 만족도_특성화중고등학교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안교육 만족도 전체	476	1	5	4.16	.908
(1)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476	1	5	4.22	.965
(2)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476	1	5	4.05	1.081
(3)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76	1	5	4.23	.960

④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대안교육 만족도 전체 평균은 3.93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와 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4.1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만족도 4.01, 대안교육 참여에 대한 권유가 3.68로 가장 낮은 응답 수준을 보였다.

표 III-100.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안교육 만족도 전체	344	1	5	3.93	.937
(1)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344	1	5	4.01	.984
(2)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344	1	5	3.68	1.194
(3)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4	1	5	4.11	.956

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탁교육기관의 전체 만족도는 평균 4.26으로 다른 학교 및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만족도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대안교육 제공 학교 및 기관의 확대에 대한 생각이 4.32, 대안교육 참여에 대한 권유 생각이 4.11로 모든 문항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01.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안교육 만족도 전체	299	1	5	4.26	.808
(1)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299	1	5	4.34	.897
(2)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299	1	5	4.11	1.049
(3)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99	1	5	4.32	.919

(2) 문항별 조사결과

대안교육 참여에 대한 만족도의 세부 문항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첫 번째 질문은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이며 본 문항 전체 평균은 4.17로 분석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위탁교육기관이 만족도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4.22, 대안학교 4.16, 대안교육기관 4.0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II-21]. 이러한 기관별 만족도의 차이는 F값 6.980으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문항에 대한 기관별 응답률 결과를 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58.5%,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37.8%로 기관에 따라 높은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2.593($p<.001$)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102.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16	.985	6.980***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22	.965	
	대안교육 기관(c)			344	4.01	.984	
	위탁교육 기관(d)			299	4.34	.897	
	계			1751	4.17	.970	a<d, c<b,d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교차 분석	대안학교	18	12	121	184	297	632
		2.9	1.9	19.2	29.1	47.0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6	16	97	107	250	476
		1.3	3.4	20.4	22.5	52.5	100.0
	대안교육 기관	8	13	78	115	130	344
		2.3	3.8	22.7	33.4	37.8	100.0
	위탁교육 기관	3	5	53	63	175	299
		1.0	1.7	17.7	21.1	58.5	100.0

* $\alpha<.05$, ** $\alpha<.01$, *** $\alpha<.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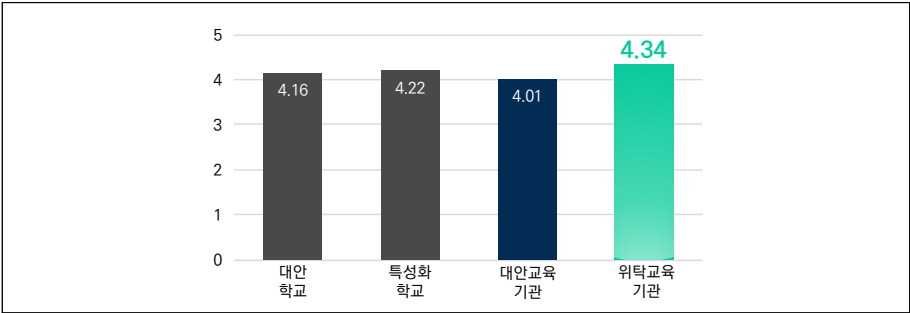


그림 III-21.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만족도 두 번째 질문인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문항 전체 평균은 3.96으로 조사되었으며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문항 평균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4.05, 대안학교 3.96, 대안교육기관 3.6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그림 III-22].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10.451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문항별 응답률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안교육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및 학교에서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순으로 응답되었지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매우 그렇다” 32.9%, “보통” 26.7%, “대체로 그렇다” 24.1% 순으로 응답된 것으로 나타나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42.042($p<.001$)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103.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3.96	1.081	10.451***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05	1.081	
	대안교육 기관(c)	344	3.68	1.194	
	위탁교육 기관(d)	299	4.11	1.049	
	계	1751	3.96	1.108	c<a,b,d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25 4.0	28 4.4	148 23.4	178 28.2	253 40.0	632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7 3.6	20 4.2	104 21.9	116 24.4	219 46.0	476 100.0
	대안교육 기관	19 5.5	37 10.8	92 26.7	83 24.1	113 32.9	344 100.0
	위탁교육 기관	9 3.0	12 4.0	59 19.7	75 25.1	144 48.2	299 100.0
							42.04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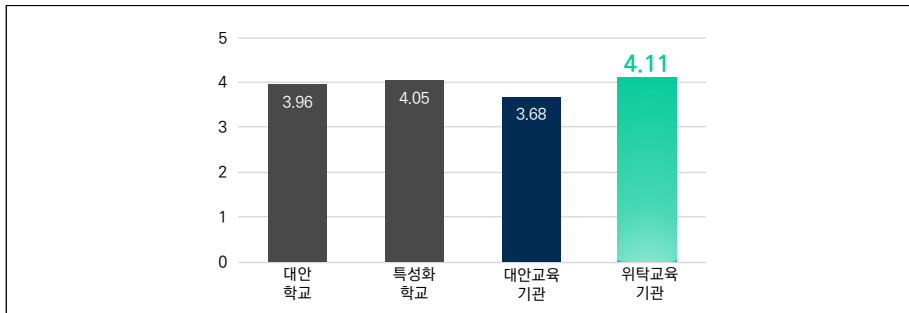


그림 III-22.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대안교육 참여 만족도 마지막 질문인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평균은 4.19로 높은 수준으로 응답되었으며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평균 4.32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에 이어 특성화 중고등학교 4.23, 대안학교 4.14, 대안교육기관 4.11의 순으로 모든 기관 및 학교에서 높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기관별 만족도의 차이는 F값 3.463으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문항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로 “대체로 그렇다”, “보통”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나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보통”이 20.1%로 2순위, “대체로 그렇다”가 17.7%

로 3순위로 응답되어 기관별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23.401($p<.05$)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104. 대안교육 만족도_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3)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학교(a)		632	4.14	.992	3.463*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23	.960		
		대안교육 기관(c)		344	4.11	.956		
		위탁교육 기관(d)		299	4.32	.919		
		계		1751	4.19	.966	c<d	
구분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13	18	140	156	305	632	23.401*
		2.1	2.9	22.2	24.7	48.3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7	16	87	118	248	476	
		1.5	3.4	18.3	24.8	52.1	100.0	
	대안교육 기관	5	12	74	102	151	344	
		1.5	3.5	21.5	29.7	43.9	100.0	
	위탁교육 기관	2	7	60	53	177	299	
		0.7	2.3	20.1	17.7	59.2	100.0	

* $p<.05$, ** $p<.01$, *** $p<.001$

6)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및 기관의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를 기관별로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의 필요성은 학교 담당 교사의 확대, 대안교육 인식개선 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 재정적 지원, 진로 및 체험활동 확대, 모든 학생 동등한 지원 등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결과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문항 평균에 대한 기관별 비교, 각 기관별 조사결과 제시, 문항별 세부 비교분석 순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대안교육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의 필요성 전체 문항 평균에 대한 기관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필요성 전체 평균은 4.1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과 학교 모두 평균 4.15의 응답 수준을 보였으며 대안교육기관은 4.11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학교 및 기관에서 유사한 수준의 응답이 도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105. 기관별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개선방안	대안학교(a)	632	4.15	.702	401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15	.671	
	대안교육 기관(c)	344	4.11	.668	
	위탁교육 기관(d)	299	4.15	.744	
	계	1751	4.15	.695	

(1) 기관별 조사결과

① 전체 기관

개선사항의 필요성 정도와 관련하여 전체 및 기관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각 문항별 필요성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개선사항의 필요성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선사항 필요성 전체 평균은 4.15였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은 학교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으로 평균 4.35의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 장비 등의 확충이 평균 4.31, 진로탐색 활동 비중의 확대가 4.23으로 응답되었다. 그 밖에도 체험활동 비중이 확대,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등의 응답 역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은 대안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도움정도, 만족도 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기반적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재정적 지원 확대, 진로 및 체험 활동 비중 확대, 일반학교와의 동등한 지원 등의 항목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와 기관을 포함하여 지자체 및 정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표 III-106.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전체 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개선방안 필요정도 전체	1,751	1	5	4.15	.695	
(1)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1,751	1	5	3.70	1.034	
(2) 대안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751	1	5	4.02	.955	
(3)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1,751	1	5	4.31	.892	2
(4)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1,751	1	5	4.35	.897	1
(5) 체험활동 비중 확대	1,751	1	5	4.22	.917	
(6)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1,751	1	5	4.23	.919	3
(7) 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1,751	1	5	4.21	.972	

② 대안학교

다음으로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선사항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4.15였으며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등 장비의 확충 문항과 재정적 지원 확대 문항이 각각 평균 4.32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진로탐색 활동이 비중 확대가 평균 4.23, 체험활동 비중 확대가 평균 4.22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와 함께 일반학교와의 동등한 지원에 대한 의견 역시 평균 4.17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III-107.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대안학교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개선방안 필요정도 전체	632	1	5	4.15	.702	
(1)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632	1	5	3.75	1.033	
(2) 대안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632	1	5	4.02	.961	
(3)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632	1	5	4.32	.885	1
(4)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632	1	5	4.32	.921	1
(5) 체험활동 비중 확대	632	1	5	4.22	.912	3
(6)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632	1	5	4.23	.898	2
(7) 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632	1	5	4.17	.978	

③ 특성화중고등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전체 평균은 4.17로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성이 가장 큰 개선사항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확대로 평균 4.37로 조사되었다. 그 뒤로 체험활동 비중의 확대 평균 4.35,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평균 4.32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그 밖에도 공간, 시설, 장비 확충 4.29,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4.17 등으로 높게 응답 되었다.

표 III-108.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특성화중고등학교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개선사항필요성 전체	476	1	5	4.17	.671	
(1)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476	1	5	3.65	1.028	
(2) 대안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476	1	5	4.03	.912	
(3)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476	1	5	4.29	.842	
(4)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476	1	5	4.37	.847	1
(5) 체험활동 비중 확대	476	1	5	4.35	.849	2
(6)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476	1	5	4.32	.879	3
(7) 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476	1	5	4.17	.951	

④ 대안교육기관

개선사항의 필요성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전체 평균은 4.11로 비교적 높은 응답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사항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확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문항에 대한 평균은 4.40으로 본 연구에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질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평균이다. 그 이후로 일반학교와의 동등한 지원이 평균 4.37, 공간과 시설, 장비의 확충이 평균 4.34 등의 순으로 그 필요성이 보고되었다. 그 외에도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평균 4.08, 체험활동 비중 확대 평균 4.04 등 높은 수준에서 응답되었다.

표 III-109.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대안교육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개선사항필요성 전체	344	1	5	4.11	.668	
(1)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344	1	5	3.59	.952	
(2) 대안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344	1	5	3.97	.977	
(3)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344	1	5	4.34	.937	3
(4)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344	1	5	4.40	.924	1
(5) 체험활동 비중 확대	344	1	5	4.04	.914	
(6)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344	1	5	4.08	1.021	
(7) 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344	1	5	4.37	.966	2

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필요성 평균은 4.15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필요로 했던 개선사항은 재정적 지원확대가 평균 4.32로 1순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이 평균 4.26으로 2순위, 진로탐색 활동의 비중 확대가 평균 4.24로 3순위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4.22), 체험활동 비중확대(4.20)와 같은 문항도 높은 수준에서 응답 되었다.

표 III-110. 개선방안의 필요 정도_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문항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순위
개선사항필요성 전체	299	1	5	4.15	.744	
(1)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299	1	5	3.80	1.119	
(2) 대안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299	1	5	4.03	.986	
(3)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299	1	5	4.26	.933	2
(4)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299	1	5	4.32	.892	1
(5) 체험활동 비중 확대	299	1	5	4.20	1.002	
(6)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299	1	5	4.24	.884	3
(7) 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299	1	5	4.22	.985	

(2) 문항별 조사결과

세부 문항별로 기관별 평균 및 응답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선사항 첫 번째인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의 경우, 문항 전체 평균은 3.70으로 조사되었으며 위탁교육기관의 평균이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대안학교 3.75, 특성화 중고등학교 3.65, 대안교육 기관 3.59로 필요성을 보고했으며 이러한 기관별 필요성의 차이는 F값 3.162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기관별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안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기관의 경우 모두 “보통”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별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필요성의 차이는 χ^2 값 42.483($p<.001$)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조사 과정에서 수행된 전문가 자문, 포럼 및 협의회 등에서 도출된 의견을 참고하면, 실제 대안교육 현장의 교직원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교직원 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조사된 이유는 한 명의 교직원이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업무과중 상태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교직원의 수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대안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표 III-111. 개선방안_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3.75	1.033	3.162*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3.65	1.028	
	대안교육 기관(c)	344	3.59	.952	
	위탁교육 기관(d)	299	3.80	1.119	
	계	1751	3.70	1.03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19	36	211	181	185	632	42.483***
		3.0	5.7	33.4	28.6	29.3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12	39	174	129	122	476	
		2.5	8.2	36.6	27.1	25.6	100.0	
	대안교육 기관	5	30	134	106	69	344	
		1.5	8.7	39.0	30.8	20.1	100.0	
	위탁교육 기관	10	19	105	51	114	299	
		3.3	6.4	35.1	17.1	38.1	100.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개선사항 두 번째 “대안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문항 평균은 4.02로 조사되었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위탁교육기관 모두 평균 4.03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후 대안학교 역시 유사한 평균 4.02로 뒤를 이었으며 대안교육기관은 평균 3.97로 조사되었다. 모든 기관이 유사한 수준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며 기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문항에 대한 기관별 응답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문항들이 유사한 수준에서 응답되어 기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에 의하면 대안교육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및 교사 모두 동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다양한 진로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필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이 홍보되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표 III-112. 개선방안_대안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2) 대안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대안학교(a)		632	4.02	.961	.326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03	.912		
		대안교육 기관(c)		344	3.97	.977		
		위탁교육 기관(d)		299	4.03	.986		
		계		1751	4.02	.955		
구분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11	20	159	197	245	632	11.245
		1.7	3.2	25.2	31.2	38.8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3	16	124	152	181	476	
		0.6	3.4	26.1	31.9	38.0	100.0	
	대안교육 기관	5	18	85	110	126	344	
		1.5	5.2	24.7	32.0	36.6	100.0	
	위탁교육 기관	5	9	84	76	125	299	
		1.7	3.0	28.1	25.4	41.8	100.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의 분석결과이다. 문항 평균은 4.31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안교육기관이 평균 4.34로 본 개선사항에 대해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그 뒤로도 나머지 모든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하였는데, 대안학교 평균 4.32, 특성화 중고등학교 평균 4.29, 위탁교육기관 평균 4.26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응답률 비교에서도 학교 및 기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안교육에서 제공하는 학습 및 활동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활동이 여행, 스포츠, 예술 활동으로 확인되는데 정작 이러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 및 기관이 많다. 체육관, 스포츠 장비, 악기 등 다양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113. 개선방안_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32	.885	.535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29	.842		
		대안교육 기관(c)		344	4.34	.937		
		위탁교육 기관(d)		299	4.26	.933		
		계		1751	4.31	.89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4	14	112	146	356	632	17.666
		0.6	2.2	17.7	23.1	56.3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3	5	86	138	244	476	
		0.6	1.1	18.1	29.0	51.3	100.0	
	대안교육 기관	6	7	55	72	204	344	
		1.7	2.0	16.0	20.9	59.3	100.0	
	위탁교육 기관	4	5	62	66	162	299	
		1.3	1.7	20.7	22.1	54.2	100.0	

* $p < .05$, ** $p < .01$, *** $p < .001$

네 번째 개선사항인 학교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 문항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평균은 4.35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교육기관이 평균 4.40으로 가장 높은 응답수준을 보였다. 그 뒤로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평균이 4.37이었으며, 대안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은 모두 평균 4.32로 나타나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유사한 수준의 응답이 보고되었다. 기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률 비교 결과, 기관별 평균비교와 같이 기관별 응답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해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대안교육은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일반학교와의 차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 및 기관에서 활동과 체험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대안교육의 본질과 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표 III-114. 개선방안_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32	.921	.798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37	.847		
		대안교육 기관(c)		344	4.40	.924		
		위탁교육 기관(d)		299	4.32	.892		
		계		1751	4.35	.89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4	16	127	111	374	632	18.169
		0.6	2.5	20.1	17.6	59.2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3	5	82	110	276	476	
		0.6	1.1	17.2	23.1	58.0	100.0	
	대안교육 기관	4	10	51	57	222	344	
		1.2	2.9	14.8	16.6	64.5	100.0	
	위탁교육 기관	1	6	62	57	173	299	
		0.3	2.0	20.7	19.1	57.9	100.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다섯 번째 개선사항인 체험활동 비중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 조사 결과이다. 문항 평균은 4.22로 조사되었으며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평균이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대안학교 4.22, 위탁교육기관 4.20, 대안교육기관 4.04 순으로 응답되었으며[그림 III-23] 이러한 기관별 필요성의 차이는 F값 7.500으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률 비교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기관별로 38.4%에서 56.5%로 각기 다른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필요성의 차이는 χ^2 값 40.350($p < .001$)으로 유의미하였다.

체험활동 역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체험 가능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가능하다. 지역사회 많은 기관과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성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115. 개선방안_체험활동 비중 확대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22	.912	7.500*** c<a,b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35	.849		
		대안교육 기관(c)		344	4.04	.914		
		위탁교육 기관(d)		299	4.20	1.002		
		계		1751	4.22	.91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6	15	128	170	313	632	40.350***
		1.0	2.4	20.3	26.9	49.5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3	5	84	115	269	476	
		0.6	1.1	17.7	24.2	56.5	100.0	
	대안교육 기관	3	10	88	111	132	344	
		0.9	2.9	25.6	32.3	38.4	100.0	
	위탁교육 기관	4	13	63	59	160	299	
		1.3	4.4	21.1	19.7	53.5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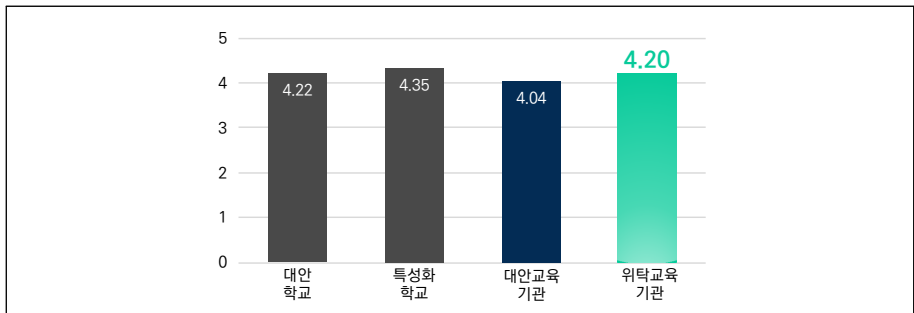


그림 III-23. 개선방안_체험활동 비중 확대

대안교육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의 필요성 여섯 번째는 진로탐색 활동 비중의 확대이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전체 평균은 4.23이었으며 본 개선사항에 대한 필요성은 특성화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특성화 중고등학교 평균 4.32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위탁교육기관 4.24, 대안학교 4.23, 대안교육기관 4.0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그림 III-24).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F값 4.469로 $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률 비교를 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45.6%, 특성화 중고등학교 55.7%로 가장 낮은 응답률과 가장 높은 응답률 간에 약 10%p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기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χ^2 값 21.465($p<.05$)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116. 개선방안_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6)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대안학교(a)		632	4.23	.898	4.469**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32	.879		
		대안교육 기관(c)		344	4.08	1.021		
		위탁교육 기관(d)		299	4.24	.884		
		계		1751	4.23	.919	c<b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학교 및 기관	대안학교	4	11	141	153	323	632	21.465*
		0.6	1.7	22.3	24.2	51.1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3	9	87	112	265	476	
		0.6	1.9	18.3	23.5	55.7	100.0	
	대안교육 기관	8	13	79	87	157	344	
		2.3	3.8	23.0	25.3	45.6	100.0	
	위탁교육 기관	1	7	62	78	151	299	
		0.3	2.3	20.7	26.1	50.5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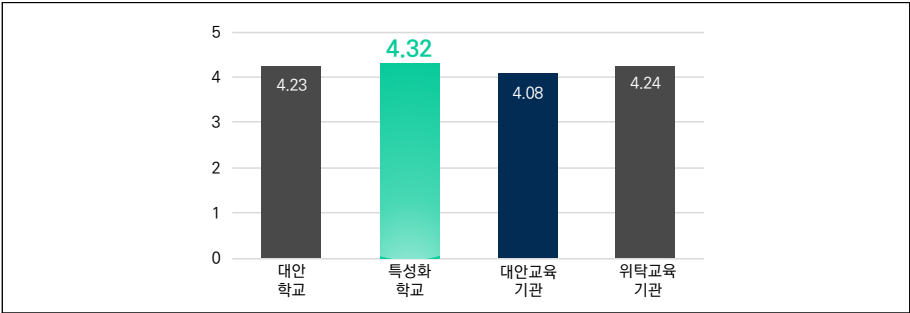


그림 III-24. 개선방안_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마지막 일곱 번째 개선사항은 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한 일반학교와의 동등한 지원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전체 평균은 4.21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응답되었다. 본 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보고한 기관은 대안교육기관으로 평균 4.37로 높게 응답되었다. 그 외 나머지 기관도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는데, 위탁교육기관 4.22, 대안학교와 특성화 중고등학교 4.17의 순으로 높은 응답수준을 보였다(그림 III-25). 이러한 기관별 필요성의 차이는 F값 3.841로 $p < .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문항 응답률의 차이를 보면, 모든 학교 및 기관에서 “매우 그렇다”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경우 49.0%, 대안교육기관 62.8%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학교 및 기관에 따른 차이는 χ^2 값 29.736($p < .01$)으로 유의미하였다.

일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일반학교의 청소년들과 대안학교 및 기관의 청소년들은 동등하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대안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및 기관의 동등한 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표 III-117. 개선방안_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단위 : 명, %)

문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비교		대안학교(a)	632	4.17	.978	3.841**	a<c, b<c
		특성화 중고등학교(b)	476	4.17	.951		
		대안교육 기관(c)	344	4.37	.966		
		위탁교육 기관(d)	299	4.22	.985		
		계	1751	4.21	.97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교차 분석	대안학교	9	18	150	137	318	632	29.736**
		1.4	2.9	23.7	21.7	50.3	100.0	
	특성화 중고등학교	5	13	113	112	233	476	
		1.1	2.7	23.7	23.5	49.0	100.0	
	대안교육 기관	8	7	51	62	216	344	
		2.3	2.0	14.8	18.0	62.8	100.0	
	위탁교육 기관	3	9	74	47	166	299	
		1.0	3.0	24.8	15.7	55.5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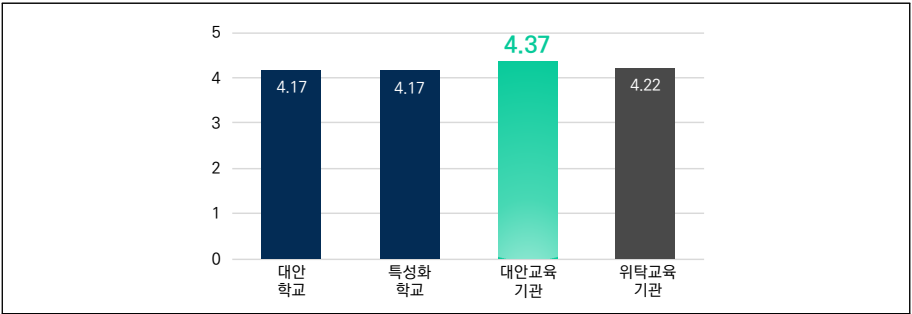


그림 III-25. 개선방안_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7)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제시된 항목 외에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학비, 급식비, 체험활동비, 기숙사비 등의 지원을 통한 교육권의 보장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개선사항에서 질문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별개로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특히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지원을 통해 대안교육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비 지원과 함께 급식비, 활동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다. 대안학교 교직원임에도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아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대안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교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매우 낮으며 업무는 과중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의견도 다수 있었다.

진학과 관련한 의견도 있었는데,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대입 관련 수업 개설 및 학력인정과 대입전형 마련 등의 의견이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규정위반 등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 제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6. 소결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 및 활동 경험의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대안학교의 문항 전체 평균은 3.95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여행과 캠프(4.20)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스포츠 활동과 학생자치 및 참여 활동과 교사-학생 간 소통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문항 전체 평균 4.05였으며 스포츠 활동(4.28), 여행 및 캠프(4.27), 교사-학생 간 소통(4.25) 순으로 응답하였다. 문항 전체 평균 3.88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여행, 캠프(4.27), 공동체 활동(4.15), 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연 프로그램(4.1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문항 전체 평균 4.04로 분석되었으며, 교사-학생 간 소통 프로그램(4.32), 여행, 캠프 프로그램(4.22),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활동(4.19)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질문한 총 16개의 학습 및 활동 중 교사-학생 간 소통, 스포츠 활동, 여행 및 캠프, 음악(악기, 노래) 등 예술 활동, 연극 및 뮤지컬 공연 관람, 공동체 활동이 조사대상인 학교 및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프로그램 우선순위로 응답되었다.

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행과 캠프, 스포츠활동, 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연 프로그램, 연극 및 뮤지컬 관람과 같은 여가 및 예술활동을 통해 본인의 삶과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은 청소년기의 심리·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관의 많은 경우가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환경의 낙후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및 기관의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환경의 낙후는 위와 같은 다양한 여가 및 예술활동의 원활한 제공과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역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대안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대안 교육 참여청소년의 활발한 여가 및 예술,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에서는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등과 같이 대안교육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개인적 변화와 사회성의 변화 등에 질문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학교의 경우 문항 전체 평균은 4.00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문항의 평균이 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문항 전체 평균 4.07로 분석되었고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전체 평균 3.82로 가장 변화정도가 큰 문항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전체 평균 4.07이었으며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가 평균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와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는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구성원 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본인이 존중받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 변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의 증가 등 혐오와 집단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과 변화라고 보여진다. 대안교육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청소년을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안교육 만족도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이다. 대안학교의 경우 만족도 전체 평균은 4.09였으며,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4.16)”,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4.14)”,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3.96)”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전체 만족도 평균 4.16이었으며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4.23)”가 가장 높았다. 대안교육기관은 만족도 평균 3.93으로 나타났으며,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4.11)”가 가장 높았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전체 만족도 평균 4.26으로 가장 높았다.

대안학교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조사의 주요결과이다.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과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평균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평균 4.3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가 평균 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가 1순위(평균 4.32)로 응답하였다.

앞서 주지했듯이,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각 학교 및 기관의 개선사항은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과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이 일반학교에 비해 많은 대안교육의 경우 다양한 활동과 체험이 제공된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과 이를 위한 공간 및 시설과 장비의 부족은 대안교육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필요로 하는 체험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충분한 교육여건과 다양한 제공 체험 거리를 마련하고, 학교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위해 각종 음악과 스포츠 교구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원활한 대안교육의 제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물적 지원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조사 주요결과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에 대한 분석결과 “교육 및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에 특성과 중고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75.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교과 수업을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응답자의 75.3%가 비중을 보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위탁교육기관에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표회, 전시회 등 학습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질문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소속 청소년 중 81.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특성과 중고등학교의 76.9%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였으며 대안학교 73.4%, 위탁교육기관 73.3%, 대안교육기관 64.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나 취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특성과 중고등학교 응답자의 66.4%가 “그렇다”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교육기관 65.6%, 대안학교 58.8%, 대안교육기관 45.7% 순으로 응답하였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인 기관과 연계하여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탁교육기관의 63.2%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특성과 중고등학교 61.7%, 대안학교 51.4%였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27.0%만이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규모로 자연권에서 운영되는 기관이 많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기에는 지역 내 자원의 상황이 열악하기 쉽다. 따라서 전문상담사 파견제도 또는 거점 상담센터 운영과 같은 제도 마련을 통해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상담과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 질문으로 “학습활동 진행 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보고한 학교 및 기관은 위탁교육기관이었으며 82.3%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특성화 중고등학교 79.6%, 대안학교 76.7%, 대안교육기관 74.7%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4장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와 정책적 지원 방안

- 1.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경험
질적 조사 및 분석
- 2.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3. 대안교육현장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1.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경험 질적 조사 및 분석

본 조사에서는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대안교육 참여 경험,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23년 8월 6일(일)부터 9월 7일(목)까지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 8명과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총 3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1) 조사절차

조사는 질문지 개발, 조사대상자 표집 및 정제, 조사대상자그룹 사전 워크숍, 초점집단면담(FGI), FGI결과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표집 대상인 청소년은 2023년 7월 22일(토)부터 8월 01일(화)까지 각 학교 및 기관의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였다. 추천을 받은 청소년, 교사에게 2023년 7월 22일(토)부터 8월 01일(화)까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표집 대상의 정제과정을 거쳤다.

FGI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조사대상에게 연구 참여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법정대리인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질문지를 전달하여 FGI에서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였다.

각 절차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기간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조사 방법 및 기간

구분	조사 방법	조사 기간
FGI 준비	질문지 개발	• 2023년 3월 1일(수) ~ 3월 31일(금)
	조사대상자 표집 및 정제	• 2023년 7월 22일(토) ~ 8월 01일(화)
	조사대상자그룹 사전 워크숍	• 중학교급: 2023년 7월 31일(월) • 고등학교급: 2023년 8월 1일(화) • 교사: 2023년 8월 23일(수)
FGI 실시	초점집단면담(FGI) 실시	• 중학교급: 2023년 8월 6일(일) • 고등학교급: 2023년 8월 14일(월) • 교사: 2023년 9월 7일(목)

2) 질문지 개발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대안교육 참여 경험,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묻는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 문항은 선행연구 고찰, 1차 문항 개발, 청소년 및 전문가 자문, 전체 연구진 회의단계를 거쳐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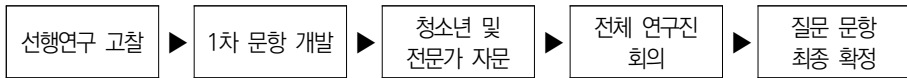


그림 IV-1. 질문지 개발단계

선행연구 고찰 단계에서는 등을 참고하였다.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이덕난, 최재은, 2021),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연구(하태욱, 이병곤, 황지원, 김은영, 2021), 공립대안학교 비교연구(김지현, 김지혜, 안은경, 2022), 공립형 대안학교 위탁 고등학생의 학교부적응 극복 경험에 관한 해석 현상학적 분석(이정섭, 김영순, 2022), 인가형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변화 추이에 관한 탐색적 분석(정설미, 이호준, 송원일, 2022)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1차 문항을 개발하였다.

청소년 및 전문가 자문 단계에서는 2023년 3월 23일(목)에 전주○○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청소년 2인과 현장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질문의 적절성과 용어/표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질문을 수정하였고, 청소년이 요청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후 전체 연구진

회의를 통해 질문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질문 문항 구성은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반구조화된 FGI 질문 내용

조사영역	주요 질문	질문의 예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 대안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대안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대안교육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이 여러분에게 미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대안교육 참여 경험	• 대안교육 기관 선택 기준	• 지금 다니는 학교 및 기관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왜 그런 기준이 생겼나요?
	• 대안교육 참여 시 어려움	•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의 아쉬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왜 어려울까요?
	• 대안교육 경험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	•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	•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만족도	•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이 만족스럽나요? •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나요?
	• 개선사항	•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왜 개선되어야 하나요?
	•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과정	•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교육내용이 있나요? • 왜 추천하고 싶나요?

3)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청소년 8명, 교사 3명으로 청소년은 대안학교 2명,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2명,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명, 대안교육기관 2명으로 구성하였다.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으로 구성하였고,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구성하였다. 교사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1명,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명, 대안교육기관 1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기관	학교급	청소년	교사	비고
대안학교	중학교	안○○(남)		경기
	고등학교	김○○(남)		경기
대안교육 특성화 중 · 고등학교	중학교	최○○(여)	김○○(여)	전북
	고등학교	김○○(여)		강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중학교	권○○(남)	윤○○(남)	서울
	고등학교	김○○(여)		서울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권○○(여)	박○○(여)	충남
	고등학교	강○○(남)		충남

4) 조사결과

대안교육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 8명과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다만, 내용을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담았고, 교사의 목소리를 참고용으로 추가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한 조사결과는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대안교육 참여 경험’,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본 조사에서는 먼저, 대안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FGI를 통해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이 인식한 대안교육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목하였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대안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안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이 여러분에게 미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한 결과, 대안교육에 참여한 청소년과 교사들은 대안교육에 대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마음에 안정을 주는 교육’,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교육’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과 교사 모두 대안교육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전하도록 독려하고,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알려주며,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여 삶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한다고 응답하였다.

뭐든 할 수 있고 그냥 너가 도전하기만 하면 일단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심어주는 경험들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중략) 저희 학교가 마음 랩이라고 해서 자신의 내면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학기 초에 가지고, 코랩, 크리에이티브 시간 해서 그냥 수업 시간 있고, 코랩 시간이 또 그 후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도전할 수 있는 시간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학교 수업이라 이렇게 같이 있는 코랩 기간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이름이 명칭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나가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인 머시기 랩이 있어요. 한 달 정도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곳 아니면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외부 활동 기간이 따로 잡혀 있고요.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급(남)

저는 우선 제가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것도 학교에서 배웠고 의식주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 해결할 수 있게 돼서 대안학교는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여)

학교가 되게 자기주도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인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수업마다 수업 속에서도 다 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선생님은 알려주시는 길잡이 선생님 정도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제가 계속 탐구해 나가는 식으로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은데

- 대안학교 고등학교급(남)

일단은 저희 학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학기 초랑 학기 말에 학생들이 여행 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해서 가는 수업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과도 표로 정리해보는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런 게 있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교육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 대안학교 중학교급(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자기 삶의 가치관이나 지향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친구들한테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삶의 이유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부여한 그런 것들이 가장 듣기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할 때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이렇게 나답게 살겠다라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각자 만들어가는 그 변화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 대안교육기관 교사(여)

초등학교나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는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찾아가지만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에서는 아이들 자존감 세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데 자존감을 많이 찾고 졸업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혼자 지내는 걸 잘 못 견뎌 하는 친구들이 결국엔 자존감도 찾고 혼자 지내는 거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삶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 대안교육 특성화 중 · 고등학교 교사(여)

당장 모든 걸 포기하려는 아이들이 그나마 1년 동안이나마 그래도 자기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그게 또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서 대안교육과정에서 그나마 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사(남)

②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

청소년들은 대안교육을, 현재 꿈이 없어도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열려있고, 그러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좋아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 한창 꿈과 미래가 창창할 시기에 벌써부터 자신들의 꿈을 접고 다 공무원 하겠다. 승무원 하겠다. 왜냐면, 승무원을 해야 나중에 미래에 퇴직을 해도 어떻게 해서 좋으니까 이렇게 다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직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중략) 저희 학교는 다양한 경험을 진짜 많이 할 수가 있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서, 아직 저는 진로에 대해 정해진 건 없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일반학교 갔으면 못했을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급(여)

내 꿈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중략) 제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 역할이 내가 리더십이 있고 리더라는 역할이 잘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걸 맡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 같더라는 자신감이 붙었고 대학교 가서도 팀 프로젝트나 여러 활동 함께하는 활동을 하게 될 때 이제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여)

대안교육은 진로 탐색이 아닐까, 자신을 알아가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는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급(남)

제가 유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도도 2년 했고, 유도 선수 하고 싶었고 예전에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밥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만뒀었는데 선생님들이 운동 쪽으로는 길이 많다면서 되게 좋은 길도 알려주고, 저한테 자신감도 붙여주고 해서 유도 동아리도 만들고, 제가 다 운동도 여러 개 들어가서 도전 정신이 아주 강해진 것 같습니다. (중략) 저희도 동아리를 개설하거나 그러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잘 밀어주고 필요한 거 다 돈이 안 되지만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육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유도 동아리를 개설하고, 배구부 주장도 맞고, 여자 풋살부에도 들어가서 운동 체육 쪽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꿈이 아예 없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되게 그냥 백수로 살면 안 되나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ㅇㅇ고에서 이거 해봐라 너도 이거 해봐라 한번 도전해 봐라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체육을 열심히 해서 체육 선생님이라는 꿈이 생겨가지고 저한테는 진로에 대한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여)

교육과정 중에 '몰입 학교'라고 자신이 원하는 거나 그런 것을 2주 동안 깊게 이렇게 몰입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진로에 관한 걸 되게 많이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진로를 펼쳐나가고 꿈을 펼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 대안학교 고등학교급(남)

일단 저는 아직까지 꿈 장래 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관심사도 모르겠고. 근데 수업시간 대안 교과 중에 ‘직업과 자립’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관에 가서 할머니들이랑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좀 내가 복지 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하면 잘 즐겁게 즐기면서 남을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좀 관심이 생긴 거죠. 그쪽에. 근데 이제 그 직업과 자립이라는 수업에서 봉사 활동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서 알게 된 거지. 사실 그 직업과 자립 수업에서 하는 게 바리스타도 있고 미디어 콘텐츠라 해서 영상 편집하는 것도 있고 난타 수업도 있는데 그쪽으로 진로를 희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 운 좋게 좀 걸려서 그쪽을 검색 알게 된 거지. 도움은 있었어요.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등학교급(여)

③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관이 일반학교와 다르게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체험학습이나 예술 활동, 진로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도권 교육 그러니까 일반학교들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들을 대안교육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 학교 전체가 다 모여서 같이 학교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체 회의가 있어요. 그런 회의가 되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일반학교랑은 차별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안학교 중학교급(남)

저는 공부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는 공부에만 집중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략) 대안교육은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다니다 보니까 공부가 우선시 아닌 건가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대안교육 하면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여)

일반적인 그런 일반학교의 교육에서 벗어난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안학교 고등학교급(남)

저도 주변에서 대안교육 받으면 대안학교에 가면 공부가 주가 아니라 체험학습 활동 이런 거 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등학교급(여)

저희 학교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커리큘럼 중 하나는 인턴십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인턴십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인턴십을 가고 싶다. 그럼 어디 가고 싶냐 이래가지고 그쪽이랑 그쪽 사람과 연결해서 그쪽 일터로 나가보는 진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로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고 학교에서 하는 많은... 사실 예술 활동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일반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쳤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뭐 할 수 있다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급(남)

저희가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부모 하지만 용기 있는 교육적인 도전들을 통해서 약간 교육의 본질을 계속 추구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 대안교육기관 교사(여)

④ 마음에 안정을 주는 교육

청소년들은 대안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스트레스 요소를 인지하고 치유되는 등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일반학교의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머리로 배우고 보고 느끼고 마음으로 배워서 마음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급(여)

일반학교보다는 좀 더 힐링되는 곳, 저희는 심리, 미술 그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서 약간 힐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략) 제가 일반학교 다닐 때는 진짜 공부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 오면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것도 사라지고 약간 마음이 힐링 되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생겨서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중학교급(남)

제가 원래 감정을 좀 숨기고 사람들에게 내색도 안 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좀 휴식이 필요하구나 이 친구는 지금 기분이 이래 보이네라는 거를 알게 되고, 제 마음을 좀 챙기게 되면서 성격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여)

저는 이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이 엄청 심해서 대안학교를 찾아서 오게 된 건데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체험학습도 하고, 수업도 더 쉽게 따라가고, 원래는 되게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학교를 다니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건강하게 생활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등학교급(여)

저희는 학생들이 변화된 아이들을 보면 먼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관계 속에서 지지받고 칭찬받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후에야 이제 교육과정이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것 같고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사(남)

⑤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교육

청소년들은 공동체 생활, 팀 프로젝트, 회의 등을 통해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관계적으로도 대안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옛날엔 개인적이었는데 이제는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져서 같이 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급(여)

저희 학교는 공동체를 되게 중심으로 말하는 학교였는데, 이제 같이 팀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맞춰서 어디를 가서 이걸 알아봐야겠다라는 거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점차 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말하는 법도 알게 되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도 알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여)

팀 프로젝트도 많고 회의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회의를 이끌고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나서서 하고, 그런 회의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의사를 결정하는 거 아니면 모든 팀원의 말을 들어보는 거 이런데 이런 역량들이 좀 키워졌던 것 같아요.

- 대안학교 중학교급(남)

경쟁의 기반이 아니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런 문화가 학교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깐 제대로 이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거죠. 더 깊숙이 사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잘 맞고 잘 받아들여지는 친구들은 저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교사(여)

(2) 대안교육 참여 경험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대안교육의 장점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다니는 학교 및 기관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① 긍정적 경험

대안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경험한 긍정적 사례로는 ‘학생이 직접 개설하고 설계하는 교육과정’, ‘기회가 열려있는 교육과정’,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및 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가. 학생이 직접 개설하고 설계하는 교과과정

대안교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원하는 교과를 직접 개설하고, 설계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해 준다고 하였다.

저희 학교는 자신이 들을 수업을 선택해서 자신의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략)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수업을 듣지 않고 학기 초에 자신의 수업을 개설해서 들어요.
- 대안학교 중학교급(남)

거의 모든 과목을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과목들로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시도해 보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중략) 일단 저희 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중에 ‘학생 개설 교과’라고 학생이 개설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해 주거나 가르쳐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럴 때 되게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수업을 많이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국영수사과 같은 일반학교 과목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또 다양한 수업들에 들어가서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고 만약에 그게 진로가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대안학교 고등학교급(남)

저희가 꿈너머 꿈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 동안 뭘 했는지 하면 이제 학생들은 그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저 같으면 운동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누구는 쿠킹실에서 요리를 하고 빵을 굽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했던 거를 이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도 했던 말이 여기는 다 해준다. 너희들이 할 생각이랑 의지만 있으면 선생님들은 뭐든지 다 해준다. 라고 그걸 학생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맞다. 우리는 너희들이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면 해줄 거다. 책임감과 의지만 있다면 난 너희들에게 알아서 지원도 어떻게든 해줄 거고 다 해줄 거다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여)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그런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우리는 유도를 하는데

-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교사(여)

나. 기회가 열려있는 교육과정

대안교육은 선택의 기회,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하였다.

일반 공교육은 선택과 기회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교육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아도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급(여)

이게 너무 저랑 교육 과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나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중략)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예산도 충분하고 제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새 학교다 보니 제가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 대안학교 고등학교급(남)

다양한 기회가 있고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 대안학교 중학교급(남)

다.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및 환경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 다루는 교육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라 체력이 많이 길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산악 등반도 하고 이제 햇빛 뽀뽀한 날에 밭에서 농사도 짓고 하니까 체력이 자연스레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산악등반을 필수로 간단 말이에요. 학년별로. 1학년은 지리산 2학년은 한라산 3학년은 이번에 해외 이동 수업으로 일본을 가서 일본 학교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데 이 산악 공간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완전 자연이랑 하나가 되고 이제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환경 기후 문제도 심각하고 가다가 이제 저희가 발표 주제를 하나씩 들고 가요. ‘고사 보기 주제다.’ 그러면은 산을 등반을 하다가 이 나무가 왜 죽었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지역은 나무가 전부 고사해 있네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뭘까 아니면은 쓰레기 떨어진 친구가 떨어뜨린 쓰레기를 줍는다는지, 아니면은 이제 물병을 가지고 가서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서 이제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산악 등반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교육 과정을 정말 추천하고 싶고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여)

저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약간 편안함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주변이 자연환경인데 그런 거에서 보는 힐링, 그런 거를 또 느끼는 감정이 더 편해진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희는 원예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연을 둘러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는 산책 나가는 수업이 있어요. 약간 그러면서 자연이랑 더 친화적인 거 된 것 같아요.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중학교급(남)

정말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중략) 저희는 지구시라고 금요일마다 지구를 위한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수업이 전교생이 다 같이 듣는데 말 그대로 환경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1학년 때는 환경에 대한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심각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이랑 2학년 친구들이랑 다 생각이 없는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전달력 있게 설명이 될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이 비중이 좀 높아져야겠다 싶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급(여)

② 부정적 경험

대안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경험한 부정적 사례로는 ‘교육 외에도 업무가 많은 교사’, ‘대안교과에 치우쳐진 교육과정’, ‘청소년이 인식할 정도로 부족한 예산’, ‘한 바구니에 담기에는 다양한 청소년’, ‘무너져가는 대안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가. 교육 외에도 업무가 많은 교사

대안교육은 교사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이들은 교육 외에도 업무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인지할 정도로 교사의 업무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교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재단에서 만든 학교거든요. 일반 수업들은 외부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는데 다른 수업들은 이제 거기 재단 선생님이 진행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 업무가 재단 업무 포함해 학생들 케어 관리 이것까지 좀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그래서 학생이 보기도도 좀 힘들어 보이고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등학교급(여)

저희 학교도 되게 큰 학교였고 한 많았을 때 50~60명 정도 됐던 학교였는데 지금 인원이 한 24명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네 분이 나가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열 분이서 하시던 일들을 받을 나머지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럼 선생님이라 같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바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담당 교사에게 뭔가 계속 부탁드리는게 있어서 힘들죠. 선생님 이거 같이 해요 그러는데 선생님이 맨날 피곤해 보여 그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선생님들을 봐줘야 되나라고 하기도 아니고 뭐 하고 싶었는데 어떡하라고가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안 바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좀 적당히 일을 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쌤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급(남)

제가 선생님들은 많이 못 봤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게 진짜 많으신데, 그걸 제가 너무 나쁘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학교 쌤들도 진짜 힘드시실 것 같아요. 애들 케어도 케어인데 저희도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동아리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야 되고 동아리 신경에다가 다른 수업 신경에다가 막 애들 멘탈 신경에다가 그냥 다 신경 써주시기 때문에 쌤들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실 것 같아요.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여)

비인가 대안학교는 어쨌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교육적인 비즈니스를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홍삼 팔고 막 이러거든요. ○○학교는 abc주스 팔아요. 그러면 그거 몇 박스 팔면 교육이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맨날 식구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 파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고 맨날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게 어쨌든 교육의 질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아쉽고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들도 다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막 그냥 무료 강의 듣고, 온라인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아쉽고 그래요.

- 대안교육기관 교사(여)

처음에 학교에 왔더니 대안학교 어떤 선배 선생님이 전국의 대안학교 숫자가 3%가 되면 바닷물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자정 작용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 숫자가 1%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12년 차라고 했잖아요? 공립형 학교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한테 전라북도도 인사 제도 중에 재공모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재공모를 계속해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헌신에 계속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떠나면 이 학교에 색깔이 없어진다. 막 이러면서 복잡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 8월에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은 이제 14년을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런 헌신에 계속 기대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사가 들어와서 양성이 되고 그걸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립형 학교인 한테 교사 양성이 계속 안 되는 거 그게 가장 아쉽고 어렵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대안교육 특성화 중 · 고등학교 교사(여)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사 부분인 것 같아요. 교사가 알파이고 오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도 아이들 탓이 아니고 아이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열쇠는 저는 교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 양성이 분명히 잘 돼야 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게 안 되면 사실 대안교육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저희 학교의 당면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

- 대안교육 특성화 중 · 고등학교 교사(여)

나. 대안교과에 치우쳐진 교육과정

대안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는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을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안교과를 제공하는 학교 및 기관은 대안교과에 치우쳐져

있어서 진학을 위한 준비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공부 난이도가. 그래서 살짝만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진짜 기초적인 것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배우던 거는 함수 막 이런 건데 여기서 배우는 건 제곱 막 이런 거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제 고등학교 간 친구들을 이제 따라잡기 어렵지 않을까..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중학교급(남)

대안교육을 받을 때 대안 교육은 이제 다른 일반학교처럼 국영수사과 이런 게 아니라 의식주 챙기는 법이나 아니면은 마음 다스리기 마음 챙기기 자기 주도적 능력 기르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제 교과서를 다 못 끝내고 학년이 넘어갈 때도 있어 가지고 진도 나가는 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여)

지금 저희는 공교육이 아니라 거의 대안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과는 약간 별개, 다른 그냥 바로 직업으로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대학을 완전히 잘라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학 쪽도 열어놓고 이쪽 진로도 있다라는 식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쉽죠. 너무 너무 쉬워서 저도 대학교 갈 때 이렇게 쉬우면 괜찮으려나 하고 좀 걱정이 많아요.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여)

저희가 초점이 '지금, 현재, 여기에'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고 행복한 교육과 세상살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에 대한 대비 이런 건 학교에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네가 공부할 이유를 찾고 스스로 공부해야한다라고만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그런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우리는 유도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나면 이제 바닥을 깔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학교를 중학교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는 항상 얘기를 하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교사(여)

학생들 간 학력 편차가 너무 커서 수업을 진행할 때 몇몇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시다. 그중에 어느 한 학생을 어떻게 해가지고 수업 난이도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교육과정 그러니까 수업 진행 면에서는 그런 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얘기했었고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사(남)

다. 청소년이 인식할 정도로 부족한 예산

앞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과를 개설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말하기 꺼려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사실 제일 아쉬운 거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좀 안 되는 캠프들과 안 되는 이벤트들이 아쉬워요. 캠프가 취소될 뻔한 적도 많았고, 돈이 없어서 그것도 다 부모님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벤트도 못 할뻔한 게 되게 많았어요. 못한 것도 있었고.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급(여)

저는 살짝 예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도부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도복이 없어요. 사야 되는데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뭘 하기에 뭘가 이제 딱 막혀 있으니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다른 애들도 생각보다 많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좀 아쉬워요. (중략) 이제 진로 활동이나 저희가 학교에서 꿈을 찾으라고 뭘 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지원이 너무 적으니깐 사비를 써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부담이 되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애들도 분명 많을 텐데 개네들도 이제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되냐라는 상황에 처해지는 게 진짜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적은 건가 지원이 부족한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여)

전에 다녔던 학교가 거의 지원이 없었어서 비슷한 문제(예산 부족)를 겪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되게 한정돼서 오히려 더 약간 틀에 박히게 되는 이거는 예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부분이 저도 비슷하게 아쉬운 것 같아요.

- 대안학교 고등학교급(남)

저희 학교도 비인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예산이 아무래도 학비로 충당이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학비가 너무 비싸지고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그 집안에서 다 n빵을 해가지고 학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예산이 만들어져

요. 그러면 사실 그 예산이 다 학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 학비가 부담스러워서 애 한 명이 나가면 또 나머지 애들이 나머지 이제 학비를 충당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학비가 계속 비싸지고 비싸면 나가고 비싸면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슬슬 많이 학비가 정말 비싸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요. 그러다 보면 아까 ○○○ 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 합의라는 것 때문에 제한이 생기고 물론 선생님들이 제안하잖아요. 애들이 이거 좀 해봐라 하면 뭐 해보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학비, 돈, 아 못 하겠다. 이런 제약에서 걸려버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슬슬 이제 마음 놓고 그냥 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좀 뭔가 이제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중략) 모든 문제에서 그럼 예산은..? 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이제 사실 은연중에 자꾸 학교 분위기에서 학교 돈 있나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애들이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굳이 이 학교를 이 돈 내고 왜 내가 굳이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학비가 좀 비싼 것 같아라고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애들도 은연중에 좀 위축되나 봐요. 내가 그 정도까지 돈을 내고 이 학교에 다녀야 되나 그런 만큼 이유는 없는데 그냥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온 학교인데 뭐라도 하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낸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가 봐요. (하고 싶은 것이)뭔가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부터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급(남)

저희는 어쨌든 대안학교 학비를 100%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저희도 지금 학비가 105만 원, 11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숙박, 숙식비까지 포함해서 그 비중이 한 7 대 3 정도 돼요. 교육비 7 숙식비 3. 그럼 숙식비는 사실 다 먹는 걸로 나가는 비용이고, 결국 교육비로만 따지면 한 70만원에서 그 사이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 모집해서 교사들 인건비 주고 운영비 하면 마이너스가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입학금이 있고,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재정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 교사들의 어떤 고용 안정성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복지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초창기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박봉에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교사들을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젊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중년의 선생님들이 여기 살면서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올 수 없다, 이런 한계들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고 그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 대안교육기관 교사(여)

라. 한 바구니에 담기에는 다양한 청소년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관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및 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다양한 청소년을 제한된 학교 및 기관에 몰아넣게 되어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대안교과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보여진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를 보자면 공립이다 보니까 강제로 전학 오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한두 명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 친구들 보는 게 좀 힘들고,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여)

사람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막 여러 색깔이 모였다시피 여러 가지 개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하기 귀찮다 안 하겠다 하면서 쌤들이 준비한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리 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반에서 시끄럽게 소란 피우는 애들도 너무 많아서 이제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여)

저희 학교에는 비행 청소년 친구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일도 바쁘시고 하나까 잘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수업의 흐름이 끊긴다던가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선생님들도 당황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고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등학교급(여)

다양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정신과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다양한 아이들을 학교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모두 다 인정하면서까지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 대안교육이 개선 돼야 하는 것 중에 저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당면한 어려움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교사(여)

마. 무너져가는 대안교육

대안교육이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충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대안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실 학교가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다들 금방 나올 그럴 만한 학교가 돼서 저는 학교 지금 학사 과정이 바뀌기 전에 다니고, 다니는 중에 바뀌고,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이것도 해봤지가 되는데 지금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사실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다.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부딪히면서 여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지도 받고 좋은 친구도 사귀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다. 근데 이런 수업을 해가지고 나 너무 만족했어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런 수업해주니까 내 진로를 찾았어!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추천한다기보다는.. 그냥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략) 저희 학교가 학생 개설 수업은 사실 안 해요. 원래 있는데 이게 쌤들이 지금 야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쁘다 그랬잖아요. 학교가 계속 바뀐다고. 그래서 원래 고등 중등 별도였는데 중고 통합으로 해서 방학 기간에 그거 뭐 회의 하느라 바빠서 애들한테 연락해야하는데, 저희 학교가 학생 개설 수업이 있어야 되는 학교였어요. 커리큘럼이 돼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애들도 굳이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해도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바쁜 시기여서 다 놓쳐가지고 수업 개설이 안 된 상태로 학기를 지금 진행해가지고 이번 학기도 아마 학생이 계속 수업을 못듣는, 그래서 수업도 원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수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 학생도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일단은 못 만드는 학교가 돼버렸어요. 일단 지금 상태로는.

-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급(남)

공립형 대안학교들이 생기니까 그 간극은 좀 메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0년, 20년 선생님들이 정체성이나 사명감을 갖고 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공립 선생님들도. 그래서 공립형 대안학교들이 또 일반학교처럼 되는 거예요. 또 제도적인 틀에 갇혀서..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교육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교육 기관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안정성 또 공교육 수준까지는 바라지는 건 아니지만, 교사들의 역량 강화의 기회, 연수의 기회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주어져서 계속 새로운 미래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생겨야 생존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저희 비인가는 생존이에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몇 년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진짜 문 다 닫아요. 제가 봤을 때 기독교 쪽 대안학교들 남는 거 제외하고 저희처럼 종교 기관이 아닌 학교들은 계속 지금 문 닫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위기 상황이에요.

- 대안교육기관 교사(여)

(3)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이 만족스럽나요”,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교육내용이 있나요?” 등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의 추가’, ‘학생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성과’ 등이라

고 밝혔다.

①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의 추가

대안교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더욱 많이 개설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저희는 지구시라고 금요일마다 지구를 위한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수업이 전교생이 다 같이 듣는데 말 그대로 환경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1학년 때는 환경에 대한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심각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이랑 2학년 친구들이랑 다 생각이 없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전달력 있게 설명이 될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이 비중이 좀 높아져야겠다 싶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급(여)

요즘에 환경 기후 문제도 심각하고 가다가 이제 저희가 발표 주제를 하나씩 들고 가요. ‘고사 보기 주제다.’ 그러면은 산을 등반을 하다가 이 나무가 왜 죽었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지역은 나무가 전부 고사해 있네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뭘까 아니면은 쓰레기 떨어진 친구가 떨어뜨린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병을 가지고 가서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서 이제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산악 등반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교육 과정을 정말 추천하고 싶고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여)

저는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 배웠는데, 그중에서 가장 생각이 나는 거는 지구 환경이나 기후 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새 보면 너무 개인의 성장 그런 부분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교육 과정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학교도 막 미래학교에 키워드 타이틀을 갖고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진정한 미래 학교면 미래 사회에서 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인한다거나 좀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저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배움인 환경을 생각했습니다.

- 대안학교 고등학교급(남)

② 학생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성과

대안교육이 학생의 노력에 따라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적극적인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응답하였다.

저희 학교는 너무 약간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에 따라서 만족 여부가 나뉘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대안학교 고등학교급(남)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소리 내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한 만큼 얻어가는 그런 학풍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입학한 애들은 이거 너무 막연한 교육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장점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단점이지 않을까

-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급(남)

진짜 격하게 공감했어요. 진짜 자량은 아니지만 학교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얻어가는 게 진짜 있단 말이에요. 저처럼 유도 만들어보고 막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사람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막 여러 색깔이 모였다시피 여러 가지 개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하기 귀찮다 안 하겠다 하면서 쌤들이 준비한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러 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반에서 시끄럽게 소란 피우는 애들도 너무 많아서 이게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여)

5) 결론 및 시사점

본 조사에서는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대안교육 참여 경험,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대안교육에 참여한 청소년과 교사들은 대안교육에 대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마음에 안정을 주는 교육’,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교육’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교육이 공교육 또는 학교교육의 대안이라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교육 영역으로 확대

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를 준용하면 대안교육은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이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은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현시대의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인적 교육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대안교육은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안교육 참여 경험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긍정적 사례로는 ‘학생이 직접 개설하고 설계하는 교육과정’, ‘기회가 열려있는 교육과정’,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및 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례로는 ‘교육 외에도 업무가 많은 교사’, ‘대안교과에 치우쳐진 교육과정’, ‘청소년이 인식할 정도로 부족한 예산’, ‘한 바구니에 담기에는 다양한 청소년’, ‘무너져가는 대안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게 자유와 기회, 자연이라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과에 치우쳐진 교육과정과 청소년이 인식할 정도로 부족한 예산, 무너져가는 대안교육은 청소년에게 자유와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다. 또한 초·중등기본법 제20조를 살펴보면, 교사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관의 교사는 교육 외에도 업무가 많아서 본업을 도외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호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계획 및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운용하여야 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이 생각하는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은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의 추가’, ‘학생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성과’ 등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 청소년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대안교육을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4. FGI 주요 응답 결과 및 시사점 요약

조사영역	주요 질문	주요 응답 결과	시사점
대안 교육에 대한 인식	•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 •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 마음에 안정을 주는 교육 •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교육	• 대안교육이 공교육 또는 학교교육의 대안이라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교육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현대의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인적 교육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대안교육은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대안교육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대안 교육 참여 경험	• 대안교육 기관 선택 기준	• 긍정적 경험 • 학생이 직접 개설하고 설계하는 교육과정 • 기회가 열려있는 교육과정 •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및 환경 • 부정적 경험 • 교육 외에도 업무가 많은 교사 • 대안교과에 치우쳐진 교육과정 • 청소년이 인식할 정도로 부족한 예산 • 한 바구니에 담기에는 다양한 청소년 • 무너져가는 대안교육'	• 청소년에게 자유와 기회, 자연이라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자원을 계획 및 수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운용하여야 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함
	• 대안교육 참여 시 어려움		
	• 대안교육 경험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		
대안 교육에 대한 개선 사항	•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만족도	•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의 추가 • 학생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성과	•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 청소년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대안교육을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이 강구되어야 함
	• 개선사항		
	•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과정		

2.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개요

금년도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을 기획하였다. 대안교육 포럼의 주제는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하고, 금년도 연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제발표를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3개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각 세션마다 주제발표 1명과 지정 토론자 1명 총 6명을 배정하고 종합토론에서 전문가 1명, 대안학교 학생 1명으로 발표와 토론자를 구성하였다. 금년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년 초부터 교육부 담당자들과 포럼의 방향과 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관 고유과제와의 내용 연계를 협의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2023년 9월 20일 개최된 대안교육 포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대안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 도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대안학교의 현재 진단 및 발전 방안

대안교육 포럼이 첫 번째 주제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 중 000 중학교 교장의 ‘대안학교 현재 진단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발표이다. 주요 내용은 ‘대안학교 역사 및 유형’으로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안교육’의 용어 사용 배경과 ‘대안학교’의 태동 및 변천 과정을 시대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대안교육의 역사 및 유형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I장과 제II장 제1장 대안교육의 흐름과 사회적 맥락’에서 도식으로 제시한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000중학교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혜영 외, 2009)이 실시한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의 질문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사는 2023년 7월초 학생 103명, 교사 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내용 중 본 연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학생 대상 조사결과에 한정하여 논의와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대안학교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일반학교보다 자유로운

분위기(51.7%)’가 가장 높았다. 반면,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1.1%)’라고 응답한 학생은 극히 소수인 점에 비추어 대안학교가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주로 다닌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안학교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부모님의 권유(21.88%), 성적 중심 풍토에 대한 거부감(20.7%), 일반 학교의 정성과 소질 계발에 대한 부적합(19.5%), 경진된 규율과 규칙에 대한 거부감(17.2%)’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89.6% 그렇다), 학교는 교과 공부 이외에 다양한 체험학습과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한다(97.7% 그렇다), 학교는 학생들이 나름의 꿈을 가지고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다(92%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비록 특정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지만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전달과 인재양성을 위한 경쟁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학습 및 활동을 경험하고 삶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안교육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다양성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학생을 포함하여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유와 돌봄’을 위한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원적교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관이다. 원적교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단기 몇 개월부터 장기 몇 년까지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반면,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목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므로, 공교육과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 사이에서 그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더불어 격리 교육에 대한 시선과 원적교 복귀 후 적응과정 관리 등의 과제도 존재하므로 학교와 위탁교육 현장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처한 문제적 시각에서 ‘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상 개선할 점’을 중심으로 [표 IV-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순위	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사업의 장애 요소
1	학생의 위기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부족
2	외부 위탁기관 정보 부족 및 거리상 접근성이 어려움
3	학교 복귀 후 학교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충분히 못함
4	학생과 학부모가 외부 기관에 연계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
5	위탁교육기관 담당자와 학교의 소통 부족
6	위탁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 부족
순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 개선 사항
1	학교생활 부적응 사유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다양화
2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정보 제공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직원에 역량강화 연수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 지원
5	원적교, 위탁교육기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채널 유지
6	원적교, 교육청, 지자체가 위탁교육기관 지원협력 체계 구축

학교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갈수록 학교부적응 사유와 위기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위탁교육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 요구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생활 부적응 사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발굴 및 관리가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탁교육기관 운영진과 담당교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과정에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중심에서 기관 운영자와 교강사 인건비 예산 지원에 대한 법·조례상의 명료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대안교육기관의 나아갈 방향

대안교육기관은 그동안 미인가 혹은 비인가 대안교육시설로 불리며 공교육과 구분되어 왔다. 2020년 12월 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법률 제17887호, 공포일 2021. 01.12, 시행일 2022. 01.13]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취학유예가 가능하고 시도 교육청에 등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1998년 대안교육특성화학교, 2005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법제화에 이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교육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000대 안교육기관(00학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현황은 2023년 7월 현재 231개가 지역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상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만이 국가의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법에는 재정지원과 학력인정 관련 조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취지에 맞게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교육복지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제기한다. 대안교육기관법상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기하는 법률 개정안 작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대안교육기관법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 명기된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이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적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특단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과 조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안교육 분야가 신입생 감소와 재정적 지원 문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교원의 감축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지역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협력체계(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고 미래 혁신 교육지구와 같은 지역 단위 사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 자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마을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를 주축으로 대안교육기관과 아동청소년 및 평생교육기관 등의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교육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2022년 ‘경기꿈의학교’와 ‘경기대안교육’이 연계하여 ‘대안교육형꿈의학교’를 만들어진 사례에 비추어 지역단위 미래교육 실천의 장을 확대해 나갈 시의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셋째, 대안교육기관법에 적시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기관 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해야 한다. 센터 운영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직원 연수도 지원해야 한다. 먼저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지정과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대안교육 담당교사들이 공동으로 직무 연수와 정보 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채널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대안교육 영역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일반학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대안교육기관의 고유한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의 특색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교육 영역도 다양한 형태의 학습권과 자기주도 학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대안교육기관 스스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행복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으로 법적 지위 확보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다양한 도전과 위기 요인도 감수해야 한다. 가장 공통적인 현안으로, 대안교육기관이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안 해결 방안으로 시도단위 ‘대안교육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면서 예산과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등의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안교육현장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1) 개요

청소년기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은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 사회적응 능력 향상, 미래 진로 설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 내에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각자의 다양한 성장배경과 성격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실현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안교육이 문제해결의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대안교육은 전통적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대안교육의 핵심은 그동안의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지닌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안교육 현장에서 대안교육의 이념과 취지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건전한 성장, 사회 적응 능력개발, 미래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간의 연계방안 모색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연구 추진 과정 및 주요 결과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참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성 발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청소년 정책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에의 주요 대상과 범위의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개념이 추구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방향성 간의 유사성이 높다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현장전문가 면담 연구를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자,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청소년활동 현장 전문가, 대안교육행정담당자, 연구진 등으로 정책실무협의 모임을 구성하였다.

정책업무협의회는 제1차 부산광역시,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두 곳에서 모임을 갖고 현장 전문가 면담과 참가자들 간의 토론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문가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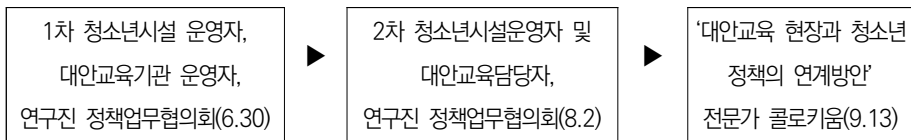


그림 IV-2.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연계방안 개발절차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의 정책실무협의회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활동 연계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및 활동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참가 대상에 대한 분류 및 구성, 교육 및 활동과정의 표준화, 자원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정책 전면 시행 단계에서 대안교육과 청소년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몇몇 청소년시설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전담 교사 및 강사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청소년시설과 대안학교들 간의 협력 방안, 교육청의 역할 및 파견 교사제 도입 등에 관한 운영 지침 마련 및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과 청소년시설의 각자 운영상의 문제를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의 상당수가 활동 공간 및 학생 지도 전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안학교가 청소년 시설의 유휴시간 활용,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인력 활용 등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대안교육과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영역에 대한 현장의 인식 변화와 협력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안교육 분야와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시설의 도전과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두 영역 모두 지역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청소년시설 및 기관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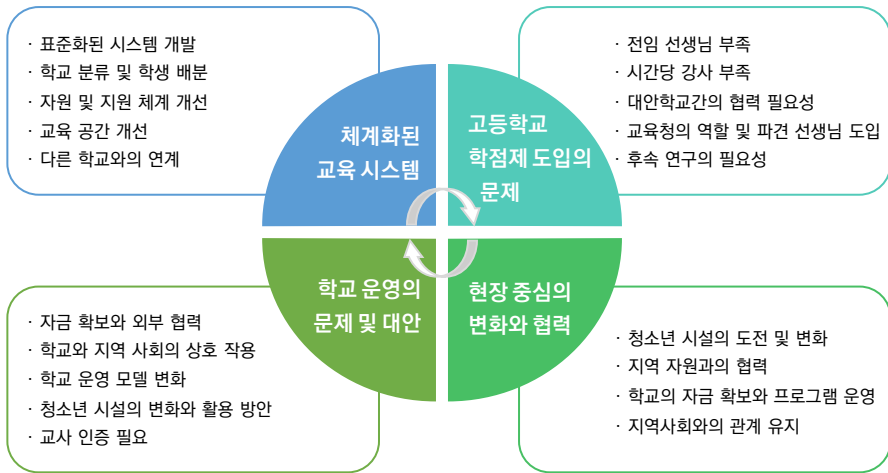


그림 IV-3.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영역 및 추진 방안

3)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효과 및 제언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정책을 다양한 대안교육의 목적 및 방향성과 결부시켜 재해석하고, 참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활동을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진로활동 및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교육과 활동에 대한 사과의 폭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공교육현장과 다소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상호교류 차원에서 일부 협력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 단체 및 시설과의 협력은 참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적 가치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는 교육과 청소년 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안교육현장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림 IV-4]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정보 플랫폼을 참고하여 ‘청소년 대안교육지원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모델’을 구상하였다.



그림 IV-4. 청소년 대안교육지원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분야의 연계를 통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제약요소와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포용적인 대안교육과 청소년활동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대안교육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교육과 청소년 활동 현장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안전과 지원을 보장받는 구조로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대안교육 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관련 분야 정책담당자와 기관 운영자들이 현장의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와 노력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대안교육과 청소년활동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대안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대안교육의 교육 방법 및 교육과

정 운영상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다. 더불어 대안교육현장에 투입되는 청소년 분야 전문인력의 교수학습 능력 학생지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자, 학부모,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 정책 현장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연계와 협력 과정을 통해 두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론
- 2. 정책 제언
- 3. 향후 연구 방향

1. 결론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는 먼저 국내외 대안교육 관련 문헌과 연구보고서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론적 탐색 과정을 토대로 연구진에서 작성한 질문지 초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학계 및 교육청 담당자 등을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 대안교육의 영역과 현장의 구성이 다양한 관계로 각 분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의 방향 및 범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설문 문항 구성, 연구 대상, 조사 방법 등을 확정하였다.

금년도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는 [표 V-1]과 같다. 먼저 ‘학습 및 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에 관한 응답결과 영역별 평균은 특성화 중고등학교(4.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4.04), 대안학교의 평균(3.95), 대안교육기관(3.88)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스포츠 활동(4.2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사-학생 간 소통 프로그램(평균 4.32), 대안학교의 여행, 캠프(4.20), 대안교육기관의 여행, 캠프(4.27)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주요 결과는 대안학교(평균 4.00)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문항의 평점이 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 중고등학교(평균 4.07)는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문항이 평균 4.25로 가장 높은 변화정도로 응답하였다. 대안교육기관(평균 3.82)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평균 4.15)”가 가장 높았다. 위탁교육기관(평균 4.07)은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가 평균 4.2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대안교육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영역별 평균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만족도(4.2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성화 중고등학교(4.16), 대안학교(4.09), 대안교육기

관(3.93) 순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학교 및 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체험활동 비중 확대”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활동 경험, 변화정도, 만족도, 개선사항 등

구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학습 및 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	대안학교	문항전체 평균	3.95	.705	-
		여행, 캠프	4.20	.965	1
		스포츠 활동	4.13	.969	2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4.11	.953	3
		교사-학생 간 소통	4.11	.999	3
	특성화 중고등 학교	문항전체 평균	4.05	.727	-
		스포츠 활동	4.28	.899	1
		여행, 캠프	4.27	.918	2
		교사-학생 간 소통	4.25	.996	3
		공동체활동	4.15	.936	2
	대안교육 기관	문항전체 평균	3.88	.665	-
		여행, 캠프	4.27	.907	1
		음악(악기, 노래), 미술, 공연	4.10	.954	3
		공동체활동	4.15	.936	2
		문항전체 평균	4.04	.779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사-학생 간 소통	4.32	.910	1
		여행, 캠프	4.22	.958	2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	4.19	.952	3
대안 교육을 통한 전반적 변화	대안학교	문항전체 평균	4.00	.780	-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4.20	.921	1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4.17	.953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4.10	.933	3
		문항전체 평균	4.07	.806	-
	특성화 중고등 학교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4.25	.962	1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4.22	.886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4.20	.915	3
		문항전체 평균	3.82	.743	-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4.15	.895	1
	대안교육 기관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4.01	.946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4.01	.876	2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3.94	.953	3
		문항전체 평균	4.07	.773	-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4.27	.893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4.23	.855	2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4.20	.952	3

구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대안 교육 인식 및 만족도	대안학교	문항전체 평균	4.09	.919	-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4.16	.985	1
	특성화 중고등 학교	문항전체 평균	4.16	.908	-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4.23	.960	1
	대안교육 기관	문항전체 평균	3.93	.937	-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4.11	.956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문항전체 평균	4.26	.808	-
		대안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4.34	.897	1
개선 방안	대안학교	문항전체 평균	4.15	.702	-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4.32	.885	1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4.32	.921	1
	특성화 중고등 학교	문항전체 평균	4.15	.671	-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4.37	.847	1
	대안교육 기관	문항전체 평균	4.11	.668	-
		기관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4.40	.924	1
		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4.37	.966	2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4.34	.934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문항전체 평균	4.15	.744	-
		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4.32	.892	1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4.26	.933	2
		진로탐색 비중 확대	4.24	.892	3

대안교육 영역별 양적조사와 동시에 질적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대안교육 참여 경험, 대안교육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V-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 주요 내용

조사영역	주요 질문	주요 응답 결과
대안 교육에 대한 인식	•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및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 •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 마음에 안정을 주는 교육 •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교육
대안 교육 참여 경험	• 대안교육 경험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경험 • 학생이 직접 개설하고 설계하는 교육과정 • 기회가 열려있는 교육과정 •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및 환경

조사영역	주요 질문	주요 응답 결과
		부정적 경험 • 교육 외에도 업무가 많은 교사 • 대안교과에 치우쳐진 교육과정 • 청소년이 인식할 정도로 부족한 예산 • 한 바구니에 담기에는 다양한 청소년 • 무너져가는 대안교육'
개선 사항	•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사항	•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의 추가 • 학생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성과

다음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자,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청소년활동 현장 전문가, 대안교육행정담당자, 연구진 등으로 정책업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정책업무협의회는 지역단위 모임에서 현장 전문가 면담과 참가자들 간의 토론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문가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대안교육현장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을 기획하였다. 포럼의 주제는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하고, 금년도 연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제발표를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3개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포럼에서 제기된 영역별 핵심과제와 개선 방안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은 [표 V-3]과 같이 정리하여 대안교육이 현재와 미래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정책과제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V-3.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 영역별 개선 및 요구 사항'

대안교육 영역	개선 방안 및 지원 요구 사항
대안학교 (각종학교) 특성화중 고등학교	1. 대안학교 교사가 대안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직무정체성 확립 방안
	2. 대안학교 입학 대상자 지침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감소시키는 노력 필요 (특수교육대상자, 경계성 장애, 정신 신경계 질환 등에 대한 입학 자격 검토)
	3. 대안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확보 시급 (대안학교 교사 양성체제를 일반학교와 다른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체제 필요)
	4. 과중한 업무 부담 및 효과적인 교육활동 수행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상담사, 치유사, 기숙사 사감 등 전문인력 배치)
	5. 대안교육 현장의 교사 양성 및 연구, 대안학교의 행정적 지원과 제도 구축을 지원할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1. 학생의 학교생활부적응 사유 및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위탁교육기관 발굴 및 지정 운영(교육청 직영 및 민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 자원 활용 방안 검토)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기관 이용 정보 제공 노력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지속)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자 및 교직원 대상 주기적인 역량강화 연수 필요 (일반학교 교사 연수와 별도로 위탁교육기관의 특성과 시대상황적인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필요)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 지원
	5. 원적교와 위탁교육기관의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적극적인 소통 채널 운영
	6.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직 정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위탁 학생에 대한 변화 모니터링 및 원적교 복귀 후 관리 방안
대안 교육 기관	1. 대안교육기관법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조항 명기가 시급
	2.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안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협력체계(민관학거버넌스) 구축
	3. 대안교육 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치
	4. 우수한 대안교육과정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와 시범실시 시스템 구축
	5.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6. 학교밖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수업료 지원 제도 마련

2. 정책 제언

1) 정책과제 발굴 절차

금년도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는 대안교육 분야의 선행연구 부족과 연구 영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문항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다. 대안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어 현장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설문 문항 확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 과정에 협조를 구하였다. 대안교육 참여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양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실시,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대안교육 포럼, 정책과제 개발 전문가워크숍 개최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그림 V-1]과 같이 개발하였다. 먼저 전국의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을 4개 영역[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령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현장 전문가를 포함시킨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2회 지역 모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하였다. 대안교육 분야 학계 및 현장, 학생 등이 참가한 대안교육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 중 시의성이 높은 현안 이슈와 미래 예측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의 영역별 구분과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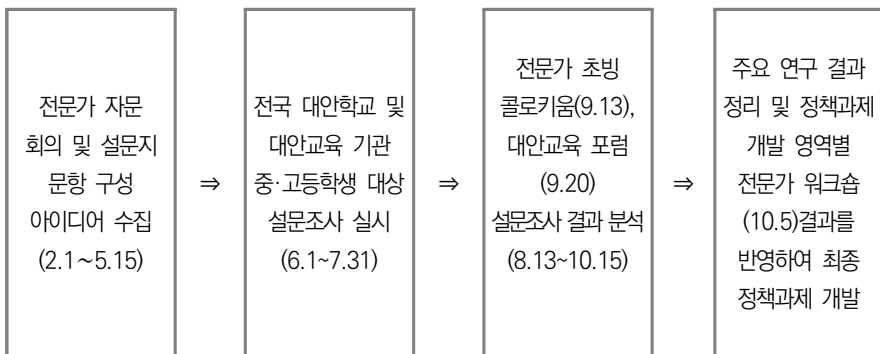


그림 V-1. 정책과제 발굴 절차

2) 정책과제 영역 구분 및 세부 추진과제

금년도 정책 영역별 추진과제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와 전문가 콜로키움 및 대안 교육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정책영역은 대안교육 분야 공통 과제와 대안교육 영역별 과제(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세부추진과제 발굴하였다.

세부정책과제의 구성은 먼저 금년도 주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 과제에 기대효과와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안사항과 세부추진 절차를 5~7단계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추진근거와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표 V-4.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 과제

정책영역		세부 추진과제	근거
대안교육 분야 공통과제		1)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 주도 학습활동 기획단’ 구성운영 2) 대안교육 교사 연수 및 행정적 체계 구축을 담당 할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3)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안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민·관·학 대안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4)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5) 대안교육 참여 사유 및 다양성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지정 운영’	• 대안교육 포럼 • 설문조사 및 FGI • 대안교육 포럼 • 업무협의회 및 콜로키움
대안 교육 영역별 과제	대안학교 (각종학교)	6)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 확충	• 설문조사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7) 전체 교육과정 총 시수 내에서 과목 시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목 편성권 부여	•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원적교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소통채널 운영 9)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 설문조사 및 FGI •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 기관	10)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설문조사 • 대안교육 포럼

정책 과제 : 1)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 주도 학습활동 기획단’ 구성·운영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 금년도 양적 설문조사 결과 ‘학습 및 활동경험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 4개 영역의 학교와 기관이 ‘여행과 캠프, 스포츠 활동, 교사-학생 간 소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안교육을 통해 책임감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높았음. - 대안교육의 다양한 학습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 책임감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주도의 학습활동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긍정적 효과	- 청소년들은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기획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과 추진력을 기를 수 있음 - 최근 무기력과 결정장애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방식으로 확대 고려	
	고려 사항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의지와 역량 수준의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	
	실현 가능성	2023년 10월 현재 각 지자체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지역사회청소년기획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안교육기관은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현안 사항	대안교육은 ‘기존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으로 교육 내용, 방법, 평가, 학교 운영 등에서 새롭게 다른 시도를 추구하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일반 학교에서 부적응 사유로 다양한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교육하는 곳이라는 인식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급변하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의 목표와 희망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도전정신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대안교육의 핵심과정으로 ‘청소년 주도 학습활동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절실함.		
추진 절차	■ 1단계 :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학습활동 기획단’ 구성을 위한 연구 모임 운영 ■ 2단계 : 지역 내 혹은 대안교육 분야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얻는 방법 ■ 3단계 :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 주도 학습활동 기획단’ 구성 및 운영 방안 협의 ■ 4단계 : ‘청소년 주도 학습활동 기획단’ 주요 실천 내용 및 우선순위 선정 ■ 5단계 : ‘청소년 주도 학습활동 기획단’ 운영과정 관리 및 발표회 계획 수립 ■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모색		
추진 근거 및 사례	★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 추진 사례 : 전라북도 군산시(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2016)),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박람회(2022), 충주00고등학교		

**정책 과제 : 2) 대안교육 교사 연수 및 행정적 체제 구축을 담당할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2023년 9월 20일 개최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의 첫 번째 주제발표 ‘대안학교의 현재 진단 및 발전방안’에서 네 번째 과제로 제안한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에 근거한 내용임. - 대안교육 현장에서 헌신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포함하여 대안학교 운영의 행정적 체계를 구축 등을 담당할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임.	긍정적 효과	- 대안교육에 대한 교육 철학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준비된 교사 확보를 통해 대안학교의 질적 성장 토대를 구축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센터를 확산하여 지자체 대안교육의 지원기반을 구축 계기 마련
		부정적 측면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자칫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와 중복으로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할 측면 고려
		실현 가능성	2023년 10월 현재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373개에 대한 [대안교육기관법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자정의 근거를 토대로 ‘대안교육지원센터’와 기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안 사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시행 2022.1.13.][법률 제17887호, 2021.1.12. 제정]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 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추진 절차	■ 1단계 :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와 대안교육 분야 이해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설명회 개최 ■ 2단계 : 정부 담당부처, 지자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 3단계 : 현재 추진 중인[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관련 분야 업무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방안 논의 ■ 4단계 :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지정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지원센터 지정 대상 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한 운영 기준 마련 ■ 5단계 :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		
추진 근거 및 사례	★ 추진 근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법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 추진사례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청소년기본법 제14조 3~4항](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 과제 : 3)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안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민·관·학
대안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 금년도 연구과정으로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양적 조사와 학생 및 교사 대상 FGI 결과를 포함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등을 통해 시급한 현안 과제로 제안되었음. 특히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 등록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주장에 근거함. - 민·관·학 협력형 대안교육 거버넌스 구축은 공공 영역과 대안교육 분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자원방안을 마련하고,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과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긍정적 효과	-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대안교육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의 플랫폼 역할 기대 - 민·관·학 협력형 대안교육거버넌스 운영으로 대안교육 현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안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제한 사항	민/관/학 간의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너무 강하게 내세울 경우 갈등과 마찰 발생의 여지가 있음	
	실현 가능성	현재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몇몇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민·관 혹은 민·관·학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현안 사항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 관련 기관은 등록과 함께 실질적인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발전을 도모할 시점임. 교육부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 필요.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모색하면서 대안교육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위탁교육기관)의 수와 운영 규모의 차이에 따른 예산의 지원 기준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 절차	■ 1단계 : 민·관·학 협력 대안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와 더불어 관련 연구 및 유사 사례조사 실시 ■ 2단계 : 참여 주체가 대안교육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협의 ■ 3단계 :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과 교육청 및 지자체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모색 ■ 4단계 : 지역의 특화된 대안교육 실현을 위한 자원활용 계획과 참여 주체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상생단계로 발전 ■ 5단계 : 각 단계를 거치면서 상호 협력의 특징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 방안 모색		
추진 근거 및 사례	★ 추진 근거 : [대안교육기관법], [사회복지사업법], [학교밖청소년 지원법] 등 ★ 추진사례 : 광주광역시 교육청[대안교육 유관기관협의회], 경남 교육청[대안교육 협의체] 대전광역시 교육청[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협의회], 경기도 교육청[대안교육기관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회]구성 운영 등		

정책 과제 : 4)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2023년 6월 30일 청소년시설 운영자,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연구진으로 정책연구협의회 1차 회의 개최(부산), 제2차 정책연구협의회 개최(8.2./세종),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정책의 연계방안' 전문가 콜로키움(9.13)에서 제안 내용에 근거하였음. -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과 청소년시설의 각자 운영상의 문제를 상호 보완하고, 연계·협력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활동 및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음.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공동체 의식 함양과 더불어 교육과 활동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긍정적 효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의 상당수가 활동 공간 및 학생 지도 전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 시설의 유휴시간 활용,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인력 활용 등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선결 과제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영역과의 연계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 차이 극복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 체결 및 운영지침 마련 등 협의의 절차가 요구됨.	
	실현 가능성	천안시 000청소년수련관은 2023학년도 교육과정 연계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00지역 청소년정보 플랫폼은 고교학점제 운영관련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 등은 향후 확대 가능성이 예상됨.	
현안 사항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활동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및 활동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참가 대상에 대한 분류 및 구성, 교육 및 활동과정의 표준화, 자원 및 자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함.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정책 전면 시행 단계에서 대안교육과 청소년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전담 교사 및 강사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청소년시설과 대안학교들 간의 협력 방안, 교육청의 역할 및 파견 교사제 도입 등에 관한 운영 지침 개발 및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추진 절차	■ 1단계 :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관계자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두 영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한 교육 및 활동 시스템 구축 방향 논의 ■ 2단계 : 고교학점제 도입과 청소년시설 및 전문인력 활동 등 현안 이슈 중심 검토 ■ 3단계 :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 체결 및 운영지침 마련 ■ 4단계 : 대안교육과 청소년활동 시설 및 기관 담당자의 상호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 ■ 5단계 :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간의 상호 연계·협력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모색		
추진 근거 및 사례	★추진 근거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3(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 인생위주 교육,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 교육 등)/[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추진 사례: 천안시 000수련관 학교 교육과정 연계활동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운영, 00지역 청소년정보 플랫폼은 고교학점제 운영관련 네트워크 구축 운영		

**정책 과제 : 5) 대안교육 참여 사유 및 다양성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지정 운영’**

과제도출 근거 및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2023년 9월 20일 개최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의 첫 번째 주제발표 ‘대안학교의 현재 진단 및 발전방안’과 두 번째 주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서 공통으로 제안한 현안과제에 근거한 내용임.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세 사유별로 전문성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발굴하고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안학교에 입학대상자 지침(특수 및 경계성 장애 학생 등)을 개정하여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긍정적 효과	- 대안교육 교사들이 분노조절장애, 약물, 자살, 지해 위험성 등 특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교부적응 사유별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청 직영으로 운영 및 인간의 전문성과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제한 사항	행정적으로 대안교육 참여 대상자에 대한 상세사유 기준 검토의 어려움과 통합교육 실현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방향에 역행할 여지가 있음.
	실현 가능성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중 ‘병원 및 소년원 연계 위탁교육기관’, 학교폭력 선도학생 대상 위탁교육(꿈드림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향후 실현성이 높다고 판단됨.
현안 사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다양한 학교부적응사유(분노, 우울, 무기력, 폭력, 가정환경, 대인갈등) 학생들을 동시에 수용할 경우 학생지도와 프로그램 운영상 심각한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있음. 대안교육의 대상자가 일반 학교 부적응 또는 학교 중도 탈락자, 특수교육대상자, 정신과 신경질환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의 교육공동체라는 사회적 인식을 대안교육 담당 교사들이 느끼고 있음. 교사들이 대안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과중한 업무 부담과 통제 불가능한 학생들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육활동 수행의 어려움(61.6%)’이라고 표현함(이수은, 2023).	
추진 절차	■ 1단계 : 현재 운영 중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 2단계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참여 사유 및 대안학교 입학 사유에 대한 발표회 개최 ■ 3단계 : 대안교육 참여 대상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및 대안학교 입학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이해관계자 토론회 개최 ■ 4단계 : 지역 교육청의 학교 부적응 유형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 계획 수립과 함께 교육부의 대안학교 입학 기준 및 지침 검토 ■ 5단계 : 대안교육 참여 대상자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	
추진 근거 및 사례	★ 추진 근거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초·중등교육법 「제28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각 시·도 교육청 조례 및 규칙, [대안학교 설립]「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3」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목적 : 학교 부적응 문제해소, 다양한 교육 구현 등 시설마다 다양한 교육목적 추구	

표 V-5.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정책영역		세부 추진과제	근거
대안 교육 영역 별 과제	대안 학교 (각종 학교)	6)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 확충	
		- 이 문제는 재정적 지원확대와 더불어 대부분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임 - 일부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기존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유휴공간이 매우 부족함 - 자기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예산 지원과 함께 각종 공간과 시설, 장비 등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	- 설문조사 - 이론적 고찰 - 대안교육 포럼
	대안 교육 특성화 학교	7) 전체 교육과정 총 시수 내에서 과목 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목 편성권 부여	
		-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과목별 시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업시수 이수를 위해 수업 이외의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하게 되어 대안학교의 특색과 교육효과가 감소하는 문제 발생 -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대안교육 실현 기반 조성	- 이론적 고찰 - 대안교육 포럼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	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원적교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채널 운영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생의 원적교 복귀를 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적교와 위탁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필요함 - 위탁교육기관은 일반학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원적교는 복귀 후 적응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원적교-위탁교육기관, 학교-교사-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 채널 운영이 필수적임.	- 설문조사와 FGI - 대안교육 포럼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	9)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 지역교육청에서 대안교육을 비롯하여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와 관심이 낮은 상태임 - 일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은 자료와 운영방식에 있어서 위탁교육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움	- 설문조사 - 대안교육 포럼

정책영역	세부 추진과제	근거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 부서에서 연수를 추진하기 않으면 시기를 놓치기 쉬움 - 위탁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수는 일반학교의 변화 상황에 맞추어 정기 및 상시적인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대안 교육 기관	10)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설문조사 -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①항제2호 제5조제1항제7호(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 교육공동체, 자치활동, 노작, 평화, 생태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에 중점 - 학생들의 학습권이 자기주도 학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기관마다 고유한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하는 접근이 요구됨	

3. 향후 연구 방향

전술한 정책과제에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노력과 더불어 대안교육 분야에서 추진할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거쳐 상급학교 진학 혹은 사회로 진출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특정 사례에 대한 이행경로 분석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에 참여하여 학습경험과 활동 결과에서 예상되는 성공 요소와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현장에서 상담 및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서 선배들의 경험담을 청취하는 과정을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둘째,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사례에 비추어 대안교육에 현장에도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와 돌봄에 관한 대응전략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더불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

고 있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법적 용어로 일부 지역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 ‘학생미혼모’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엄마 혹은 청소년 아빠’로 정의하고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의1, 제4조5).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출산 및 학업 지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15개의 ‘청소년 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현상의 일환으로 관련법과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우수한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로 확산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시범실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의 특징인 작은 학교와 다양한 교육공동체 교육과정에 관한 대안적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기술교육, 자연 속 현장체험학습, 일놀이 교육과 교과통합, 지역사회 인턴쉽 프로그램 등 교육과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교육과정의 확산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시의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호원 (2018). 영국의 대안교육 현황.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28, 1-13.
- 강호원 (2019). 영국의 학교 규모 변화 현황.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54, 1-14.
- 교육부 (202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세종: 교육부.
- 김민정, 김혜영 (2001).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및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3(1), 3-22.
- 김지현, 김지혜, 안은경 (2022). 공립대안학교 비교연구: 한국, 미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32(4), 43-73.
- 송순재 (1997). 공교육과 대안학교운동. **신학과세계**, 33, 233-263.
- 송순재 (2017). 덴마크의 자유교육: 개방성, 유연성, 다양성에 대하여. **한국-덴마크 교육 국제 세미나 자료집: 덴마크 대안교육을 만나다**, 149-161.
- 신혜진, 한주영 (2017). 「한국-덴마크 교육 국제 세미나」를 돌아보며.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3.
- 심대현 (2018). **대안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해섭, 박지영, 이지혜, 임하린 (2019).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은지 (2021). 미국과 독일의 대안교육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대안교육에 대한 시사점 도출: 법, 재정, 학력 인정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4(1), 79-111.
- 이덕난, 최재은 (2021).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NAR S 입법·정책**, 81.
- 이정섭, 김영순 (2022). 공립형 대안학교 위탁 고등학생의 학교부적응 극복 경험에 관한 해석현상학적 분석. **교육혁신연구**, 32(3), 317-342.

- 이종태 (2007). **대안교육 이해하기**. 서울: 민들레.
- 이종태 (2014). 미국의 차터스쿨과 덴마크의 자유학교가 주는 시사점.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정책과 실천**,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태, 박상진, 하태욱 (2018).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세종: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태, 이인규, 허은주, 배정태 (2021). **미래·치유형 대전 공립 대안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대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 이혜숙, 조운정 (2019).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전라남도교육청 (2022).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 정설미, 이호준, 송원일 (2022). 인가형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변화 추이에 관한 탐색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40(4), 377-405.
- 정수정 (2018). 독일의 대안학교 현황.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28, 1-50.
- 정재균, 조무현 (2015).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전북교육정책연구소.
- 조창호, 김세광, 한숙희 (2023).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선도모델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비전정책연구원.
- 최상덕 (2006). 영국 빈민지역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준 ‘아카데미학교’. **교육정책포럼**, 133, 21-23.
- 최인재, 송원일, 박지원 (2020a).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송원일, 배수인 (2020b).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오해섭, 박은주 (2022). **2022년 시·도 교육청 평가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 최종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전라남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태욱, 김태호, 이경석, 이동배, 이민경 (2020). **미래형 대안학교 (가칭)해리포터 설립 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하태욱, 이병곤, 황지원, 김은영 (2021).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2011). 2010년 미국차터스쿨 연간보고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석만 (2004). ‘대안교육’의 재개념화와 한국의 대안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on, L. Y. & Zweig, J. M. (2003). *Educational alternatives for vulnerable youth: student needs, program types, and research direction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Bernstein, M. (2004). “Why I’m wary of charter schools. In James Wm”. Noll(Ed). *Taking sides: Clashing views on controversial educational issues*(12th ed.). Connecticut: McGraw-Hill.
- Gordon, T. (1986). *Democracy in One School: Progressive Education and Restructuring*. London: New York: Falmer press.
- Grady, D. (2012). Charter School Revocation: A Method for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Success.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Henrik, E. (2014). 독일의 대안교육(Because We Do Not Dare).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정책과 실천**,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Lange, C. M. & Sletten, S. J. (2002). *Alternative education: a brief history and research synthesis*. Alexandria, VA: Project Forum at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irectors of Special Education.
- Martin, N. & Brand, B. (2006). *Federal, state, and local roles supporting alternative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Youth Policy Forum.
- Martin, N. (2014). *An overview of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roles*. In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d.), 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4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policy and practice*. Seoul: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69 87.
- Mehta, N. (2011). *Competition in public school districts: Charter School Entry, Student Sorting, And School Input Determi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University, Pennsylvania, USA.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Germany (2023). *Germany's Education Policy and Alternative Education: An Overview*. Government Publication Office.

OECD (2020). *Education Policy Outlook: Germany*. OECD.

Pedersen, P. B. (2017). 프리스콜레_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아름다운 동행. **한국-덴마크 교육 국제 세미나 자료집: 덴마크 대안교육을 만나다**, 3-36.

Young, T.(1990). *Public alternative education*.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인터넷 자료

교육부. 2022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1336>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현황(23.12.18.기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9756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3년 12월 28일 인출.

Besser bilden. 독일 주 인증 사립학교. <https://www.besser-bilden.de/privatschulen-staatlich-genehmigt/>에서 2023년 2월 4일 인출.

Denmark - History Background. <https://education.stateuniversity.com/pages/368/Denmark-HISTORY-BACKGROUND.html>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Education Commision of the State. Charter School Policies: Does the state have a charter school law?. <https://reports.ecs.org/comparisons/charter-school-policies-01>에서 2023년 2월 5일 인출.

Education Commision of the State. Public Charter School Enrollment. <https://reports.ecs.org/comparisons/charter-school-policies-01>에서 2023년 2월 5일 인출.

Education commission. 50-State Comparison: Charter School Policies. <https://www.ecs.org/charter-school-policies/>에서 2023년 5월 20일 인출.

Efterskolerne. About the Danish efterskole. <https://www.efterskolerne.dk/English/aboutthedanischefterskole>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Efterskolerne. Facts about the Danish efterskole. <https://www.efterskolerne.dk/English/factsabouttheefterskole>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Friskolerne. Legislation. <https://www.friskolerne.dk/english/legislation>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Friskolerne. The history of the free schools. <https://www.friskolerne.dk/english/the-history-of-the-free-schools>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Naked Denmark (2017.5.12.). 덴마크 교육 한눈에 보기 ② 대안교육. <http://nakeddenmark.com/archives/7674>에서 2023년 2월 4일 인출.

Public charter schools. WHO ATTENDS CHARTER SCHOOLS?. <https://data.publiccharters.org/digest/charter-school-data-digest/who-attends-charter-schools/>에서 2023년 2월 5일 인출.

StoryEnzin. 세계 발도르프학교 현황. <https://storyenzin.com/2012/08/06/세계-발도르프학교-현황/>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WES. Education in Germany. <https://wenr.wes.org/2021/01/education-in-germany-2>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Wikipedia. Waldorf education. https://en.wikipedia.org/wiki/Waldorf_education#Developmental_approach에서 2023년 6월 6일 인출.

법령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월 9일 인출.



부 록

부록

1. 조사표

※ 고유번호(ID)는 기록하지 마십시오.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고유번호(ID)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청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참여실태와 효과적인 대안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제 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무기명 처리되어 통계 분석과정을 거치므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며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으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연구원: 오혜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선임연구원)
□ 설문 내용 관련 문의: 최홍일 전문연구원(044-415-2187)/문세진 연구원(044-415-2168)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전화번호, 성별, 학교급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1. 휴대전화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에 한하여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이므로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학교급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중·고 통합	④ 기타		
4. 참여기간	대안(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특성화중·고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① 2주 미만	② 2주 이상 4주 미만	③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	④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____① 본인 스스로 결정 ____④ 친구의 권유
____② 부모님의 권유 및 결정 ____⑤ 언론과 SNS
____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 ____⑥ 기타()

※ 해당하는 문항에 대해 (V)표해주시오.

268 |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Ⅲ. 대안교육의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V)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일반교과 수업을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발표회, 전시회 등 학습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나 취업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습활동 진행 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대안교육 참여를 통한 전반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체크(V) 해주세요.

대안교육을 통한 변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 및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간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8) 리더십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V. 대안교육 참여에 대한 만족도와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체크(V) 해주세요.

참여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안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대안교육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안교육 관련 학교와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대안교육 운영 학교 및 기관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체크(V) 해주세요.

개선방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수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대안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교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확충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체험활동 비중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활동 비중 확대	①	②	③	④	⑤
(7) 대안교육참여 학생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VI. 기타의견 :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

1.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 가. 대안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나. 대안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2. 대안교육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이 여러분에게 미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나.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3. 대안교육 기관 선택 기준
 - 가. 지금 다니는 학교 및 기관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나. 왜 그런 기준이 생겼나요?
4. 대안교육 참여 시 어려움
 - 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의 아쉬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나. 왜 어려울까요?
5. 대안교육 경험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
 - 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만족도
 - 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이 만족스럽나요?
 - 나.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나요?
7. 개선사항
 - 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나. 왜 개선되어야 하나요?
8.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과정
 - 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교육내용이 있나요?
 - 나. 왜 추천하고 싶나요?

3. 법정대리인 연구 참여 동의서

법정대리인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아동·청소년의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의사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아동·청소년이 응답한 내용이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조사를 이용하여 파생된 연구 결과나 개발에 대해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본 조사에 참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본 연구에 참여 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아동·청소년(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실태 및 자원 방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등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본인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해당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_____(서명)

4. 학생 및 교사용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실태 및 지원 방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등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국문초록

금년도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는 우리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다양성 요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 전체와 영역별 현안 및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과 함께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 분야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① 국내외 대안교육 제도적 기반 및 관련 정책, 대안교육 영역별 운영 현황 탐색, ②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파악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 문항 개발, ③ 청소년의 대안교육 학습경험, 변화 정도, 만족도, 개선방안 등 영역별 비교분석, ④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성 모색을 포함한 현안 진단 결과를 토대로 대안교육 분야의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등이다. 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문헌 고찰, 양적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콜로키움, 대안교육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에 개발된 정책과제는 대안교육분야 공통과제 5개는 다음과 같다.

- 1)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 주도 학습활동 기획단’ 구성운영
- 2) 대안교육 교사 연수 및 행정적 체계 구축을 담당할 ‘대안교육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 3)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안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민·관·학 대안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 4)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 5) 대안교육 참여 사유 및 다양성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확대 지정 운영’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대안교육 영역별 5개 현안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 확충(대안학교, 대안교육특성화 학교, 대안교육기관)
- 2) 전체 교육과정 총 시수 내에서 과목 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목 편성권 부여(대안교육 특성화학교)
-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원적교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소통채널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대안교육위탁교육 기관)
- 5)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대안교육기관)

마지막으로 대안교육 분야의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대상 사회적 이행경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대안교육 현장의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돌봄과 치유를 통한 성장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 혹은 ‘학생미혼모’ 대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시·도별 연계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e research on “Participation Status and Support Measures for Alternative Education for Youth” in the current year was conducted with a view to objectively analyzing the societal demands for diversity in our education system and seeking evidence-based policy support. Its goal was to examine the current issues and on-site demands in the field of alternative education, formulate policy-supported approaches accordingly, and explore strategies to ensure alignment between alternative education and youth policy domains.

The major research topics are as follows:

1. Exploration of the institutional basis and related policies of alternative educa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2. Development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 items to understand the participation status of youth in alternative education;
3. Comparative analysis across different domains such as youths’ learning experiences, levels of change, satisfaction, and proposed improvements in alternative education; and
4. Derivation of policy-supported approaches in the field of alternative education based on a diagnosis of current issues, including ensuring alignment with youth policy.

The research methodology encompassed literature review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urces, quantitative surveys, focus group

interviews (FGIs), expert advisory meetings, expert colloquia, alternative education forums, and policy research workshops.

The policy tasks developed from the research results in the field of alternative education include five common challenges:

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Youth-Led Learning Activity Planning Team” for participation in alternative education;
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lternative Education Support Center” responsible for teacher training and administrative frameworks;
3.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Academia Partnership Governance” to support on-site alternative education by municipal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4.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on-site alternative education and youth policy; and
5. Expansion of designated operating institutions for alternative education to accommodate various reasons for youth participation and demands for diversity.

Additionally, the five current issues identified within the four selected areas of alternative education are as follows:

1. Expansion of space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alternative schools, alternative education-specialized schools,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2. Granting schools the authority to adjust subject hours within the total hours of the entire curriculum (alternative education-specialized schools);
3. Operation of student-teacher-parent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delegat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and original schools (delegat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4.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support for staff at delegat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delegat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and

5. Assurance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to realize the educational philosophy and components of their curriculum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Finally,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alternative education involve the following:

1. Analyzing the social progression pathways of graduates from alternative schools and institutions;
2. Urgent research into establishing systems for growth support, through caregiving and therapy for youths increasingly fac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rises in the alternative education environment; and
3. Investigating support and coordination methods for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and alignment with local governments catering to “adolescent single parents” or “unmarried student parents” across different regions.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합성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환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동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마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박유정
-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위 크 쉘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김 세 광 (에반겔리아대학교 교수)

남 부 현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교수)

◆ 자문 · 협력진 ◆

안 성 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이 종 태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이 흥 우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 희 용 (다에다문화학교 교장)

장 종 택 (고산고등학교 교장)

하 태 옥 (신나는학교 교장)

청소년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94-7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